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연구

안세아 (연구위원)

발 간 사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연구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원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배경, 정서적 지원, 지역별 자원 접근성 등에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가 정책수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정책수요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지원 실태 조사와 관련 전문가·실무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자문, 지원체계 분석 등의 실증적 정책 근거자료를 토대로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향후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지역간 대상간 격차 해소, 서비스 접근성 향상,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구축 등의 대상별 맞춤형 정책 마련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연구가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와 자문에 참여해주신 충남도민과 현장전문가, 자문해주신 정책부서 담당자, 연구자, 좋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평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 영 옥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충남 도내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양적으로 증가하며 대상별 특성 및 정책 요구가 다 변화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저연령층 확대, 진로 문제, 정신건강의 측면, 부모와의 관계형성 등 보다 복합적인 측면에서 학업 중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정규교과 과정 이탈 이후 주체적으로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기존 공교육 중심의 지원 체계로는 대응의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남 지역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와 실태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진로·자립 등 핵심 영역에 대한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정책체계 전반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충청남도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지원 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충남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학업 중단 사유, 생활 여건, 심리·정서 상태, 진로 및 자립 의지,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과 지원 정책을 구체화함. 둘째,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 및 운영 실태 검토하여,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기관, 전달체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책 및 제도상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먼저,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함. 또한, CIPP 분석 및 실무자 대상 FGI 실시하여 도내 관련 기관 시설 실

무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요 개선 과제,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 역할 및 기능, 주요 과제 도출 등을 도출하고자 함

[요약 표 1-1] 연구 수행과정 및 절차

구분	연구과정 및 절차	일정
↓		
사전 자문, 선행연구 검토	○ 연구 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 정책관련 및 실무진의 의견 수렴 ○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 리뷰	2025.2~4월
↓		
전문가·실무자 인터뷰 간담회	○ 대상 :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등 ○ 내용 : 관련 실무자 자문회의, 센터 현황 및 실태	2025.4~11월
↓		
설문조사 실시·결과분석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대상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 학교 중단 선택한 이유, 중단 선택 이후 현황 및 실태, 어려움 및 개선요구, 정책수요 등 - 방법 및 내용: 기초통계 및 2차 분석 실시, 정책시사점 도출	2025.4~7월
↓		
성과분석틀 구안, 조직 현황분석 실시	○ CIPP 성과분석틀 구안 - 성과분석틀에 의한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조직진단 및 개선 방안 구체화	~2025.11월
↓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분석결과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전문가·실무자 자문회의 - 대상 : 관련 실무자 등 전문가 - 내용 : 근무 여건 및 인력 현황, 사업 대상 증감에 따른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사업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 사업 실태와 정책수요 등 2.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시사점 제언 검토와 도출 - 대상 : 관련 선행 연구자, 실무자 등	~2025.11월
↓		
정책시사점 도출 및 제언	○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도출 ○ 정책제언 및 주요 정책사업 구체화	~2025.12월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업중단 실태 분석, 학교 복귀 또는 검정고시 중심의 교육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및 자립 지원 등으로 구분됨.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디지털 미디어 사용, 비자발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목소리 반영 등으로 연구영역이 다변화되는 추세로 확인됨
-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단기 학업복귀를 넘어, 자기주도적 삶의 설계와 자립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확인함. 정책 수립 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적 접근이 병행할 필요가 있음. 향후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장기적 관점의 추적 연구, 지역 특성 기반 분석 등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함

4. 연구의 차별성 및 정책적 활용

-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전국 단위의 통계자료나 법제도 분석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부 지역 또는 유형별로 예를 들어, 학업중단 사유, 위기유형 등에 한정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데 그쳤음.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복귀’나 ‘검정고시 지원’ 등 교육적 성과 중심의 접근에 머물렀으며, 정신건강, 진로 탐색, 자립 역량 등 청소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방안에는 상대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은 측면에 한계가 있음
- 기존 연구들이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과 성장의 주제로 바라보며, 정신건강 회복, 진로 동기부여,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정책 목표로 명확히 설정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교육부(교육청)와 협력을 강화하여,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적 근거 기초자료로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

II.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현황

1. 충남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 충남 학업중단자 현황

- 충남 학업중단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20년도에 전체 0.6%에서 2024년도 0.9%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률은 유사한 추이로 나타나며, 학교유형별 학업중단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2023년도까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2024년에는 급격하게 학업중단율이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 특목고의 경우, 특성화고 다음으로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2023년도부터 감소하는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전반적으로 초중등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요약 표 2-1] 충남 학업 중단율 추이(2020~2024)

연도	구분	충남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2020	전체	0.6	0.3	0.4	1.3	1.0	1.6	2.9	0.8
	남자	0.6	0.3	0.4	1.4	1.0	1.9	2.9	0.7
	여자	0.6	0.4	0.4	1.3	0.9	1.1	3.0	0.9
2021	전체	0.7	0.4	0.5	1.7	1.3	2.2	3.9	0.6
	남자	0.7	0.4	0.4	1.7	1.2	3.0	3.9	0.5
	여자	0.7	0.3	0.5	1.7	1.4	1.3	3.9	0.8
2022	전체	0.7	0.4	0.5	1.7	1.3	2.2	3.9	0.6
	남자	0.4	0.2	0.2	0.9	0.6	1.6	2.3	0.3
	여자	0.3	0.2	0.2	0.8	0.7	0.6	1.7	0.3
2023	전체	0.8	0.4	0.6	2.1	1.6	2.1	4.8	1.1
	남자	0.4	0.2	0.3	1.1	0.7	1.3	2.7	0.7
	여자	0.4	0.2	0.3	1.0	0.9	0.8	2.1	0.3
2024	전체	0.9	0.5	0.6	2.0	1.6	1.5	1.1	0.8
	남자	0.4	0.2	0.3	1.0	0.7	1.0	0.6	0.4
	여자	0.4	0.2	0.4	1.0	0.9	0.6	0.5	0.4

자료 및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자료 가운데 일부를 재가공함

주: 1) 고등학교의 유예 및 면제자는 세부 사유가 없음

2)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 / 전년도 학생수 × 100

3) 학업중단자 조사기준일: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말/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말/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말

4) 전년도 학생수 기준일: 2020년~2023년 매년 4월 1일

5) 고등학교 세부 유형이 1년 사이 변경된 경우 학업중단률 사용 시 유의하여야 함

- 전년도 학생이 없는데 학업중단자가 있는 경우 발생

- 전년도 학생보다 학업중단자가 더 많은 경우 발생

- 전년도 학생이 있는데 학업중단자가 없는 경우 발생

2) 학업 중단 사유 추이

- 연도별 초·중학생 학업중단 사유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초등학교 학업중단사유 구분 가운데 유예와 면제 사유 중 면제에 해당하는 237명으로 유예 174명보다 더 많게 나타나고 이러한 양상은 2023년도까지 이어져 면제 265명, 유예 193명으로 면제사유가 더 높고 시계열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초등학생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확인됨
- 학업중단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 사유와 달리 2021년 기준 유예가 189명으로 면제 39명보다 더 많은 사유로 확인되며, 2023년도까지 이러한 양상으로 확인되어 유예가 285명 면제 71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충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 현황

- 충청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의 학업 복귀, 직업 역량 강화,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통한 상담·교육·직업체험, 학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연계, 인턴십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이 있음. 또한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사업, 검정고시 지원,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음
- 사업 운영은 지역 특성과 청소년의 수요에 맞게 다양화되어 있으며, 충남 내 15개 시군 모두에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지역 간 사업 편차, 전문 인력 부족, 청소년 접근성 한계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 정책의 지속성과 통합적 접근 필요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업보다는 복지, 교육,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함

3. 소결

-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 지원서비스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도내 지역 간 총괄 지원 센터의 기능 강화가 전제되어 지역 간 격차 없이 도내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함. 이처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 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시간 확대 등 대상이 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함. 관련 인프라 및 지원센터의 인적 자원은 한계가 있어 상담이나 진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인적 자원의 확충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활성화되기 위해 청소년 참여 기반의 정책 지원 네트워크 형성과 선순환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체계화되어야 함
 - 또한 사례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청소년의 자립의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스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시스템이 자립을 위한 사회적 협력망 구축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역 내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자립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주된 사유로는 학습문제, 자기주도적 진로 선택, 심리적 및 정서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유로 정규교과과정에서의 충동적인 이탈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 개인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주체성과 연계되며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가족 및 친구 등과 고민상담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학업을 중단한 주된 이유인 학습문제, 진로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기에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배경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개입과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Ⅲ.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시사점

1. 조사 개요

- 본 조사의 세부 설계는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및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170명, 센터 16개소에 해당됨
-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학교를 중단 한 이후의 생활실태, 진로 및 직업 탐색, 신체 심리 건강과 가치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기관 일반현황, 운영 현황, 기관 운영 어려운 측면과 정책적 요구 등으로 세부 항목을 구성함

2. 주요 조사 결과

- 진로 및 직업탐색 영역에서 주로 필요한 정보로는 ‘진학 입시 정보’, ‘진로체험 정보’, ‘진로설계 정보’가 주로 필요한 정보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진로 설계와 체험, 진학 입시정보 등에 대한 주요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보들에 비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필요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로설계 및 체험, 그와 관련한 진학입시 정보 공유의 기회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요약 표 3-1] 진로 관련 필요 정보

구분	불필요	보통	필요	5점 평균	100점 평균
자기이해 정보	7.6	28.2	64.1	3.7	67.6
진로체험 정보	8.2	33.5	58.2	3.8	70.6
직업 정보	17.6	25.3	57.1	3.6	65.6
학과 정보	20.0	20.0	60.0	3.6	64.4
진학·입시 정보	8.8	27.1	64.1	3.8	70.7
진로설계 정보	8.2	30.6	61.2	3.8	70.1
학습 방법 정보	12.9	27.1	60.0	3.7	67.8
취업 정보	10.0	33.5	56.5	3.7	67.5
창업 관련 정보	12.4	20.0	67.6	3.8	69.6

- 희망하는 직업을 위한 계획으로는 ‘검정고시 준비’가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 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17.8%)’, ‘취업과 진학 병행(13.9%)’ 순으로 확인되며,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내용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 의견을 잘 들어준다’, ‘나는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희망하는 진로에 도전해본다’,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한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임. 즉, 타인의 의견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희망하는 진로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도가 높게 나타남
- 한편, 다른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비동의한 내용으로는 주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종종 물어본다’, ‘나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학교나 학과에 진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로 확인됨에 따라, 진로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취합하는데 있어서 태도의 적극성이 다소 낮으며, 중요한 진로 정보 접근성 역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도전 정신과 의지, 의견 수용도는 높은 반면, 주요한 객관적인 진로 설계 및 입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에 대해 도전정신과 태도를 취하기 전에 객관적인 진로 설계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를 선제적으로 취합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진로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요약 표 3-2]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18.2	32.4	49.4	3.5	62.2
내 장점과 단점을 나는 잘 알고 있다	17.6	38.8	43.5	3.4	60.1
나는 다양한 나의 특성(성격, 흥미, 적성 등)에 대해 알고 있다	20.0	22.4	57.6	3.5	62.8
나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능력과 지식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16.5	27.6	55.9	3.6	65.0
나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	22.9	31.2	45.9	3.4	59.3
나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학교나 학과에 진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29.4	16.5	54.1	3.4	60.9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종종 물어본다	31.8	20.6	47.6	3.3	58.4
나는 미래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본다	15.3	35.9	48.8	3.5	61.3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미래에 필요한지 찾아본다	19.4	30.6	50.0	3.4	61.0
나는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종종 점검한다	22.4	24.1	53.5	3.5	61.9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계획을 실천한다	21.8	25.9	52.4	3.4	60.7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한다	18.8	18.8	62.4	3.6	64.7
열심히 노력하면 진로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4	18.2	62.4	3.6	64.3
내 진로를 성공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4.1	38.2	47.6	3.5	62.8
나는 나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8.2	34.7	47.1	3.5	61.3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4.1	25.9	50.0	3.4	60.0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26.5	18.2	55.3	3.4	61.0
내가 몰랐던 직업 발견하면 그 직업을 알고 싶다	20.6	30.6	48.8	3.4	61.0
진로 계획 변화가 생겨도 유연한 대처	21.2	32.9	45.9	3.4	60.3
나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계획을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20.0	24.7	55.3	3.5	62.9
나는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희망하는 진로에 도전해본다	18.2	19.4	62.4	3.6	64.0
나는 직업에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희망하는 진로를 추구한다	11.8	28.2	60.0	3.7	66.6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13.5	22.9	63.5	3.7	67.1
나는 나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다	14.1	37.1	48.8	3.5	62.9

- 최근 심리상태의 경우 ‘나는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요즘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와 같은 내용에 대해 그렇다로 긍정하는 응답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근심이나 걱정 그리고 우울정도에 대해 비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상태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3-3] 최근 심리상태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11점 평균	100점 평균
어제 나는 행복했다	16.5	17.6	65.9	7.7	66.6
어제 나는 근심 또는 걱정이 있었다	45.9	20.0	34.1	5.5	45.1
어제 나는 우울하였다	51.8	8.8	39.4	5.1	40.9
나는 요즘 나의 삶(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0.0	5.9	84.1	8.3	72.6
나는 요즘 내가하고 있는 일(공부, 아르바이트 등) 전반적으로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7.1	7.1	85.9	8.4	74.3

- 사회성과 관련된 문항내용에서 자신과 일치하는 동의 정도를 살펴볼 때,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가 동의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경우 비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타인의 협력보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요약 표 3-4] 사회성 관련 문항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4점 평균	100점 평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21.8	78.2	2.9	63.9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19.4	80.6	3.0	66.1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24.1	75.9	3.0	65.3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2	68.8	3.0	66.1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22.9	77.1	3.0	67.1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2.9	77.1	3.1	69.6

- 사회적 소외감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로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동의 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의 경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동의 정도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스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는 반면,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 사회적인 환경적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확인됨

[요약 표 3-5] 사회적 소외감 관련 문항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4점 평균	100점 평균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60.6	39.4	2.2	41.0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48.2	51.8	2.4	47.8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56.5	43.5	2.3	43.9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54.7	45.3	2.2	40.0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68.8	31.2	2.1	36.9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42.4	57.6	2.7	56.1

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도움 받은 정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세상소통카드’, ‘건강검진’, ‘청소년증’,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한 도움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정책 대상사업의 실제 사업 수요와 만족도에 따른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요약 표 3-6] 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 받은 정도

구분	알고 있다	이용경험 있다	도움 받은 정도			
			도움 안됨	도움 됨	4점 평균	100점 평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75.9	87.6	2.7	97.3	3.4	8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4	57.5	9.8	90.2	3.3	78.1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42.4	50.0	13.9	86.1	3.3	75.0
청소년 안전망 사업	29.4	20.0	40.0	60.0	2.8	60.0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농어촌청소년 장학사업	31.8	25.9	21.4	78.6	3.1	69.0
청소년 쉼터	47.1	25.0	25.0	75.0	3.3	76.7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30.6	21.2	27.3	72.7	3.1	69.7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41.2	68.6	6.3	93.8	3.4	81.2
내일배움카드	45.9	43.6	5.9	94.1	3.6	85.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44.7	57.9	4.5	95.5	3.6	86.4
청소년증	47.1	78.8	4.8	95.2	3.4	79.4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39.4	55.2	13.5	86.5	3.3	77.5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51.2	86.2	2.7	97.3	3.6	88.0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 분야별로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먼저 ‘학습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다양한 교육방법(여행, 캠핑, 상담 등)을 활용한 교육 제공’이 23.2%로 가장 높게 나

타하며, '진로직업 및 취업 지원 중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17.6%로 가장 높은 정책수요가 확인됨. '건강 상담 등 복지 지원 중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이 21.3%로 가장 높으며, '경제적 지원 중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교육(활동, 직업훈련)참여 수당'이 15.8%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예체능 모임 등 지원 중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문화예술 악기, 그림, 사진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28.0%로 높은 정책수요가 나타남

3. 문항별 조사 결과

- 학습지원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36.5%)'로 높게 나타남.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40.332$, $p<.05$) 그만둔 지 1년 이상~2년 미만,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3년 이상 청소년들은 멘토 응답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청소년들은 다양한 교육방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단순한 교과 학습보다, 개별 상황과 진로 여정에 공감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멘토)의 존재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지원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학교 중단 시점에 따라 학습지원 유형 선호가 상이하게 나타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학습지원의 핵심 필요가 '멘토'로 나타난 점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함께 학습·진로 방향을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관계 중심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학교라는 제도적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비형식적, 관계 기반의 학습 환경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라, 전문성 있는 진로·학습 멘토 인력풀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또래 멘토, 진로 분야 실무자, 대학생, 직업인 등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함
 - 학교를 중단한 시점에 따라서 필요한 학습지원이 상이함에 따라, 학교 중단 직후 초기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지지자인 멘토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이탈 중기인 6개월에서 1년 이하인 청소년은 지속적인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며 장기 이탈 청소년은 직업과 연결된 실천적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단순한 교육 지원이 아닌 정서적 지지와 진로 탐색과 학습을 조력하고 독려하는 프로그램 연계, 그리고 이러한 동기가 강화될 수 있는 관련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이 종합적으로 패키징화하여 지원되어야 함

[요약 표 3-7]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학습지원)

단위: (명), %

학습지원		(명)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대입 정보 제공 및 대학 진학 상담	검정고시 준비 지원(관련 정보, 교재, 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교육방법(여 행, 캠프, 상담 등)을 활용한 교육 제공	복교(학교 복귀)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복교 지원	수능준비 지원(교재 지원, 수능대비반 운영 등)
전 체		(170)	36.5	14.7	23.5	15.9	1.8	7.6
성별	남성	(91)	30.8	16.5	30.8	13.2	2.2	6.6
	여성	(79)	43.0	12.7	15.2	19.0	1.3	8.9
$\chi^2=7.917$								
연령	18세 이하	(11)	45.5	9.1	9.1	36.4	0.0	0.0
	19세 이상	(159)	35.8	15.1	24.5	14.5	1.9	8.2
$\chi^2=5.768$								
지역	시	(176)	31.9	12.6	27.7	16.8	2.5	8.4
	군	(124)	47.1	19.6	13.7	13.7	0.0	5.9
$\chi^2=8.202$								
소속기관	꿈드림	(68)	37.9	16.1	16.1	17.7	2.4	9.7
	청소년 쉼터	(36)	31.0	11.9	45.2	9.5	0.0	2.4
$\chi^2=20.702$								
학업중단 후 경과 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36.8	15.8	26.3	10.5	0.0	10.5
	6개월 이상~ 1년 미만	(36)	27.8	11.1	22.2	30.6	2.8	5.6
	1년 이상~ 2년 미만	(51)	52.9	15.7	9.8	13.7	2.0	5.9
	2년 이상~ 3년 미만	(42)	23.8	9.5	47.6	11.9	2.4	4.8
	3년 이상	(21)	33.3	28.6	9.5	9.5	0.0	19.0
	$\chi^2=40.332^*$							

○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직업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이 25.37%로 높게 나타남.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20.284$, $p<.01$) 군 지역 청소년들은 ‘직업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41.2%)’을 원하는 경우가 시 지역 청소년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남

-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 따라 정책 요구 서비스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며($\chi^2=64.839$, $p<.01$) 학교를 그만둔 지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 청소년은 ‘직업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52.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학교를 그만둔 지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45.1%)의 청소년과 학교를 그만둔 지 3년 이상(28.6%)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직업적성 등 직업 관련 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났음. 또한 학교를 그만둔 지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의 청소년과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의 비교적 초기 단계 청소년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진로 관련 직업 역량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기회제공이 필요함. 지역 특성과 학교 중단 시기 등의 개인 특성을 반영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다각도로 요구되고 있어 맞춤형 지원체계 세분화가 필요
- 직업교육과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직무 중심 훈련과정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기관 연계 강화가 필요함. 실질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구조 마련이 요구됨. 예컨대,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 청소년 41.2%는 직업 상담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보와 상담을 통해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상담지원서비스 활성화, 온라인 직업적성 진단 시스템 확대, 진로 탐색 워크숍 정례화 등의 접근성 강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직업상담사 및 청소년 진로코치와의 1:1상담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를 그만둔 시기에 따라 희망하는 지원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 진로 발달 단계가 학교 중단 시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진로 인식-직업탐색-기술습득-취업실행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예컨대, 학교 이탈 초기(1개월~1년 미만)는 자격증 중심의 단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하고, 중기(1~2년) 자기 이해와 직업 적성 상담을 통해 진로 방향 설정을 지원하며, 장기(2~3년 이상) 직업훈련, 창업·취업 연결 중심의 실천 프로그램 집중 제공하는 등 단계적인 지원체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요약 표 3-8]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진로·직업 및 취업지원)

단위: (명), %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		(명)	직업·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	직업 탐색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	맞춤형 직업 지원 프로그램	학력 취득과 직업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작업장	근로 시 피해 예방 교육
전 체		(170)	25.3	6.5	25.9	15.3	12.4	5.9	7.1	1.8
성별	남성	(91)	22.0	8.8	31.9	12.1	11.0	5.5	6.6	2.2
	여성	(79)	29.1	3.8	19.0	19.0	13.9	6.3	7.6	1.3
$\chi^2=7.121$										
연령	18세 이하	(11)	0.0	27.3	27.3	18.2	18.2	9.1	0.0	0.0
	19세 이상	(159)	27.0	5.0	25.8	15.1	11.9	5.7	7.5	1.9
$\chi^2=12.480$										
지역	시	(119)	18.5	4.2	28.6	16.0	16.0	5.0	9.2	2.5
	군	(51)	41.2	11.8	19.6	13.7	3.9	7.8	2.0	0.0
$\chi^2=20.284^{**}$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		(명)	직업·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	직업 탐색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	맞춤형 직업 지원 프로그램	학력 취득과 직업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작업장	근로 시 피해 예방 교육
소속 기관	꿈드림	(68)	24.2	7.3	18.5	19.4	13.7	8.1	7.3	1.6
	청소년 쉼터	(36)	28.6	2.4	47.6	2.4	9.5	0.0	7.1	2.4
	$\chi^2=32.553$									
학업 중단 후 경과 기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9)	15.8	10.5	15.8	26.3	5.3	10.5	10.5	5.3
	6개월 이상~1년 미만	(36)	19.4	0.0	19.4	27.8	16.7	11.1	5.6	0.0
	1년 이상~2년 미만	(51)	45.1	2.0	13.7	7.8	11.8	5.9	9.8	3.9
	2년 이상~3년 미만	(42)	9.5	11.9	52.4	7.1	11.9	0.0	7.1	0.0
	3년 이상	(21)	28.6	14.3	23.8	14.3	14.3	4.8	0.0	0.0
	$\chi^2=64.839^{**}$									

- 건강·상담 등 복지지원의 경우 건강검진지원이 28.8%로 가장 높은 비율로 건강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남.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25.578$, $p<.05$)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급식지원 및 건강검진(21.0%), 쉼터 소속 청소년은 건강검진(52.4%)을 원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신체 건강과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그에 따른 공공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즉, 기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시사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인 학교 보건체계 밖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 건강관리 및 예방 차원의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반증함
 - 이러한 건강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상 건강검진 패키지’ 제도화 및 주기적 실시, 지역보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모바일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정신건강·영양·시력·치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 종합형 건강검진 항목 구성 필요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급식지원과 건강검진(각 21.0%)에 고른 수요를 보였고, 쉼터 소속 청소년은 건강검진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52.4%)에 따라, 기관별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일상 지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볼 때, 쉼터 청소년은 가정·학교로부터 단절된 환경 속에서 기초적인 건강관리조차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의료 접근성의 사각지대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형 건강검

진 서비스 및 건강상담 프로그램 우선 제공, 꿈드림 청소년의 경우, 급식지원과 같은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대 병행 필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지원 패키지 모델 개발 및 적용 등의 구체적 방안이 실현되어야 함

- 즉,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 수요 중 건강지원과 급식지원이 가장 높은 것은, 기초 생활권·건강권이 국가의 공공체계 내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에 따라,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공공의 제도적 책임 아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 영양, 심리, 생활 등 복지 수요를 일괄 진단·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고, 기초지자체 단위로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안전망 TF팀' 구성 및 서비스 접근성 확대,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한 방문형 복지지원 시범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요약 표 3-9]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건강상담 등 복지지원)

단위: (명), %

건강상담 등 복지지원		(명)	급식지원	건강검진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치과, 예방접종, 정신과 상담 등)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자산관리 (용돈이나 생활비, 알바비 등) 방법에 관련한 정보 제공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가족 상담/부모 상담 지원
전 체		(170)	19.4	28.8	16.5	17.1	15.3	2.9
성별	남성	(91)	22.0	34.1	11.0	16.5	12.1	4.4
	여성	(79)	16.5	22.8	22.8	17.7	19.0	1.3
	$\chi^2=8.867$							
연령	18세 이하	(11)	27.3	0.0	45.5	18.2	9.1	0.0
	19세 이상	(159)	18.9	30.8	14.5	17.0	15.7	3.1
	$\chi^2=10.413$							
지역	시	(119)	14.3	31.1	17.6	16.8	16.0	4.2
	군	(51)	31.4	23.5	13.7	17.6	13.7	0.0
	$\chi^2=8.686$							
소속기관	꿈드림	(68)	21.0	21.0	16.9	19.4	18.5	3.2
	청소년 센터	(36)	16.7	52.4	16.7	9.5	2.4	2.4
	$\chi^2=25.578^*$							
학업중단 후 경과 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26.3	21.1	15.8	21.1	15.8	0.0
	6개월 이상~ 1년 미만	(36)	16.7	16.7	25.0	19.4	22.2	0.0
	1년 이상~ 2년 미만	(51)	25.5	21.6	15.7	15.7	11.8	9.8
	2년 이상~ 3년 미만	(42)	9.5	50.0	7.1	16.7	16.7	0.0
	3년 이상	(21)	19.0	33.3	23.8	14.3	9.5	0.0
	$\chi^2=36.370$							

-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용돈지원(24.1%)’이며,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지원(18.2%)’, ‘교육(활동, 직업 훈련) 참여 수당(16.5%)’이 높게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19.811$, $p<.05$) 시 지역 청소년들이 ‘보건의료비 지원(21.8%)’이 높게 나타나고 군 지역 청소년은 그에 비해 ‘기초생활비(41.2%)’ 지원 요구정도가 시 지역 청소년 대비 높게 나타남.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63.561$, $p<.001$) 쉼터 소속 청소년은 ‘보건의료비 지원(40.5%)’로 높게 나타나고,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기초생활비(22.6%)’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71.353$, $p<.01$) 그만둔 지 2년 이상~3년 미만(42.9%)과 3년 이상(28.6%)은 ‘보건의료비지원’, 1년 이상~2년 미만(41.2%) 청소년들은 ‘기초생활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높고, 1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용돈지원(26.3%)’,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교육(활동, 직업 훈련) 참여 수당(22.2%)’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경제적 지원은 ‘용돈지원’이었으며, 이는 기초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의 금전적 지원이 심리적 안정과 자율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교육 참여 수당’에 대한 수요 역시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활동이나 훈련에 대한 보상적 접근을 희망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단기적 용돈형 지원과 활동 참여 수당(인센티브형 지원)을 병행하는 이중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의 활동 참여 유도 및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해 직업훈련·학습참여에 대한 실비성 수당제 확대, 비현금성 복지 바우처와 연계한 지원 다각화 (예: 식품, 교통, 문화, 의료비 포인트 등) 등의 정책 방안이 필요함
 - 한편, 시 지역 청소년은 ‘보건의료비 지원(21.8%)’ 요구가 높고, 군 지역 청소년은 ‘기초생활비 지원(41.2%)’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이는 군 지역의 인프라 부족, 취업 기회 제한, 복지 접근성 저하 등과 연결된 생계불안 문제를 반영함. 반면 도시에서는 의료기관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군 지역 청소년을 위한 최소 생계보장 성격의 현금성 지원 확대 필요, 시 지역은 건강권 중심의 보건의료비 지원 체계 강화, 지역특성 반영한 경제지원 유형 표준모델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 쉼터 소속 청소년은 ‘보건의료비 지원(40.5%)’ 수요가 압도적이며,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기초생활비(22.6%)’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볼 때, 쉼터 청소년은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많고, 꿈드림 청소년은 비교적 자립 준비 중이나 여전히 생계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보험료·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건강경제 복지체계 우선 도입, 꿈드림 청소년 대상 월 단위 생계보조 또는 자립준비금 제도 도입 검토, 기관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관-기능 연계형 경제지원 체계’ 설계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경제적 지원의 경우, 심리정서 안정과 생활자립,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건강한 사회진출까지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정책지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예컨대, 단계별 경제 지원방법으로 초기 청소년

의 경우, 심리안정과 학습 동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후 생계 기반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까지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단계적 지원방식을 통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필요

[요약 표 3-10] 학교 중단 시기별 경제적 지원 방향

학교 중단 시기	경제적 지원 수요	정책 방향
1개월~6개월 미만	생활 바우처 형태 지원	초기 혼란기: 심리 정서적 안정과 자율성 자립 확보를 위한 생활 바우처 소액을 지원
6개월~1년 미만	교육 참여 수당	동기 회복기: 활동 참여 유도 위한 훈련 수당제 도입
1년~2년 미만	기초생활비	생계 취약기: 현금성 생계지원 필요
2~3년 이상	보건의료비	장기 이탈자: 건강관리 사각지대 보건안전망 구축 필요

[요약 표 3-11]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경제적 지원)

단위: (명), %

경제적 지원		(명)	기초 생활비	용돈 지원	보건 의료비 지원	검정 고시 학원비	교육 (활동, 직업 훈련) 참여 수당	주거 지원 (주거비, 공유 주택 등)	재난 지원비	교통비 지원	취업/ 자격증 준비 학원비 지원	예체능 (음악/ 미술/ 운동) 강습비 지원
전 체		(170)	24.1	14.7	18.2	5.9	16.5	1.8	3.5	2.9	7.6	4.7
성별	남성	(91)	25.3	11.0	23.1	4.4	14.3	3.3	3.3	2.2	8.8	4.4
	여성	(79)	22.8	19.0	12.7	7.6	19.0	0.0	3.8	3.8	6.3	5.1
$\chi^2=9.147$												
연령	18세 이하	(11)	45.5	18.2	0.0	0.0	27.3	0.0	9.1	0.0	0.0	0.0
	19세 이상	(159)	22.6	14.5	19.5	6.3	15.7	1.9	3.1	3.1	8.2	5.0
$\chi^2=9.023$												
지역	시	(119)	16.8	13.4	21.8	6.7	17.6	2.5	5.0	3.4	9.2	3.4
	군	(51)	41.2	17.6	9.8	3.9	13.7	0.0	0.0	2.0	3.9	7.8
$\chi^2=19.811^*$												
소속기관	꿈드림	(68)	22.6	19.4	11.3	6.5	16.9	0.8	4.0	4.0	8.1	6.5
	청소년 쉼터	(36)	28.6	2.4	40.5	4.8	14.3	2.4	2.4	0.0	4.8	0.0
$\chi^2=63.561^{***}$												
학업중단 후 경과 기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9)	21.1	26.3	5.3	5.3	21.1	0.0	5.3	5.3	10.5	0.0
	6개월 이상~1년 미만	(36)	13.9	19.4	8.3	8.3	22.2	2.8	5.6	2.8	5.6	11.1
	1년 이상~2년 미만	(51)	41.2	9.8	5.9	9.8	13.7	2.0	2.0	0.0	9.8	5.9
	2년 이상~3년 미만	(42)	14.3	9.5	42.9	2.4	19.0	2.4	4.8	0.0	2.4	2.4
	3년 이상	(21)	19.0	19.0	28.6	0.0	4.8	0.0	0.0	14.3	14.3	0.0
$\chi^2=71.353^{**}$												

- 예체능·활동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문화예술 악기, 그림, 사진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27.6%)”이며, 그 다음으로 ‘체육 활동 지원(27.1%)’,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2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8.393$, $p<.05$) 남성 청소년은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31.9%)’을 여성 청소년은 ‘문화예술 악기, 그림, 사진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36.7%)’을 가장 많이 응답함.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12.272$, $p<.001$) 시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31.1%)’이 높게 나타나고 군 지역 청소년은 ‘체육 활동 지원(37.3%)’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18.981$, $p<.05$)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28.2%)’, 쉼터 소속 청소년은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45.2%)’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학업중단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44.225$, $p<.001$) 학업 중단 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청소년은 ‘체육활동 및 청소년활동 바우처 제공(36.8%)’요구가 높고, 6개월 이상~2년 미만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36.1%, 33.3%)’, 2년 이상~3년 미만 청소년들은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54.8%)’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청소년들은 ‘체육활동 지원(47.6%)’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 표현의 기회, 신체적 활력 회복이 중요한 복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냄.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보급 필요하며, 예컨대 음악치유, 사진·영상 워크숍, 지역 체육관 연계 운동 프로그램 등 활동 참여 기회 자체가 적은 이들에게 참여비 지원 또는 활동 바우처 제공을 통해 실질적 접근성 확보하고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 여가를 넘어서 심리 안정 및 자기표현 역량 강화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한편, 남성 청소년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31.9%)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여성 청소년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36.7%) 수요가 가장 높았음. 시 지역 청소년은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31.1%) 요구가 크고, 군 지역 청소년은 ‘체육 활동 지원’(37.3%)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성별 및 지역별로 일상 공간과 활동 기회에 대한 경험이 다르며, 필요로 하는 활동 지원 형태도 다르다는 점을 보여줌. 여성 청소년 중심 문화예술 치유허동 프로그램 확대, 남성 청소년 중심 자유공간(예: 창작공간, 소모임실, 자유 토론공간 등) 확보 지원, 군 지역 청소년 대상 이동형 체육 프로그램, 농산촌 지역 체육시설 연계 사업 추진 필요함. 꿈드림 소속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28.2%) 수요 높음
 - 기관별로 살펴보면, 쉼터 소속 청소년은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45.2%) 수요가 높아 쉼터 청소년은 공간의 제약과 사생활 부족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여가공간이나 창작공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며,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가 많아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확장 요구가 나타남. 이를 반영하여, 쉼터 청소년 대상 ‘자율활동 기반 공간 지원 시범사업’ 도입, 꿈드림 소속 청소년에는 전문 예술 강사와 연계된 창의 프로그램 지원 강화가 필요함

[요약 표 3-12]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예체능·활동 등 지원)

단위: (명), %

예체능·활동 등 지원		(명)	체육 활동 지원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	청소년활동 바우처 제공
전 체		(119)	27.1	27.6	25.3	20.0
성별	남성	(51)	29.7	19.8	31.9	18.7
	여성	(158)	24.1	36.7	17.7	21.5
	$\chi^2=8.393^*$					
연령	18세 이하	(11)	18.2	45.5	27.3	9.1
	19세 이상	(159)	27.7	26.4	25.2	20.8
	$\chi^2=2.410$					
지역	시	(119)	22.7	30.3	31.1	16.0
	군	(51)	37.3	21.6	11.8	29.4
	$\chi^2=12.272^{**}$					
소속기관	꿈드림	(68)	27.4	28.2	19.4	25.0
	청소년 쉼터	(36)	26.2	23.8	45.2	4.8
	$\chi^2=18.981^*$					
학업중단 후 경과 기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9)	36.8	5.3	21.1	36.8
	6개월 이상~1년 미만	(36)	19.4	36.1	22.2	22.2
	1년 이상~2년 미만	(51)	31.4	33.3	11.8	23.5
	2년 이상~3년 미만	(42)	14.3	23.8	54.8	7.1
	3년 이상	(21)	47.6	28.6	4.8	19.0
	$\chi^2=44.225^{***}$					

○ 기타 영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이 79.4%,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지원'이 19.4%로 나타남.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7.005$, $p<.05$) 18세 이하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에 63.6%로 19세 이상이 80.5%인데 비해 다소 낮고 권리 침해 사례 지원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79.4%가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사회안에서 단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아닌 능동적인 진로 탐색자, 혹은 다양한 삶의 경로를 택한 청소년으로 받아 들여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됨.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환 캠페인 전개, 공공기관, 학교, 기업,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한 편견 해소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스토리텔링형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후기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낙인을 더 자각하고 있으며, 전기 청소년은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차별적 경험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전기 청소년에게는 현장 중심의 권리

보호 체계 우선 지원으로 상담 접근성, 긴급 대응 매뉴얼 제공 등을 강화하고, 후기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편견 해소와 제도 개선 중심의 참여형 정책 확대 차원에서 청년 서포터즈, 정책제안단 참여 활성화 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18세 이하 전기 청소년의 경우 인식 개선보다 권리침해 지원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현장에서의 차별·폭력·배제 경험이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대응 전담 기구 설치 또는 기존 청소년인권센터와의 연계 강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및 법률·심리·의료 연계 지원 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명시한 '청소년 권리보장 조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다각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

4. 정책적 시사점

1) 현장기관 정책수요

- 현장기관의 운영 전반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재정적 제약이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라 예산은 일부 증가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센터 대부분이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사이동이나 휴직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공백이 발생해 업무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 추진되며 행정적 업무 분산으로 사례관리 청소년 수에 비해 종사자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이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확인됨. 예산 삭감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이 지연되고 운영의 안정성 확보도 어려운 구조적인 제약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지원이 어려움
- 센터 위상과 기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며 대다수 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의사결정 권한 부재로 인한 운영 전반에 제약이 나타남. 또한 지역 내 학령 인구 감소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수 감소로 지원 정책의 확실성에서 벗어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처럼 접근성의 제한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찾아가는 진로 상담 및 정서상담 서비스 등이 필요함
- 한편, 청소년 전용공간 부족,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공백이 지적되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대상별 체계적 통합 지원이 중대한 과제로 확

인되었음. 각 센터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진로 탐색이나 자립 역량 강화, 정서적 안정 등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자 인력 충원 등 인적자원의 재정비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수
- 둘째, 센터의 위상 강화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센터가 지역 청소년 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 운영 과정에서 자율성과 의사결정 보장도 필요
- 셋째, 지역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 읍면단위 문화나 여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됨. 정책 대상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라도 소수 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지속적 지원이 담보 될 수 있어야 함
- 넷째,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 지역사회 적응, 문화·정서·진로 측면을 우선적으로 아우르는 종합적 통합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 효과성이 나타나는 프로그램들을 확대 적용하거나 타 지역에 공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자격증 취득 과정, 멘토링, 자립수당, 자기계발 동아리 등은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립 의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정리하여 표준모델화 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무엇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 이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그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2) 2025년도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먼저, 학업 중단 사유에 따른 관련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화, 진로 설계 연계 및 접근성 확대, 지원제도 연계 강화, 정서적 지원 체계 및 후속관리 체계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실태조사 주요한 결과로 첫째, 학업 중단 사유의 다양성과 중단 시기의 집중으로, 충남 지역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학업 중단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에 집중되는 경향(65.3%)을 보였으며, 중학교 졸업 이후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24.7%에 달했음. 이는 학업에 대한 명확한 동기 부족, 교육 시스템과의 부적응, 혹은 다른 진로 선택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학업 중단 사유로는 검정고시 준비(13.3%), 심리적 문제(9.6%), 자신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9.6%)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고, 기타 항목에서는 ‘공부에 흥미가 없음’, ‘학교 분위기와 맞지 않음’, ‘취업 및 소득 추구’ 등 다양한 개인적 이유가 확인되었음. 이는 획일적인 교육 제도와 진로

탐색 기회의 부족이 학생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냄

- 둘째, 제도 및 지원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예: 꿈 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비교적 높은 인지율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은 인지율과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음.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율도 20%에 불과하여 조기 개입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정보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과 접근성 문제로 이어지며, 정보격차로 인한 제도 활용의 편차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 대부분이 오프라인 권유를 통해 기관에 접근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정보 습득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 진로 탐색에 대한 높은 관심과 낮은 실천력으로 조사 대상 청소년 중 58.2%는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미래 직업 변화 예측의 어려움(25.3%), 직업 종류에 대한 정보 부족(22.2%), 자기 강점 파악의 미비(21.2%)가 주요하게 나타났음. 이는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과 자기이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진로 결정 방식 중 ‘혼자 결정’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경우(31.0%)가 뒤를 이었음. 이는 청소년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 지원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개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 넷째, 심리정서적 지지의 부족과 사회적 낙인 경험으로, 청소년 중 12.9%만이 최근 1년 내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5.9%에 달했음. 또한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는 항목에 공감한 청소년이 43.5%로, 사회적 낙인에 대한 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도 많았으나(68.8%),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다르게 취급받는다’는 인식도 절반 가까이 나타나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포용성 제고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먼저,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관련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화, 진로 설계 연계 및 접근성 확대, 지원제도 연계 강화, 정서적 지원 체계 및 후속관리 체계 마련 등으로 첫째, 학업 중단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강화로 학업중단숙려제 실효성 제고를 통하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다양화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또한 학교 내 통합 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조기 위기 징후를 포착하여 진로·심리·생활 전반에 대한 통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그리고 진로 대안 교육과정 등의 정보 접근성을 활성화하여 학업 중단 이전 단계부터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로 및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청소년 지원제도 연계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종합정보 포털 구축함으로써, 꿈드

림, 위기청소년지원, 내일배움카드 등 각종 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통합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함. 찾아가는 연계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방문 상담 및 지속적 관계 형성을 통해 제도 연계를 활성화하여야 함

- 셋째, 진로설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진로 탐색, 진로 설계,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함. 또한 직업 체험·멘토링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 종사자들과의 만남, 직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실감 있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함. 그리고 창업·직업 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67.6%)을 반영하여, 창업 기초 교육, 실습,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정서적 지지체계 및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상담사 및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를 늘리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확보해야 함. 또한, 자존감 회복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소그룹 대화, 예술치유, 관계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그리고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과 성공 사례 홍보를 통해 포용적 문화 형성을 유도하여야 함
- 다섯째, 제도 연계 후속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 후속지원 전담제를 도입하여 제도 이용 이후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소년에 대한 전담 상담 체계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동행과 지원을 보장해야 함. 또한 청소년 의견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고, 청소년 정책 자문단 및 온라인 제안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 궁극적으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단순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와 욕구를 지닌 독립적 주체임을 보여줌. 이에 따라 관련 지원 정책은 '보호' 중심에서 '역량 강화'와 '사회적 포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제도 간 연계성, 실효성, 접근성을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됨. 이를 토대로 청소년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업중단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에서의 교육청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특히, 학업중단 시기 집중시기로 고1에 집중(65.3%)된 학업중단을 고려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현장의 학업중단위기 조기 감지 및 숙려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
- 구체적인 교육청 연계 방안으로는 첫째, 학업중단숙려제에 다양한 콘텐츠와 개별 맞춤형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청이 주도해 도입, 학교 내 통합상담 시스템 구축(진로·심리·생활 통합) → 교육청 소속 전문인력 및 컨설팅 체계와 협업, 검정고시, 대안교육, 직업교육 등 진로 대안 교육경로 정보를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교육청-센터 공동 운영이 필요함. 진로설계 정보 접근성 수요(진학·입시 정보, 진로체험, 진로설계 등)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고, 꿈드림센터 및 지역 교육지원청 진로부서 공동 프로그램 운영(진로박람회, 멘토링, 직업 체험 등),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단계별 모듈화로 교육청 주도 커리큘럼과 센터의 실행 역량 연계하여 진로진학 컨설턴트(교육청 인력)와의 협업 멘토링 체계 구축하도록 함
- 셋째,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 연계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핵심 학습지원은 '멘토링 기반 관계형 학습지원'의 일환으로 교육청이 보유한 지역 인적자원(교사, 퇴직교사, 진로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단 구성, 지역 교육기관(평생학습관, 위(Wee)센터 등)과 연계한 비형식 학습과정 지원, 교육청-센터 간 학습지원 매뉴얼 공동 개발 및 멘토-멘티 매칭 시스템 구축을 설계할 수 있음
- 넷째, 정서·심리 지원 교육청 연계 방안으로 Wee센터, 교육청 소속 전문상담교사, 학업중단속려지원팀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정기적 연계 회의 운영 및 고위기 청소년 정보 공유 프로토콜 마련, 교육청 차원에서 심리 정서 프로그램(예술치유, 마음건강 캠프 등) 공동 운영 등을 실행할 수 있음
- 다섯째, 청소년은 정보 접근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인지 편차도 큼에 따라, 정보 전달 및 홍보 연계의 일환으로 교육청 주관 진로·진학 정보 포털 또는 앱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 섹션 신설, 학교에서 중단 직전 청소년 대상 센터 연계 정보 사전 제공 체계 구축, 교육청 홈페이지, 각급 학교 등을 통한 홍보자료 배포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여섯째,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피드백 선순환을 위해 공동 평가 및 정책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충남도교육청-충남도청-센터 간 정기 정책협의회 운영, 공동 실태조사 및 성과 공유회 개최, 교육청이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 구성 등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요약 표 3-13] 교육청과의 연계 방안

영역별	교육청 연계 방안
학업중단 예방	숙려제 개선, 통합상담 체계 구축, 대안교육 정보 제공
진로설계	단계별 진로 프로그램 공동 운영, 진로 박람회 협력
학습지원	퇴직 교사 멘토단, 비형식 학습과정 운영 협력
정서심리	Wee센터, 상담교사 연계 및 위기청소년 공동 지원
정보접근	진로 포털 내 전용 정보 제공, 사전 연계 체계 구축
정책협력	정기 협의체, 실태조사 공동 수행 및 성과 공유

3) 시계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비교분석

-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2023년 및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연도별 주요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항목별 분석결과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음
- 2023년 조사의 경우 주로 정책 수요 파악에 중점을 둔 반면, 2025년은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구조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 실시됨. 각 영역별 실행 기반 시스템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청소년 지원 정책 성숙도 제고 방안 모색 등의 변화가 확인됨

(1) 항목별 분석결과

(가) 학업중단 사유와 진로발달

- 2023년 조사는 유형별 학업을 중단한 사유와 상태 진단에 초점을 두었고, 2025년 조사의 경우 구조적 문제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구체화에 중점을 두었음
- 2023년 조사결과 학업을 중단한 주요한 사유를 소속기관별로 파악하였고, 꿈드림센터 소속 청소년은 ‘학교에 의미를 느끼지 못함’이나 ‘심리적 문제’를, 대안학교 소속 청소년은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를, 쉼터 소속 청소년은 다시 ‘학교에 의미 없음’을 주요 학업중단 사유로 확인하고 있음. 청소년 개별의 주관적인 동기와 정서적인 요인이 학업중단의 주요한 원인으로 확인하고 있음. 진로 분석 결과에서는 학업형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진로 정보의 부족, 자부심의 저하, 진로 장벽의 상승 등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확인함
- 반면, 2025년 조사결과, 학업중단 이후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많았으며, 숙려제 참여율도 2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특히 자기이해 부족과 진로 실행 역량 미흡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로 4단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전반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행 중심의 진로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요약 표 3-14] 학업중단 사유 및 진로발달 시계열 분석 결과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학업 중단 사유	소속 유형별 상이. 꿈드림: ‘학교에 의미 없음’, ‘심리적 문제’ / 대안학교: ‘원하는 것 배우고자’ / 쉼터: ‘학교 의미 없음’	학업중단 이후 진로 미설정, 숙려제 참여율 20%에 불과
진로 발달	학업형(42.67%) > 무업형(18.00%) > 병행형(13.67%) 순. 진로에 대한 정보 필요성과 자부심 저하, 진로장벽 상승	자기이해와 진로 실행 역량 부족, ‘진로 4단계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강조

(나) 심리·정서 상태 및 사회적 인식

- 2023년 조사결과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고, 2025년은 심리적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23년 결과,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은 낮게 나타나며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함. 청소년의 67.32%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위축된 경험이 나타나 사회적인 낙인 문제를 확인함
 - 2025년 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예술치유, 반려동물치유 등 다양한 정서적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시함.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는 플랫폼 강화가 강조됨

[요약 표 3-15] 심리정서 상태 및 사회적 인식 시계열 분석 결과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자아존중감 및 심리상태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 낮음. 심리상담 필요성 제기	심리상담 이용률 낮고 낙인감 높음. 예술치유, 반려동물치유 등 정서회복 프로그램 강화 필요
사회 인식	청소년 67.3% 인식 개선 요구함	사회 인식 개선 및 참여 플랫폼 강화

(다) 지원제도 접근성 및 만족도

- 2025년 조사결과 통합적인 지원제도 체계 구축과 지속적 사후관리 방안으로 참여형 원스톱 플랫폼 체계를 제안함
- 2023년 조사는 정책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에 있어서 격차가 나타나는 한편, 경제적 직접지원인 장학금이나 청소년카드 등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2025년 조사는 정보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으로 '원스톱 포털 플랫폼' 등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전담관리제' 도입과 참여형 플랫폼 강화를 강조함

[요약 표 3-16] 지원제도 접근성과 만족도 시계열 분석 결과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정책 인지 및 이용	인지도 19.3379.33%, 이용률 17.3378.20%로 격차 있음	정보 접근성과 연계 부족 → '원스톱 포털 플랫폼', 키오스크 설치 등 접근성 확대 강조
정책 만족도	경제적 직접지원(장학금, 카드 등) 만족도 높음	후속 관리 미흡 지적 → '청소년 전담관리제' 도입, 참여형 플랫폼 구축 제안

(라) 급식, 건강, 기본 생활 지원

- 기본 생활지원 측면에서 2023년은 필요 중심 수요 조사, 2025년은 통합적 서비스 설계와 자립지원 강화에 방점을 둘 수 있음
 - 2023년 조사 결과 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불규칙한 식습관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급식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건강 및 복지 영역에서는 용돈 지원, 청소년 공간 제공 등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으나, 서비스 항목이 구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의 세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반면, 2025년 조사에서는 개별 서비스 제공보다는 정서적 지원, 자립 지원, 사회통합을 포괄하는 통합형의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식이 확인되었음. 복지 기반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이 강조되면서, 기존 단편적 수요 조사에서 벗어나 청소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설계 및 전달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음

[요약 표 3-17] 기본 생활 지원 시계열 분석 결과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급식 지원	불규칙 식습관, 급식지원 확대 요구	급식지원에 대한 측면보다는 복지 기반 지원 확대 포함
건강·복지 지원 수요	급식지원(32.33%), 용돈지원(40.33%), 청소년공간 요구	구체적으로 분리 제시되진 않으나, 정서·자립·사회 통합 중심 서비스 확대 강조

(2) 주요 비교 항목별 분석결과 시사점

(가) 학업중단 사유 및 진로발달 상태

-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소속에 따라 학업중단 사유가 상이하게 나타났음.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및 ‘심리·정신적 문제’가 주된 이유였으며, 대안학교 소속 청소년은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라는 비교적 능동적인 이유를 들었음. 반면, 쉼터 청소년의 경우는 보호자와의 사전 논의 부족과 낮은 진로발달 수준이 확인되었음
- 2025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학업중단 이후의 상태에 더 주목하며,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많고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많으나 자기이해와 실행 능력은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진로 설계부터 실행까지를 포함한 단계별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나) 심리·정서 상태 및 사회적 인식

- 2023년 조사에서는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정서적 안녕감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특히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담이 청소년들의 위축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 2025년 조사결과 사회적 낙인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심리상담 이용률은 낮은 반면 사회적 고립감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예술치유, 반려동물 매개치료, 애니어그램 등 다양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의 활성화 필요성이 높고, 또래 커뮤니티 및 자치모임 등의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다) 정책 인지도 및 이용 실태

- 2023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인지 수준은 정책별로 19.33%~79.33%로 다양했으며, 실제 이용률은 이보다 낮은 17.33%~78.20%로 나타나 인지와 이용 간 간극이 존재하였음. 특히 경제적 직접지원(장학금, 청소년카드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정보 접근성이 낮고 연계체계가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2025년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책인지도 제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원스톱 포털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됨.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추천 시스템이나 키오스크 설치,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가 전제되어야 함

(라) 건강·복지 및 기본 생활 지원

- 2023년 조사결과에서는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의 식습관이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나, 점심과 저녁의 섭취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건강·복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요는 급식지원과 용돈지원이었음
- 2025년도 조사 결과, 이러한 기본적 생활 안정 지원, 자립과 역량 강화 서비스로 확장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직업체험, 창업교육 등 직무실습 기회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심리정서적 회복지원사업 확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

(3) 소결

- 2023년 실태조사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25년 실태조사는 파악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특히 2025년 조사에서는 학업 중단 예방에서부터 자립과 사회통합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제시된 측면에서 기존 조사에서 한단계 정책적 진일보가 있었음

[요약 표 3-18] 시계열 분석 결과 및 주요 시사점1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유형별 특성을 진단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정책지원의 방향성	지원 필요한 영역 중심으로 제언	학업, 진로, 심리, 자립, 인식개선로의 통합적인 정책 지원 체계 강화
주요 결과	학업 중단 사유, 진로 특성, 서비스 수요 확인	정책 플랫폼, 통합적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체계 등 전략 구체화

- 기존 2023년 조사가 주로 조사 결과와 문제 진단에 초점을 맞췄다면, 2025년 조사는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 설계와 실행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어 구체화 함

[요약 표 3-19] 시계열 분석 결과 및 주요 시사점2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정책방향	유형별 특성에 기반한 개별적 정책 개선 필요성 제기	학업중단 예방 → 진로설계 → 심리회복 → 사회통합의 단계별 통합정책 제시
특화대상 지원	쉼터 청소년은 진로발달 수준 낮고 가정 논의 부족	쉼터 포함, 전체 청소년 대상 구조적 시스템 강조 및 후속조치 체계화

- 학교 밖 청소년은 단순한 학업 중단 상태만을 가진 정책대상이 아닌, 진로, 심리, 사회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위기로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복합적 대상임에 따라, 충청남도는 2025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방-지원-회복-통합의 전 주기 정책체계를 보다 정교화해야 할 것임

[요약 표 3-20] 시계열 분석 결과 및 주요 시사점3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초점	문제 현황 진단 및 유형별 특성 파악	구조적 대응책 중심 정책화, 실행전략 제언
성과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적 문제 확인	서비스 통합, 디지털 접근성 확대, 정책 사후관리 강화 등 실질적 해결책 제언

-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단절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인프라 조성이 요구됨

1. 학업중단속려제 내실화 및 조기위기 감지 시스템 강화
2. 디지털 기반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연계
3. 진로 설계 및 직무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자립 역량 강화
4. 정서 회복 및 관계성 회복 프로그램의 일상적 지원화
5.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캠페인과 청소년 참여 제도화

IV.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1. 분석틀

○ 본 장에서는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지원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2024년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결과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황 분석틀로는 CIPP성과분석 모형에 활용하고자 함. 이 분석틀은 전반적인 조직 및 사업의 상황, 투입, 과정, 산출 각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의사결정자의 주요 관심, 정보 요구, 프로그램 효과성의 판단 준거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보는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음

-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성과분석 모형은 의사결정 중심의 평가 접근법으로 의사 결정을 위한 대안들을 판단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기술하고, 획득하고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즉, CIPP모형은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분석 틀로 설명할 수 있음([표 4-1] CIPP 모형의 평가내용과 평가질문 예시 및 평가방법 참조)
- 이러한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성과평가모델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평가를 실시, 정책개선 과제 도출, 사업 지침 개선 방안 제시하고자 하며, 먼저 본연구의 분석 대상은 도내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건가 및 다가센터 총 17개 가족관련 센터 조직의 성과분석으로 사업별, 추진내용, 참여 인원, 사업효과 등을 살펴보고 검토함

2. CIPP 분석

1) 상황평가(Context)

- 본 절에서는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둘러싼 상황(context)을 분석함. 도내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개요와 변천과정, 충남 도내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센터사업의 기능과 주요 사업 등을 살펴봄
 - 구체적으로,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들의 추진근거 및 체계, 관련 조례 및 추진 지침 등 계획 준비 및 방향 설정 등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음
- 충남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황평가를 위하여 추진대상, 추진근거, 추진지침 및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지침,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현황 등을 살펴보면, 우선 관련 법률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음. 한편, 제12조의2 지원센터의 평가에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로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 투입평가(Input)

- 2024년 충남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센터 세입 총액은 약 40.8억 원으로 국비(37.5%), 도비(30.1%), 시·군비(19.0%), 후원금 및 기타(13.3%) 구성되어 있음. 지출도 동일한 수준(40.5억 원)으로 인건비(45.7%)와 사업비(48.0%)가 대부분을 차지함. 거점센터는 전체 예산의 약 42%를 차지하며, 사업비 비중이 크고 운영의 중심적 역할 수행하고 있음
 - 전체 예산에서 국비·도비 비중은 67.6% 수준으로 비교적 높으나, 일부 지자체 자부담 편차 존재하며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 차원의 장기적 재정지원 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조사를 결과로 주요 현황조사 내용은 조직구성 체계, 학교 밖 청소년 이용 현황(전체 이용 학교 밖 청소년 수) 및 학업중단 사유, 해당 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

로 현황을 살펴봄

- 상근 직원 총 53명, 여성 비율이 92.5%로 매우 높으며 연령대는 30대(35.8%)와 50대 이상(26.4%)이 많음. 채용형태는 정규직(49.1%), 무기계약직(24.5%), 계약직(26.4%)으로 확인되며, 학력은 대졸(47.2%), 석사(43.4%), 박사(9.4%)로 나타나며, 자격증은 청소년지도사(52.8%), 청소년상담사(47.2%), 사회복지사(49.1%)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정규직 비율은 절반 수준, 여전히 계약직 의존도가 높으며,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와 전문성 개발(자격증, 연수, 슈퍼비전 체계)이 필요함

3) 과정평가(Process)

- 본 절에서는 과정평가(Process)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충남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별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측면을 살펴봄, 예컨대,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우수 사례에 대한 평가 등으로 우수사례 개발 추진 과정, 활용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등의 평가 기준을 과정평가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충남도는 전년도 사업평가 및 환류 체계를 통해서, 15개 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사업의 운영 점검체계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15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컨설팅 및 현장점검,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의,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다양한 정책사업 및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사회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민간자원, 그리고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를 확장하고 있음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업지원, 생활지원, 장학금 등 상시적으로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자원연계 및 신규 연계자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조손가정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 구체적인 지원 실적으로는 서비스 지원 실인원 2,578명, 성과인원은 총 1,698명으로 확인되며 이 가운데 학업복귀인원은 1,021명, 사회진입 326명, 자립역량강화 351명으로 나타남
 - 즉, 지원 체계가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성과 인원 중 60% 이상(1,021명)이 학업으로 복귀하여, 학업 복귀 지원(검정고시, 대안교육 연계,

학업중단숙려제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함. 재학 체계로의 복귀 경로가 강력한 지원 효과임을 보여줌. 둘째, 다양한 경로 성과 분화하여, 사회진입(326명, 취업·훈련 등)과 자립역량 강화(351명, 상담·멘토링·기술 습득 등)도 각각 20% 내외를 차지함. 이는 학업 복귀 외에도 진로·자립·취업 경로 지원의 실효성을 보여줌

4) 산출평가(Product)

- 2024년 기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의 경우¹⁾ 총 2,079명으로 아산시 327명, 금산군 316명, 서산시 282명 등 학교밖청소년이 기관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성취도를 살펴보면, 62.25% 목표대비 65.87%를 달성함. 이는 목표치 62.25%를 상회하여 65.87%의 계획한 성과보다 +3.62%p 초과 달성한 것으로 단순 참여율이 아니라, 진로·학업·취업·심리 등 자립역량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이므로 실질적 성취를 보여줌
 -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인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한 사업(진로탐색, 직업훈련, 멘토링 등)이 실제로 자립 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함. 또한 참여를 통한 성과 연결 구조 작동측면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역량 습득·목표 달성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었음을 시사함. 정책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 목표 대비 성과가 초과 달성되었다는 점은 향후 사업 예산 확대·지속 추진에 있어 근거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3. 소결

- 충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context)을 분석 결과, 법·조례 근거 기반의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큼에 따라 표준화된 운영·성과관리 지표 필요하며, 정기평가(여가부 주관)와 연계한 환류체계 강화가 필요함. 한편 조례를 통한 지원 범위가 넓어, 실제 사업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투입평가(Input) 결과, 2024년 총 세입 약 40.8억 원(국비 37.5%, 도비 30.1%, 시군비 19.0%, 기타 13.3%). 지출은 인건비(45.7%), 사업비(48.0%) 중심. 거점센터가 42% 차지

1) 기관별 취합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내용임

하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근 인력 53명(여성 92.5%, 정규직 49.1%, 계약직 26.4%). 자격증 보유율 높음(청소년지도사 52.8%, 사회복지사 49.1%). 기관 공간은 임대 8개소, 자가 7개소로 안정성이 부족한 편으로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는 2개소로 확인되며 운영형태는 직영·민간위탁 혼재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도비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재정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인력 안정성 부족(계약직 비중 높음)에 따라 정규직 확대 및 전문성 개발 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간 안정성이 취약(임대·공유 비율 높음)함에 따라 장기적 독립공간 확보 방안 마련 필요하며 운영형태 다양성에 따른 표준화된 경영·평가체계 구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과정평가(Process) 결과, 전년도 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운영(컨설팅·현장점검, 우수사례 공모전 등), 전문지도자 교육과정 운영(4종 꿈드림 전문교육, 온라인 맞춤형 교육)하고, 지역 자원 연계(학업·생활·장학금·외부활동 등)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 활성화사업을 위해 검정고시 교재·응시 지원, 대학 체험,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또한 진학지원을 위하여 입시전담인력 배치, 1:1 컨설팅, 수능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업체험, 성장공유회, 취업연계 등을 추진함

- 우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경우 상담·학업 및 직무 다양화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환류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연계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진학 중심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한편, 직업·자립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향후 진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함. 또한 자원연계의 범위를 보다 확대(복지·보건·고용부 등 타 부처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출평가(Product) 결과, 2024년 이용 청소년 2,079명으로 학업중단의 주요한 사유로는 학습문제(26.5%),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1.3%), 심리·정서 문제(16.8%)로 나타남. 서비스를 지원한 인원은 2,578으로 이 가운데 학업복귀 1,021명, 사회진입 326명, 자립역량강화 351명으로 전체 성과 인원 1,698명으로 나타나며, 자립성취도 목표 62.25%로 실제 달성률은 65.87%로 목표 대비 +3.62%p를 초과 달성하였음. 한편, 교육청·경찰청으로 연계한 인원은 총 790명(교육청 753명, 경찰청 37명)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학업복귀 성과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청 협력 지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진입·자립역량 강화는 각 2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직업훈련, 취업·창업, 멘토링 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립 미달성 인원은 약 34%로 이에 대한 맞춤형 보완 프로그램 필요하며, 성과 관리 체계 정교화하여 단순 참여 인원보다 질적 성과(삶의 변화)측정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연계 구조가 교육청 95% 이상으로 나타나며 향후 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 복지기관, 보건소 등 다기관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V. 주요 결과 및 정책시사점

1. 주요 결과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주요 핵심 문제는 ① 정보 접근성 부족, ② 심리·정서 취약성, ③ 경제적 불안, ④ 지역 격차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 단계별 접근, 교육청 연계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이 핵심 축으로 도출됨
- 첫째, 지원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는 진학·입시, 진로 체험, 직업 관련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 권유와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한계에서 비롯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통합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성별·연령별·학교 중단 시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함. 지역 전반의 관련 기관 등 사회적 자원, 대학생, 또래 집단 멘토 등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멘토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둘째, 심리적 정서적 취약 문제는 학교를 중단한 초기 청소년의 경우에서 특히 자살 생각이나 자해 경험 등 위기 상황에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며, 여학생이나 만 18세 이하 전기 청소년에서 특히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음. 이에 따라 학교 이탈 직후에는 위기 개입 중심의 심리적 정서 지원서비스를 집중하여야 하며, 여학생과 미성년 청소년 대상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후기 청소년의 경우 사회 진입의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립 준비와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셋째,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비, 의료비, 교육훈련 참여비 지원 등 기초적 지원 요구를 단계적으로 소액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교육참여 수당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동시에 학습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중기적으로는 기초생활비 생계형 지원 확대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으로 자립 기반 마련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함
- 넷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거주 지역별 청소년 특성을 반영하여, 군 지역 청소년은 농어촌 지역 셔틀버스 운송수단 운영, 이동 상담 서비스 활성화 등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시 지역 거주 청소년의 경우 맞춤형 진로 상담 및 중장기적 진로 탐색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다섯째, 교육청과의 연계 강화는 모든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야 함.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내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할 수 있는 통합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또한 검정고시, 대안학교, 직업훈련 과정 등 다양한 대안 경로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학습·진로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지자체, 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가족센터 간 공동 전략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례회의를 통한 사례관리, 대상 맞춤형 학습·진로·심리·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동행 지원을 보장해야 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충남 도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 자율적인 진로에 대한 설계와 건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단순한 보호 중심에서 주체적인 자율성을 가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대상 맞춤형 지원이 구체화되어야 함. 또한 학교 밖으로 이탈한 시점별로 단계적인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이 주요 기관인 지자체, 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긴밀한 연계지원으로 실현되어야 함

[요약 표 5-1] 통합지원체계 구축

주요 문제 영역	구체적 문제	정책 대응 방향	세부 전략
정보 접근성 부족	진학·입시·진로체험·직업 정보 접근 제한, 오프라인 의존	맞춤형 지원	- 온라인·모바일 통합 플랫폼 구축 - 성별·연령·학교 중단 시기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지역 기반 멘토링·직업인 네트워크 강화
심리·정서 취약성	자살 생각·자해 경험, 정서 불안정, 상담 접근성 낮음	단계별 접근	- 학교 중단 초기: 위기개입 프로그램 집중 지원 - 여학생·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조기개입 확대 - 후기 청소년: 자립준비·사회진입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경제적 불안	생활비·의료비 부담, 자립 기반 부족	맞춤형 지원 + 단계별 접근	- 단기: 소액 용돈 지원, 교육 참여 수당 - 중기: 생계형 기초생활비 지원 - 장기: 의료비·주거비 지원, 자립준비금 제도화
지역 격차	군 지역: 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시 지역: 선택지 많아도 진로 결정 혼란	교육청 연계 강화	- 교육청과 연계한 대안교육·검정고시 지원 확대 - 농어촌: 셔틀·이동상담·문화체험 기회 제공- 도시 지역: 1:1 진로 상담,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제도 연계 미흡	꿈드림·상담센터·직업훈련 등 서비스 단절적 운영	교육청 연계 강화	- 지자체, 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동협의체 운영, 정례회의 사례통합관리 추진 등 - 학업중단숙려제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학습·진로·복지 통합 연계 플랫폼 구축

2. 정책시사점

1) 정책대상 맞춤형 정보 접근성 강화

-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진학 및 입시, 진로 관련 체험이나 직업 정보 등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온라인을 통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통합적인 진로 및 학습 관련한 통합 플랫폼을 통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이를 통해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즉, 성별이나 연령별 그리고 학교를 중단한 시기별로 요구되는 맞춤형의 실시간 정보전달채널을 마련해야 할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진로와 관련한 멘토 등을 활용하는 멘토링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계망 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2) 단계별 접근을 통한 심리 및 정서적 안정 지원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중단 시기별로 심리 및 정서 상태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학교를 중단한 직후의 청소년의 경우, 자살 생각, 자해 경험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심리 및 정서 위기에 있어 취약성이 더 높게 나타남. 여학생 및 18세 이하의 전기 청소년의 경우 특히 다른 연령대나 남학생에 비해 훨씬 민감도와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 고위험군으로 확인됨. 이러한 고위험군의 경우, 특히 심리 및 정서적 안정 지원이 우선적으로 사전예방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학교를 중단한 초기인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전에 심리정서적 프로그램을 보다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한편, 연령대 19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인 자립에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불안정한 자신의 미래와 사회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련한 자립 준비지원 프로그램과 취업 기반 교육훈련 및 직장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심리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이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구체적으로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적 심리상담사업을 활성화하여 심리지원체계 구축으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할 필요

- 사전예방적으로 심리평가 및 청소년정신건강 원스톱 지원사업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함.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교육과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단을 구축 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의 마련

-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한 경제적인 부담인 생활비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훈련비 등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유지를 통한 사회적 자립 기반 확보 자체에 단계별 지원이 요구됨. 즉,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교육참여 수당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 및 자립 학습 동기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지원과 학습 동기를 고양시키는 의료비 및 주거비 바우처 형태 지원으로까지 지원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음. 필수교육을 이수하면 기초생활비 지원 바우처 지급을 확대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나 주거비관련 지원으로 자립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를 중단하였으나 지속적인 자립을 독려하도록 중단한 시기와 상황에 적합한 교육경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국정과제인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체계화”를 보다 활성화 할 필요
 - 검정고시 및 수능교재 등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하고 진로검사 및 진로설계 지원을 확대할 필요
 -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인턴십 등의 취업지원을 확대할 필요

4) 지역간 격차 해소

- 충남 도내 시군 지역 간에 정보나 프로그램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낮은 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 및 문화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는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어 상대적으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한 참여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함. 즉, 운송수단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읍면단위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함. 한편, 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관련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의 영역이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청소년 각자가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 선택이나 관련 프로그램 결정에 개인별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자 원하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관련 진로 프로그램 지원이나 심화단계의 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지원이 필요함

5) 교육청과의 연계 강화하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인 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이를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내에서 학업을 중단하려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그리고 진로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진로 및 자립에 관련한 정보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공하고,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과 교육학습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이와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의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사례관리, 대응 방안 공유, 관련 진로 및 정서적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요약 표 5-2] 주요 결과 및 정책 방향

구분	주요 내용
현황 및 실태	①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이후 진로 정보 부족, 심리·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불안, 지역 격차 등에 직면하고 있음 ② 단순 보호 중심 정책을 넘어 맞춤형 지원·단계별 접근·교육청 연계 강화 필요
주요 결과	① 정보 접근성 부족: 진학·진로·직업 정보 접근 경로 제한, 맞춤형 정보 미흡 ② 심리·정서 취약성: 학교 이탈 초기 위기 높음, 여학생·18세 이하 불안정성 뚜렷함 ③ 경제적 불안: 생활비·의료비 부담, 지원체계 확실적인 측면 있음 ④ 지역 격차: 군 지역(교통·문화 부족), 시 지역(진로 결정 혼란) ⑤ 제도 연계 미흡: 지원 서비스 단절, 교육청 협력 부족
정책 방향	① 정보 접근성 강화(맞춤형 지원): 온라인·모바일 통합 플랫폼 구축, 성별·연령·중단 시기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멘토링 네트워크 강화 ② 심리·정서 안정 지원(단계별 접근): 이탈 초기에는 위기 개입 집중, 여학생·18세 이하의 정서 안정 프로그램 확대, 후기 청소년은 자립·사회 진입 지원 프로그램 ③ 경제적 자립 기반(단계별 지원): 단기에는 용돈·교육참여 수당, 중기에는 기초생활비 지원, 장기에는 의료비·주거비 지원, 자립준비금 제도화 ④ 지역 격차 해소(맞춤형 대응): 군 지역은 셔틀, 이동상담, 문화체험 확대 필요하고 시 지역은 1:1 진로 상담, 심화 설계 지원 필요 ⑤ 교육청 연계 강화(통합 지원체계): 학업중단숙려제 실효성 제고, 조기위기 포착 시스템 구축, 대안 경로 정보(검정고시·대안학교·직업훈련) 제공, 교육청-지자체-센터 공동 TF 운영, 학습·진로·심리·복지 통합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 지원 필요
기대효과	① 정보 접근성 제고: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자기주도 진로 설계 강화 ② 심리·정서 안정화: 단계별 개입으로 위기 청소년 안정성 및 자존감 향상 ③ 경제적 자립 촉진: 시기별 유연한 지원으로 자립 기반 강화 ④ 지역 격차 완화: 지역 맞춤형 대응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 ⑤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교육청-지자체-센터 연계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망 마련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14
	4. 연구의 차별성 및 정책적 활용	23

제2장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현황	
	1. 충남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7
	2. 충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 현황	38
	3. 소결	53

제3장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57
	2. 주요 조사 결과	60
	3. 문항별 조사 결과	66
	4. 정책적 시사점	101

제4장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현황	
	1. 분석틀	117
	2.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분석	121
	3. 소결	136

제5장	주요 결과 및 정책시사점	
	1. 주요 결과	141
	2. 정책시사점	146

참고문헌		149
-------------	--	-----

표 목차

[표 1-1]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내용	4
[표 1-2] 전국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 위기청소년 시설 이용 현황	7
[표 1-3] 전국 위기청소년 시설 연간 이용 현황('22년)	7
[표 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7
[표 1-5] CIPP모형의 평가내용과 평가질문 예시 및 평가방법	11
[표 2-1]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7
[표 2-2] 학업중단 사유별 교육부 분류(초·중학교)	28
[표 2-3] 학업중단 사유별 교육부 분류(고등학교)	28
[표 2-4]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근거 조례 타지역과의 비교 현황 (서울시,경기도)	30
[표 2-5] 충남 학업 중단율 추이(2020~2024)	31
[표 2-6] 충남 초중학교 학업 중단사유 추이(2021~2024)	34
[표 2-7] 충남 고등학교 학업 중단사유 추이(2021~2024)	36
[표 2-8]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	39
[표 2-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및 역할	41
[표 2-10] 청소년 복지시설 관련 사업	42
[표 2-11]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43
[표 2-12]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 현황	45
[표 2-13] 충청남도 지자체 및 교육청 주요 지원 사업	47
[표 2-14] 기관 일반 현황	48
[표 2-15] 학교 밖 청소년 현황	49
[표 2-16] 공간 현황	49
[표 2-17] 상근 직원 현황(1)	50
[표 2-18] 상근 직원 현황(2)	51
[표 2-19] 학교 밖 청소년 주요 특성별(학업 중단 사유) 센터 이용 인원	52
[표 3-1] 조사 설계	57
[표 3-2] 조사 내용	58
[표 3-3] 응답자 특성	59

표 목차

[표 3-4] 학교 중단 후회	60
[표 3-5] 진로 관련 필요 정보	61
[표 3-6] 희망하는 직업 여부	62
[표 3-7] 희망 직업 직무 파악	62
[표 3-8]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63
[표 3-9] 최근 심리상태	64
[표 3-10] 하루 식사	64
[표 3-11] 사회성 관련 문항	64
[표 3-12] 사회적 소외감 관련 문항	65
[표 3-13] 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 받은 정도	65
[표 3-14] 학업중단속려제 참여 여부	68
[표 3-15] (수도권 이주 생각) 수도권으로 이주 생각	70
[표 3-16]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 관련 정보	73
[표 3-17] 장래 희망하는 직업 유무	77
[표 3-18] 정신건강	83
[표 3-19]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86
[표 3-20]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학습지원)	92
[표 3-21]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진로·직업 및 취업지원)	94
[표 3-22]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건강·상담 등 복지지원)	96
[표 3-23] 학교 중단 시기별 경제적 지원 방향	97
[표 3-24]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경제적 지원)	98
[표 3-25]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예체능·활동 등 지원)	99
[표 3-26]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기타)	101
[표 3-27] 교육청과의 연계 방안	108
[표 3-28] 학업중단 사유 및 진로발달 시계열 분석 결과	109
[표 3-29] 심리정서 상태 및 사회적 인식 시계열 분석 결과	110
[표 3-30] 지원제도 접근성과 만족도 시계열 분석 결과	110
[표 3-31] 기본 생활 지원 시계열 분석 결과	111

표 목차

[표 3-32] 시계열 분석 결과 및 주요 시사점1	112
[표 3-33] 시계열 분석 결과 및 주요 시사점2	113
[표 3-34] 시계열 분석 결과 및 주요 시사점3	113
[표 4-1] CIPP모형의 평가내용과 평가질문 예시 및 평가방법	118
[표 4-2] CIPP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적용	120
[표 4-3] 충남 도내 지원센터 관련 조례 현황	122
[표 4-4] 기관 세입 현황	123
[표 4-5] 기관 지출 현황	124
[표 4-6] 상근 직원 현황(1)	125
[표 4-7] 상근 직원 현황(2)	126
[표 4-8] 기관 일반 현황	127
[표 4-9] 공간 현황	128
[표 4-10] 전년도 사업 운영 및 환류	128
[표 4-11] 전문인력양성교육	129
[표 4-12] 협의체 및 지역자원과 연계	129
[표 4-13] 지역자원과의 연계 내용	130
[표 4-14]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	130
[표 4-15] 대학 입시 지원 전담 사업	131
[표 4-16] 직업역량강화 지원	131
[표 4-17]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32
[표 4-18] 학교 밖 청소년 주요 특성별(학업 중단 사유) 센터 이용 인원	133
[표 4-19] 2024년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134
[표 4-20] 2024년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실적 현황	134
[표 4-21] 2024년 교육청 및 경찰청 연계 현황	135
[표 5-1] 통합지원체계 구축	142
[표 5-2] CIPP 평가 영역별 시사점	144
[표 5-3] 주요 결과 및 정책 방향	148

그림 목차

[그림 1-1] 전국 초·중·고교 학업 중단율	6
[그림 1-2]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대상	9
[그림 1-3] 연구수행과정 및 절차	13
[그림 2-1] 충남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20~2024)	32
[그림 2-2] 충남 연도별 유형별 학업중단율 추이(2020~2024)	32
[그림 2-3] 충남 학교유형별 여학생 학업중단율 추이(2020~2024)	33
[그림 2-4] 충남 학교유형별 남학생 학업중단율 추이(2020~2024)	33
[그림 2-5] 충남 초중학생 학업중단사유 추이	37
[그림 2-6] 충남 고등학생 학업중단사유 추이	37
[그림 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체계	40
[그림 2-8]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절차	44
[그림 2-9]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비전	46
[그림 3-1] 학교를 중단한 이유	67
[그림 4-1] 조직 현황 분석틀	118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4. 연구의 차별성 및 정책적 활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충남 도내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양적으로 증가하며 대상별 특성 및 정책 요구가 다 변화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저연령층 확대, 진로 문제, 정신건강의 측면, 부모와의 관계형성 등 보다 복합적인 측면에서 학업 중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정규교과 과정 이탈 이후 주체적으로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기존 공교육 중심의 지원 체계로는 대응의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남 지역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와 실태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진로·자립 등 핵심 영역에 대한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는 충남 전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단순히 공교육에서 이탈한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임
- 최근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 이 법은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임. 주요 내용은 정서, 학업, 건강, 가정환경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 복지기관, 보건기관 등이 연계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의 운영, 통합 진단, 학생지원바우처 등의 제도도 마련됨

[표 1-1]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내용

항목	내용
법률명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제정 목적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전인적 성장 지원
대상 학생	정서, 학업, 건강,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핵심 내용	- 조기 발굴 및 통합 진단 - 학생맞춤통합지원팀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 학생지원바우처 제공 -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 설계
주요 주체	교육청, 학교, 지자체, 복지기관, 보건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
운영 체계	시·도교육청 주관 하에 지역 중심 통합지원 체계 구축
기대 효과	-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 -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적 통합 도모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2025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해당 법률의 취지와 제도적 기반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지원청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천안교육지원청은 시범운영의 일환으로, 2025년 2월 25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주관하였으며 이 연수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청 관계자뿐 아니라, 복지, 보건,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참여해 서로의 역할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음
-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시범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학교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학생 개별의 상황이나 특성에 기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이를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중심으로 다학제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운영 모델이 타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사례를 축적하고자 함. 이번 시범운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단위 실행력을 점검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검증해 향후 정책 보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무엇보다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국정과제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의 실천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9월부터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3. 26.>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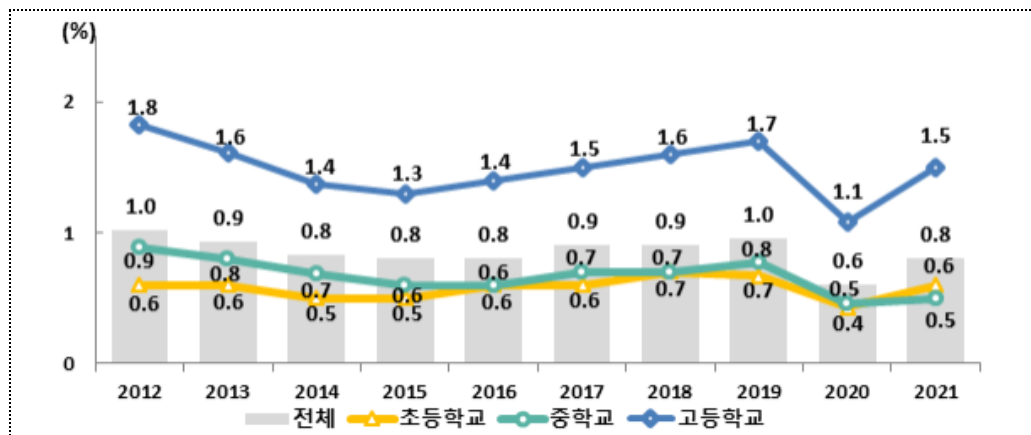
- 현재 관련 기관 간 칸막이로 학업중단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별 정보 공유 부족,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에 따라, 학업중단-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하는 연계 기반마련이 필요함.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인식이 저조하여 연계 및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함께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가 중첩되어 있어 학생 중심으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관계부처합동, 2023)²⁾
-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원센터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정보 제공 동의와 무관한 개인정보 연계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음.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 해당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이 가능함. 기관 간 원활한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정보도 사전 동의절차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원센터에의 연계 개정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학업중단 학생을 적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2)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11.)

의 정보 연계 주기를 월2회 이상 정례화하도록 정부는 NEIS-청소년안전망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 및 안내 등을 추진하였음(관계부처합동, 2023)³⁾

-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⁴⁾를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내용으로 「학교밖 청소년법」을 개정('24.3월 개정, 시행 9월로 시행전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단계만 정보를 연계)함. 이러한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자동연계('24.9월 시행)로 인하여, 고교과정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대상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러한 정책대상의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 방안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록 인원인 2,343명 대비 센터별 종사자는 2명에서 3명으로 대응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법률개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수요를 담당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및 지원센터 조직진단과 인력충원이 필요함

○ 구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21학년도 기준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42,755명(0.8%)으로 전 학년도 32,027명(0.6%) 대비 0.2%p(10,728명 ↑) 상승하였으며, 초등학생은 0.6%, 중학생은 0.5%, 고등학생은 1.5%로 전 학년도 대비 각각 0.1%p, 0.1%p, 0.5%p 상승하였음



[그림 1-1] 전국 초·중·고교 학업 중단율

출처: 성평등가족부, 정부출범 2.5주년 계기 성평등가족부 성과 및 향후 계획(관계부처 합동, 2024.11.14. 보도자료 최종배포본)

3)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11.)

4)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의 정의는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의미함

-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은 2022년도 기준으로 약 17만명 추산(전체 청소년 6세에서 17세 사이 인구에서 학생수와 내국인 순출국 수치를 제외)되며,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10개 유형 781기관 전체 이용자 수는 연간 약 13만명이고 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연간 약 4만명임

[표 1-2] 전국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 위기청소년 시설 이용 현황

단위:천명	청소년 인구	학생 수	내국인 순출국	국내 학교 밖 청소년
2019	5,812	5,408	160	244
2020	5,698	5,308	159	232
2021	5,643	5,345	152	146
2022	5,598	5,298	132	168

출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11.)

[표 1-3] 전국 위기청소년 시설 연간 이용 현황('22년)

지원기관(일부)	기관 수	인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0	39,293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149	29,14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청소년)	240	83,180

출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11.)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중앙단위 성평등가족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광역단위 시도지자체에서 광역단위 센터 설치·지정·지도·감독을 하고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기초단위 센터 지원 및 교육 컨설팅을 지원, 기초단위 시군구 지자체는 기초단위센터 설치·지정·지도·감독을 하고 시군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 등을 실시함

[표 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성평등가족부)				
중앙단위	성평등가족부 사업 총괄	광역단위	시·도 지자체 광역단위 센터 설치·지정·지도·감독	시·군·구 지자체 기초단위 센터 설치·지정·지도·감독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초단위 센터 지원 및 교육·컨설팅 수행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발굴/상담/ 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 등

출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11.)

-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춰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21년 41.4%에서 '24.9월 기준 44.1%로 이들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명시함⁵⁾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정책체계 전반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특히, 학업 중단 이후 복귀나 대안 교육의 기회, 자립 역량 강화, 정신건강 및 복지 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복합적 영역에서의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다음의 세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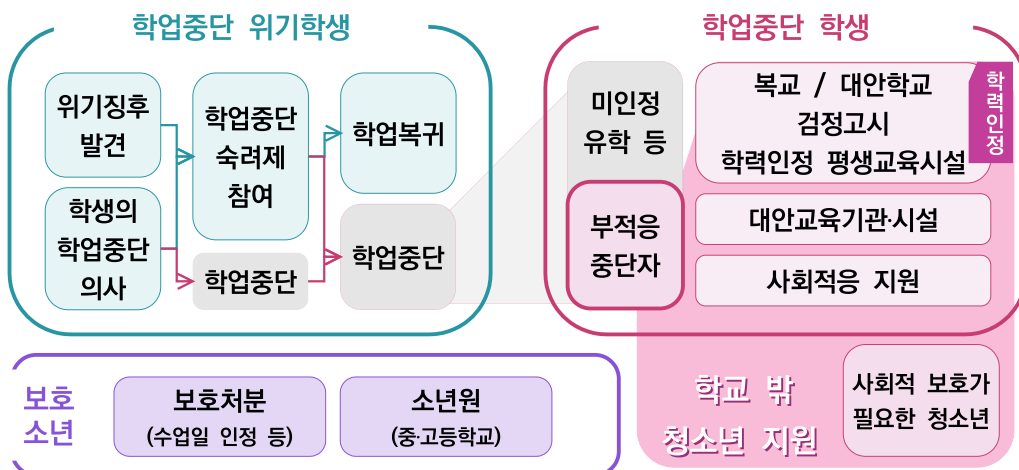
1) 연구의 내용

- 충청남도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지원 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충남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학업 중단 사유, 생활 여건, 심리·정서 상태, 진로 및 자립 의지,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과 지원 정책을 구체화함. 둘째,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 및 운영 실태 검토하여,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기관, 전달체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책 및 제도상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충남 지역 내 시군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언하고자 함.
- 넷째,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교육청, 지자체, 민간,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통합지원체계와 자원 연계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5) 성평등가족부, '정부출범 2.5주년 계기 성평등가족부 성과 및 향후 계획'. 2024.11.14. 보도자료 최종배포본.

2)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범위 및 대상은 충청남도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연구 범위로 하고자 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1)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학생,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그림[1-2] 참고)
 - 실태조사 응답자는 접근성의 한계로 만 15세에서 만 20세로 한정되어 수행됨에 따라 초등 초기 중등단계(만10~14세)와 후기청년단계(만15~24세) 전체 연령대 청소년 특성과 지원 요구 반영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본 조사는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전체 집단 가운데 중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전기 청소년(만18세 이하), 후기 청소년(만19세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함



[그림 1-2]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대상

출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11.)

3) 연구의 방법

-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 FGI 실시 및 분석: 도내 관련 기관 및 시설 실무자 인터뷰 실시, 주요 개선 과제 도출

- CIPP 분석 실시: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 측면에서 학교밖지원센터 현황 분석 및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
- 정책적 시사점 도출: 대상별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 역할 및 기능, 주요 과제 도출 등

(1) 문헌 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첫째,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계획, 결과 내용, 사회조사 내용 등 충남 및 전국 단위 실태조사 관련한 조례를 살펴봄
- 정책 자료는 전국 단위 가족실태조사, 타 광역지자체 관련 실태조사 내용 등 정책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추진 계획을 리뷰함
- 또한 선행연구로 가족실태조사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검토·정리 통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함

(2) 충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주요 설문내용으로는 학교 및 정규교육 중단을 선택한 이유, 학교 밖을 선택한 이후 생활의 현황 및 실태, 가장 큰 어려움 및 개선이 필요한 내용, 필요한 서비스 및 정책수요 등으로 구성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인력충원 및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실증적 근거 기초자료를 제시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 (조 사 명) 충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법적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조사기간) 2025.4.1.(화) ~ 6.30.(금)
- (조사대상)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
-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 병행
- (조사내용) 학교 및 정규교육 중단을 선택한 이유, 학교 밖을 선택한 이후 생활의 현황 및 실태, 가장 큰 어려움 및 개선이 필요한 내용, 필요한 서비스 및 정책수요 등
- (수행기관) 충남사회서비스원(결과분석), 전문리서치업체(조사실시)

(3)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조직 진단

- CIPP모형⁶⁾은 사업의 상황, 투입, 과정, 산출 각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의사결정자의 주요 관심, 정보 요구, 프로그램 효과성의 판단 준거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

로 보는 평가분석 틀임. 이는 의사결정 중심의 평가 접근법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들을 판단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기술하고, 획득하고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즉, CIPP모형은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진단 및 평가분석 틀로 설명할 수 있음

- 성과분석틀 구안: CIPP 성과평가모델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평가를 실시, 정책 개선 과제 도출, 사업 개선 방안 제시
- 분석 대상 및 내용: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조직 현황 분석으로 센터별, 사업별, 추진내용, 참여 인원, 사업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구체화함

[표 1-5] CIPP모형의 평가내용과 평가질문 예시 및 평가방법

구분	평가내용	평가질문 예시	평가방법
상황평가 (Context)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요구, 문제 그리고 기회를 평가	프로그램은 어떤 목표와 미션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가?	체제분석, 표본조사, 문헌검토, 청취 및 면담, 진단검사, 델파이 기법 등
투입평가 (Input)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필요에 부합하는 대안적 방안을 평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원은 적절한가?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파악, 해결전략, 연관성을 위한 절차설계의 실행가능성과 경제성 목록 작성, 문헌연구의 우수 사례 프로그램과 팀에 대한 방문 파일럿 운영 등
과정평가 (Process)	계획에 대비하여 활동들을 이끌 수 있는 실행수준을 평가	프로그램이 의도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활동에 대한 잠재적 절차상의 장벽을 지켜보고 예상되지 않은 장애물 파악, 계획된 결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정보 획득, 실제 과정 기술, 프로젝트 참여자의 활동을 관찰하고 계속된 상호작용 실시
산출평가 (Product)	의도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인지를 평가	프로그램 산출결과물은 무엇인가?	산출물의 기준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산출물에 대한 평가자료 수집, 양적·질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종합

출처: 김혜숙(2014).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이론과 실제, p. 48-49 표 재구성.

- 6) CIPP모형은 성과평가 분석틀로 CIPP성과분석 모형은 사업의 상황, 투입, 과정, 산출 각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의사결정자의 주요 관심, 정보 요구, 프로그램 효과성의 판단 준거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보는 평가분석 틀로써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 측면에서 조직진단 및 평가영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분석 틀로 설명할 수 있음

- 가) 상황평가(Context): 센터의 목표와 비전 수행 평가(문헌검토, 관계자 면담 등)
- 나) 투입평가(Input): 센터 투입 자원의 적절성 평가(인적 물적 자원 파악)
- 다) 과정평가(Process): 센터의 목표 효과적 실행 평가(목표 실행과정 지속적 점검)
- 라) 산출평가(Product): 센터사업의 산출결과물 평가(평가자료의 양적질적 분석 수행)

(4)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실태조사 사전자문회의: 설문조사의 범위와 대상, 조사내용의 조정, 설문문항의 구체화 등 조사 설계 전반에 대해 관련 기관, 선행 연구자, 관련 정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자 함
 - 자문 내용 :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범위, 설문 세부문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조사 실시 검토 관련한 자문회의 실시
- 실태조사 사후자문회의: 설문조사 결과의 검토 및 분석 후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자, 정책 담당부서의 실무자 정책간담회의 및 실무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자문 내용: 설문조사 결과의 검토 및 분석 후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자, 전문가·실무자, 정책부서 담당자 등 대상으로 결과 내용 검토

(5) 연구의 과정 및 절차

- 본 연구의 주요한 과정은 구체적으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정책 실무자 대상 사전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설문조사 내용 및 구체적인 설계 등의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의 실시와 분석,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조직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대상 자문회의 실시 등 일련의 연구수행의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구분	연구과정 및 절차	일정
↓		
사전 자문, 선행연구 검토	○ 연구 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 정책관련 및 실무진의 의견 수렴 ○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 리뷰	2025.2~4월
↓		
전문가·실무자 인터뷰 간담회	○ 대상 :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등 ○ 내용 : 관련 실무자 자문회의, 센터 현황 및 실태	2025.4~11월
↓		
설문조사 실시·결과분석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대상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 학교 중단 선택한 이유, 중단 선택 이후 현황 및 실태, 어려움 및 개선요구, 정책수요 등 - 방법 및 내용: 기초통계 및 2차 분석 실시, 정책시사점 도출	2025.4~7월
↓		
성과분석틀 구안, 조직 현황분석 실시	○ CIPP 성과분석틀 구안 - 성과분석틀에 의한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조직진단 및 개선 방안 구체화	~2025.11월
↓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분석결과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전문가·실무자 자문회의 - 대상 : 관련 실무자 등 전문가 - 내용 : 근무 여건 및 인력 현황, 사업 대상 증감에 따른 사업효과성 제고 방안, 사업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 사업 실태와 정책수요 등 2.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시사점 제언 검토와 도출 - 대상 : 관련 선행 연구자, 실무자 등	~2025.11월
↓		
정책시사점 도출 및 제언	○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도출 ○ 정책제언 및 주요 정책사업 구체화	~2025.12월

[그림 1-3] 연구수행과정 및 절차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1)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검토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관계부처합동, 2023.2.)’ 수립 방향은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강화,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 내실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함
 - 비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함. 5개 대과제는 1.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강화,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 4개 중과제, 2.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3개 중과제, 3.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조성,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3개 중과제, 4.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 청소년 권익 증진 2개 중과제, 5.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청소년정책 인프라 개선,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2개 중과제로 총 14개 중과제를 수립함
-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김희진 외, 2023)’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기초하여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경제상태, 진로, 지원프로그램 활용 현황, 지원 정책 수요, 이외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주요 정책제언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저연령화에 따른 발달단계별 지원 체계화(1.연령대별 특화된 맞춤형 지원, 2. 꿈드림센터 규모 고려한 유연한 운영 및 인근 센터와 연계 통한 전문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 3. 발달단계 초기, 중기 후기 등에 따른 초기상담에서부터 전과정 지원체계 마련과 운영관리, 4. 지역사회 내 지자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의 다부처 협력과 연계), 특수한 상황과 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 집중 지원(1. 부모 지원 미흡 및 경제적 취약 청소년에 대한 집중 지원, 2. 아르바이트 시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 교육 및 지원 실효성 강화, 3. 이주배경(중도입국)청소년 언어학업 문제 해소 및 또래 관계 형성 기회 제공, 다면적 어려움 포함한 학업중단 원인 심층 탐색), [심리정서적 지원]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위한 상담 강화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확대(1. 현장실무자의 상담 전문성 증진을 위한 훈련 기회 및 보상 제공, 2. 정신건강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 치료기관 연계, 3.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4.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상담사 양성

장기 플랜 제고), 은둔 사회적 고립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체계화(1. 지역사회 내 지원사업 참여 촉진을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 설계 지원, 2. SNS를 통한 접촉 및 관계 유지, 온라인 상담을 통한 발굴과 다양한 활동 및 서비스 안내 제공, 3. 첫 접촉부터 지원과정 결과에까지 개별 사례관리 제공, 4. 은둔 기간에 따른 단계적 개입 방안 마련, 5. 이전 학교 교사 부모 지역사회를 통한 은둔 청소년 정보 축적, 6. 은둔형외톨이, 고립은둔청년이 아닌 학교 밖 은둔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정책대상자로서의 지원 범위와 접근 방법 모색), [신체 건강 증진] 스포츠클럽 활동 기회제공을 통한 신체적 건강 증진(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스포츠클럽 조직 및 활동 활성화, 2. 다양하고 효율적인 스포츠허동 기회마련을 위한 지자체 및 타 정부부처 관련 사업 적극 활용, 3. 여자청소년 체육활동 적극 참여 독려 방안 마련), [사회성 제고]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기회 제공(1. 또래관계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한 동아리활동 활성화, 2. 사회성 발달 및 대인관계기술 향상을 위한 멘토링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적극 활용), [청소년 활동 촉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1.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 마련, 2. 청소년활동바우처 등 접근이 용이한 방식의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확대), [진로 지원 강화] 장기 진로설계 서비스 지원(대입과 취업 진로결정전 충분한 진로상담 및 탐색부터 사회진출 사례관리까지 학교 밖 청소년 개인맞춤형 진로설계서비스 제공), 미래 유망 직업 분야 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 훈련 마련(1. 청소년수요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제공, 2. 미래 유망산업 고려한 신직업 분야 정보 제공, 3. 신직업 분야 관련 체험 및 장기적 관점에서 직업교육 훈련 마련), [지원사업 연계] 지원체계 조기 접근성 강화(조기 지원 필요성 교육체계 인식 제고 적극 소통, 지역사회 내 센터 홍보 강화 및 인식 증진), [실태조사] 실태조사 대상자 범위 조정 등으로 제언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김희진 외, 2023)’에서는 비전: 학교 밖 청소년 건강한 성장과 자립, 5개 정책방향성 1)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건강 및 성장 지원 우선, 2)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3)직업역량강화 이전 진로 개발역량 우선 강화, 4)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정체성·방향성 검토, 5)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로 제시함
- 주요 연구 결과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경제적 수준과 부모 지지가 낮은 경우, 더 취약하거나 어려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는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취약성,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불이익적 경험, 학교를 그만둔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친구와 교류 기회 감소, 경제적 수준, 심리 및 정서 요인, 읍면리 거주 경우, 진로 결정 및 직업 태도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남.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업교육훈련, 진로, 고민상담 등 필요한 것으로 분석결과 보여줌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진로 진학 취업준비의 어려움, 심리사회적 취약성, 부정적 사회인식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로 다소 차이점이 나타남. [집단A: 20대 중후반 성인

집단]은 학교를 그만 둔 주요원인이 출석일수 부족으로 자퇴로 직업학교, 취업성공패키지, 꿈드림 센터 검정고시 지원 등의 경험이 있고 대부분 학교를 그만둔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진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후회가 증폭하였으나 직장인이 되면서 자립하였음. 이들은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진학과 진로 구직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래관계 경험부족 소외감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의 피로감과 좌절을 경험함. [집단B: 10대 후반~20대 초반 집단]은 진취적인 진로탐색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체로 만족하고 꿈드림센터와 내일 이룸학교,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좀 더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음. 개인생활관리의 어려움이나 허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가 있음. [집단C: 10대 중후반 집단]의 경우 대학진학 준비에 더 유리하기에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꿈드림센터를 통해 진학상담 및 대입 대비반 수업을 수강하고 있으며 대학진학 준비와 관련한 지원요구가 많고 대부분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만족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김희진 외, 2021)’에서는 2018년~2021년까지 축적된 질적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이후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겪는 경험, 심리정서적 상태, 자립 및 진로 실태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이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결과 및 시사점으로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정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를 통하여 1. 학교 밖 선택의 결과: 청소년기에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성인이가 되면서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학교를 중단한 후 시간이 많이 흐른 성인기에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학교 밖에서의 도전: 청소년기 학교에서 하지 못한 경험을 통하여 터닝포인트를 찾고 성인기에도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4. 사회적 차별과 편견: 청소년기에는 차별과 편견에 상처받지만 성인이가 되면서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임. 이를 통해 보호체계의 강화, 터닝포인트 기회를 제공, 사회적 차별과 편견 극복, 내적인 힘 강화와 같은 부분에서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시함
 -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에 있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족 갈등, 해체, 가난, 돌봄 부재,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우울, 학교폭력, 따돌림 경험을 중복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의 심리정서적 상태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삶의 의지를 보이는 참여자도 있으나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부정적 자기 인식,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참여자도 있음.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체계는 부모를 포함하는 가족, 친구, 연인, 직장동료들이었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확인됨.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 정책적 방향성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관계적 지지체계 회복 및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성이 제안됨

- 20대 중반 청년 자립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결과, 자립 패턴을 살펴본 결과 1. 격발장치 단계(자신의 진로를 위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인지) 통해 학교 중단 과정, 2. 학교 그만둔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간, 3.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단계, 4. 길을 다져가는 단계순으로 자립과정이 파악됨. 이러한 자립과정에 영향을 미친 맥락으로는 가족, 관계망, 사회서비스체계, 지역인프라가 탐색되며 이를 통해 지원체계의 내실화전략, 접근성 향상, 자립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 인식개선 전략이 제안됨
- 통합적 정책제언으로 1. 꿈드림 접근성 향상(정보,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 향상), 2. 꿈드림 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다양한 자립 프로그램 제공, 터닝포인트 기회 제공, 부모에 대한 지원, 꿈드림 인력 충원과 예산 확충), 3.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필요(성공사례 중심 홍보 실시, 공정한 기회 제공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백혜정, 2015)’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그에 필요한 정책 요구도 파악, 현황과 문제점 점검으로 지원정책 체계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주요 결과, 열악한 가정환경, 학교생활 어려움, 비행행동 높은 가능성과 불안한 심리정서경향 등을 보였으며 학업중단 및 지속의 가장 큰 이유는 또래관계로 이 시기 또래 관계는 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원정책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 요구는 다양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상황 파악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학업중단의 경험이 성장시키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지지 환경 마련이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센터가 개소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센터 운영은 초기 단계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 학교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연계가 원활하여 대상 발굴과 사회적 안전망으로 유입시킬 필요성, 2. 지역마다 대상 규모 편차가 커서 센터별 동일 예산과 인력 지원으로 업무 과중, 기관운영과 서비스 제공 곤란을 겪는 측면 발생함, 3. 종사자 처우에 고용 안정성이나 급여 적절성 확보되지 못하여 이직률 높게 나타남. 높은 이직률과 형식적 종사자 교육연수로 인해 정보 습득이 충분하지 않아 각 부처에서의 정책과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함 4. 기관 접근성 시설 기자재 등의 일정수준 이상 확보 필요, 지역별 현황과 특성, 지역 내 인프라 형성, 기관 준비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통하여 기관 지정과 운영 계획 재검토가 필요
- 주요 정책제언으로 성인기에서의 성공적 자립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통합성, 연속성, 충분성, 지속성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설정함.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로 시계열 자료를 축적, 지원서비스에 참여한 청소년 자료 축적,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상 특성과 경향 분석, 학교이탈 위험도 측정도구 개발 등을 제시함. 정책수혜자 중심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위해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청소년 지원 부처 일원화,

유관 부처와 부서 간 공조체계 마련이 필요함. 현장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내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 센터 운영기준 개선책 마련, 자립준비도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함.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 마련과 체계적 효율적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 마련 필요성을 제시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운영실태분석 및 개선방안(김명희 외, 2023)’에서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원 수혜자 및 관계자 경험 분석 기반으로 주요 정책제언을 제시함

- 주요 정책제언으로는 초등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최근 초등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에 주목함.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인내가 기존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교육참여수당지원 측면, 실질적으로 이 수당이 동기부여, 성취감 획득, 학업 지속 여건 마련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으로 2019년 시행하였으며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교육참여수당은 2023년 현재 제도의 안정 기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진로와 경제적 독립 문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활동 필요성을 확인함
-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정책의 중복성 측면에서, 주무부처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합동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학부모와 학생은 서울시와 교육청에 학습, 진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학습지원을, 서울시는 자립지원에 강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음. 친구랑도움센터는 저연령청소년, 꿈드림센터는 고연령청소년이 주로 집중되어 활동하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이 중복이 다소 있더라도 지원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친구랑도움센터 기능과 역할: 서울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인 친구랑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친구랑 도움센터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현재 센터의 인력 운용 측면과 기능에 대해 검토할 때, 안정적 인력 운용이 필수적임. 센터 인력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 인력 간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교육청 직영으로 운영되며 현재 11명 전문상담사와 2명 초중등파견교사 등 전체 13명 구성, 전문상담사는 꾸준히 인력 총원 중임. 3개 센터는 지역 평생학습관 부설로 운영 중이며, 교사는 공교육 학교 현장 출신 교사 파견으로 평균 1년 기간 동안 지원 업무 형태, 신림과 마포센터에 초등 중등 교사 각 1명 배치되어 있음. 전문상담사는 상담에 특화된 인력, 꿈드림 센터 등 여타 청소년 기관이 청소년 지도사로 구성된 것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과 직접 연락하고 등록, 프로그램 참여 독려까지 관계 형성 중요성에 따라 전문성 요구되어 타 기관과 차별성이 존재함. 교육참여수당 도입 이후 행정 업무 증가에 대해 전문상담사를 행정 업무까지 수

행해야 하는지, 혹은 심리정서적 어려움 호소 청소년 증가 양상으로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외부 기관 연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김선미, 2024)’에서는 정보연계 시스템 불안정 시기, 적기 연계의 어려움 발생, 학업중단 관련 추가정보 내용 변화에 대한 연계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 센터사업의 어려움과 문제점, 교육청 내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필요, 학업중단 담당자 및 학교 밖 청소년 담당자 개별 필요, 도 차원에 대안교육기관 관리 필요, 고등학생 대상 직접사업 개발 필요 등을 검토함
 - 주요 정책제언으로 2가지 영역에서 1.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방안: 학업중단 위기학생 개입과정 시 적극적 연계협력, 교육청 정보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적기 연계 위한 교육청 안내 강화, 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 내 단체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단계별 지원 개입 특화 강화, 법적 기반 강화, 정신건강 고위기 취약 청소년 지원 위한 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장학사업 연계 강화, 부모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사업별 구체적 개선방안(교통비 참석수당 거주지역고려 차등화 수당 지원, 건강검진사업활성화 인센티브 강화, 퇴직 교원 활용 대학입시 지원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 해외연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결제시스템 지역별 여건고려 활용,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연계 신체활동 기회 제공), 인프라 개선 시공간 격차 완화 노력, 사업 방향성 검토 필요성을 제언함
- ‘전남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김경주 외, 2023)’에서는 전남 지역 이주민 인구 증가, 체류 장기화, 다양한 가족형태 확산 등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을 포함한 포괄 개념)의 수가 증가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주요 결과 및 시사점으로는 선별적 지원방식이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구분을 강화해 왔다고 지적, 실제 조사 참여 청소년 대다수가 비이주배경 청소년과의 교류가 가능한 통합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함.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적응, 기초 학습능력, 진로 및 진학, 정체성, 심리 및 정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이 나타나 한국어, 기초학습, 사회문화적응, 진로 설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언함
 - 기본적인 방향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기초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학습 지원 강화,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친화적인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조성이 필요함. 주요한 과제로는 4개 영역에 총 17개 세부과제를 제안하며 통합거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학교생활 돌봄 전담인력 배치, 다수형 직업고등학교 운영, 지

역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교육청-재단 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영역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학교, 정체성, 진로 등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지역 맞춤형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높으며 통합지원 및 지역 거점 중심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함으로써 특수 대상에 대한 복지 아니라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포용이라는 관점을 제시함. 특히, 농어촌 지역 등 교육자원과 사회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의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2) 주요 시사점

-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업중단 실태 분석, 학교 복귀 또는 검정고시 중심의 교육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및 자립 지원 등으로 구분됨.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디지털 미디어 사용, 비자발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목소리 반영 등으로 연구영역이 다변화되는 추세로 확인됨
 - 기존 연구 다수는 공교육 복귀 중심의 단기 개입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전문기관 간 연계 및 사례관리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함
 - 주요 정책제언으로 현행 지원체계의 단편성, 서비스 간 중복,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개별 욕구 맞춤형 지원, 지역 격차 해소, 민관 협력 강화, 당사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거나, 단기적 성과 지표 중심의 평가가 많은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 스스로의 인식, 경험, 수요를 반영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 간 특성을 고려한 실증연구 및 정책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함
-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단기 학업복귀를 넘어, 자기주도적 삶의 설계와 자립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확인함. 정책 수립 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적 접근이 병행할 필요가 있음. 향후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장기적 관점의 추적 연구, 지역 특성 기반 분석 등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책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 단위에서 원활한 통합 관리체계가 선결되어야하고 청소년 지원 부처 일원화 및 유관 부처와 부서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정책대상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습 지원 강화로, EBS,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등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무료 학습 프로그램 운영, 센터 내 학습 공간 및 학습 멘토링 서비스 제공, 학력 인정 검정고시 특화반 운영 (개별 맞춤 학습 플랜 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강화측면에서, 지역 내 특성화고,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직업 체험 기회 확대하고, IT·미디어, 공예·수공예, 요리, 미용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소규모 창업 지원금 및 컨설팅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심리·정서 지원 및 멘토링 강화측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서적 불안,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리·정서 지원이 필수적임.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하고 전문 상담사 배치 및 정기 상담 지원, 불안, 우울, 대인관계 문제 등을 다루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토래 그룹 상담, 예술치료(미술·음악·연극) 등 심리 안정 프로그램 활성화하도록 함. 토래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생, 직장인, 선배 청소년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토래 그룹 활동(소규모 동아리 운영, 공동 프로젝트 수행) 강화할 수 있음
 - 취업 및 경제적 자립 지원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확대하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력서 작성·면접 대비 교육 운영하고, 금융·경제 교육 제공하여 청소년 대상 기초 경제·금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창업 지원 및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등) 관련 교육 제공하도록 함
 - 청소년 쉼터 및 긴급 보호 지원 강화측면에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단절된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지원을 확대해야 함. 긴급 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주거 불안정 청소년을 위한 단기 터 및 장기 보호시설 확대, 24시간 운영되는 긴급 상담 핫라인 운영, 생활지원 및 복지 연계 확대, 의료, 법률 지원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제도(청소년 수당, 주거 지원 등) 적극 안내 및 신청 지원이 필요함
-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지역 사회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측면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복지기관, 교육청, 기업 등과 협력하여 자원 연계 강화,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한 무료 활동 지원 확대해야 함.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진행,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지원, 취업 및 경제적 자립, 보호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NEIS(나이스 대국민서비스)시스템 접근 방법 및 연계 방안으로 교육청과 학교 등 각 기관별 시스템 접근과 연계 협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음. 우선, 교육청 협조가 선결되어야하며,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NEIS(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학적, 출결, 성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학적 정보 및 그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학교와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일부 청소년이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간에 학생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로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정보 공유 및 연계 프로세스 구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전국 청소년 지원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다양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NEIS(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상호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학교 재진입, 학력 인정,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NEIS(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활성화 측면에서는 NEIS(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시스템과 연계되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학습 계획, 멘토링 이력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필요 시 NEIS(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적 및 정책적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책 및 법률적 기반 마련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NEIS(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학교 교육의 정보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청소년 지원 센터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나 관련 기관의 정책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 주요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음

4. 연구의 차별성 및 정책적 활용

-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전국 단위의 통계자료나 법제도 분석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부 지역 또는 유형별로 예를 들어, 학업중단 사유, 위기유형 등에 한정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데 그쳤음.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복귀’나 ‘검정고시 지원’ 등 교육적 성과 중심의 접근에 머물렀으며, 정신건강, 진로 탐색, 자립 역량 등 청소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방안에는 상대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은 측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도농복합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간 접근성, 인프라 격차, 농촌지역의 소외 문제 등을 실질적인 현장 중심으로 조명한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도록 함. 특히, 프로그램 효과성이나 제도 분석에 그치지 않고, 충남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과의 심층 FGI (표적집단인터뷰), 정책대상인 도내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한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수요를 직접적 정책시사점으로 수렴하여 제언하고자 함
 - 또한 기존 연구들이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과 성장의 주체로 바라보며, 정신건강 회복, 진로 동기부여,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정책 목표로 명확히 설정하고자 함
- 기존 선행연구로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실태 및 보호·지원 방안 연구(2023)’ 및 ‘충청남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2024)’ 실시된 바 있으나, 도내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한 조직진단 및 인력충원 방안 모색,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수요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기 때문에, 올 25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충남 도내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요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정책수요를 담아내고, 법률개정에 따른 정책대상의 증가로 인한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 제적 및 퇴학 또는 자퇴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음.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 및 공유에 있어서, 정보 공유 프로토콜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각 청소년의 학적 상태나 진로 계획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과의 정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및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프로토콜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 및 학업과 관련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와 그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NEIS(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생들의 이력을 확인하고, 청소년 지원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진로 개발 및 검정고시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NEIS(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업 성취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맞춤형 진로 개발 프로그램과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교육부,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학교 안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적 근거 기초자료로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

제2장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현황

1. 충남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 충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 현황
3. 소결

제2장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현황

1. 충남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 학교 밖 청소년 정의 및 현황

가) 학교 밖 청소년 정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 범위를 제시함.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미취학 또는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였거나 고등학교 과정에 미진학 또는 입학 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으로 정의함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연령을 9세-24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학교 밖’ 정의의 근간이 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7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연령이 일반적으로 18세가 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대상자 규모 추정을 위한 연령 범위를 7-18세의 학령기로 제한함(이예진, 2020)

[표 2-1]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명칭과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학령기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의미 하에 중도탈락(구분용, 유재민, 2003; 조아미, 2002), 학업중단(김범구, 조아미, 2013, 윤철경 외, 2013)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됨(김희진, 백혜정, 2020; 정제영 외, 2017)
- 학업중단은 개인차원에서는 미래소득 감소를, 국가차원에서는 인적자원 손실로 간주되어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현황을 매해 발표함(남기곤, 2011; 정제영 외, 2017)

[표 2-2] 학업중단 사유별 교육부 분류(초·중학교)

대분류	중분류	항목설명
1.유예	①질병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등), 기타질병(게임중독 등)
	②장기결석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경우(가출, 행방불명 등)
	③미인정유학	의무교육 단계에서 법령 및 교육감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학 또는 해외출국인 경우
	④기타	가사(채무, 이혼, 간호 등), 품행(폭행, 절도 등), 부적응(엄격한교칙, 학습부진 등) 등 ①~③ 이외의 경우(대안교육, 검정고시준비, 종교, 방생활동 등)
2.면제	⑤질병	교육감이 정한 질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4항)
	⑥해외출국	인정유학, 해외이주, 해외파견동행(이민,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 등 합법적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취학의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⑦기타	교육감이 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표 2-3] 학업중단 사유별 교육부 분류(고등학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설명
1.자퇴	①질병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등), 기타질병(게임중독 등)
	②가사		경제사정(채무등), 가정불화(이혼등), 주거불안정, 기타(부모간호등)
	부적응	③학업	학습부진, 학업기피(무동기/무의욕적태도) 등
		④대인관계	학교폭력피해(따돌림,갈취,협박,폭행등),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악화, 품행 관련 사항(폭행, 절도 등)
		⑤학교규칙	두발·복장 단속, 흡연·음주금지 등의 규율에 대한 부적응
		⑥기타	③~⑤에서 망라한 사유 이외 기타 부적응
	⑦해외출국		유학, 어학연수, 이민, 파견동행 등
	⑧기타		조기진학, 종교, 방생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2.퇴학	품행	⑨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에 의한 퇴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7)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조치로써 퇴학 처분한 경우
		⑩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⑨ 제외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8)에 따라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조치로써 퇴학처분 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퇴학 처분은 제외)
3.제적	⑪제적	자퇴(자발적) 및 퇴학(강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아닌 행방불명, 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킨 자	
4.유예	⑫유예	특수학교 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5.면제	⑬면제	특수학교 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질병, 인정유학, 해외이주, 해외파견동행, 기타)	

나) 충남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

- 충청남도 도 단위 관련 근거 조례로는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1.06.제정)」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중도탈락 등 정규교육을 이탈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함.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교육과정(초·중·고)을 중단하거나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도지사의 책무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책의 조정 역할 수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도 및 시·군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가능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지원센터는 상담, 교육, 직업체험,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민간 협력 및 연계로 비영리단체,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지원 시너지 창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재정 지원으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명시하고 있음
 - 조례 제정을 통해 비가시화되던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어 제도적 지원의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다각적인 지원 구조 필요성이 확인됨. 예컨대, 단순한 복지 제공이 아닌, 교육·진로·심리·생활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지향하고 사각지대 해소 노력의 시작으로 탈학교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포용하려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실제 예산 확보·운영 인력·서비스 질 관리 등 후속 실천을 통하여 정책 실효성 확보 과제를 강화할 필요
 - 충남도 내 15개 모든 시·군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 경기도 등 타지역 근거조례와 비교하면

- 7)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 8)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음. 1. 학교내외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지원체계, 주요지원내용, 예산 지원, 주요 특징 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도적 기반 강화측면에서, 세 지역 모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도록 하였음. 둘째,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하여, 각 지역은 청소년의 다양한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셋째, 지역 특성 반영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

[표 2-4]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근거 조례 타지역과의 비교 현황(서울시,경기도)

구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법적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2014)	「서울형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중장기 계획」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지원 체계	도 및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관악구·마포구 거점형 도움센터 설립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주요 지원 내용	상담, 교육, 직업체험, 자립지원 등	검정고시 준비,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지원 등
예산 지원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명시	2021~2024년 약 44억 원 투입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예산 지원
특징	실태조사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	학습·진로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통해 교육환경 안전성 확보

자료 및 출처: 자치법규 시스템(<https://www.elis.go.kr/>)

2) 충남 학업중단자 현황

가) 학업 중단 현황 추이

- 충남 학업중단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20년도에 전체 0.6%에서 2024년도 0.9%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률은 유사한 추이로 나타나며, 학교유형별 학업중단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2023년도까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2024년에는 급격하게 학업중단율이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 특목고의 경우, 특성화고 다음으로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2023년도부터 감소하는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전반적으로 초·중등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표 2-5] 충남 학업 중단율 추이(2020~2024)

연도	구분	충남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2020	전체	0.6	0.3	0.4	1.3	1.0	1.6	2.9	0.8
	남자	0.6	0.3	0.4	1.4	1.0	1.9	2.9	0.7
	여자	0.6	0.4	0.4	1.3	0.9	1.1	3.0	0.9
2021	전체	0.7	0.4	0.5	1.7	1.3	2.2	3.9	0.6
	남자	0.7	0.4	0.4	1.7	1.2	3.0	3.9	0.5
	여자	0.7	0.3	0.5	1.7	1.4	1.3	3.9	0.8
2022	전체	0.7	0.4	0.5	1.7	1.3	2.2	3.9	0.6
	남자	0.4	0.2	0.2	0.9	0.6	1.6	2.3	0.3
	여자	0.3	0.2	0.2	0.8	0.7	0.6	1.7	0.3
2023	전체	0.8	0.4	0.6	2.1	1.6	2.1	4.8	1.1
	남자	0.4	0.2	0.3	1.1	0.7	1.3	2.7	0.7
	여자	0.4	0.2	0.3	1.0	0.9	0.8	2.1	0.3
2024	전체	0.9	0.5	0.6	2.0	1.6	1.5	1.1	0.8
	남자	0.4	0.2	0.3	1.0	0.7	1.0	0.6	0.4
	여자	0.4	0.2	0.4	1.0	0.9	0.6	0.5	0.4

자료 및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자료 가운데 일부를 재가공함

주: 1) 고등학교의 유예 및 면제자는 세부 사유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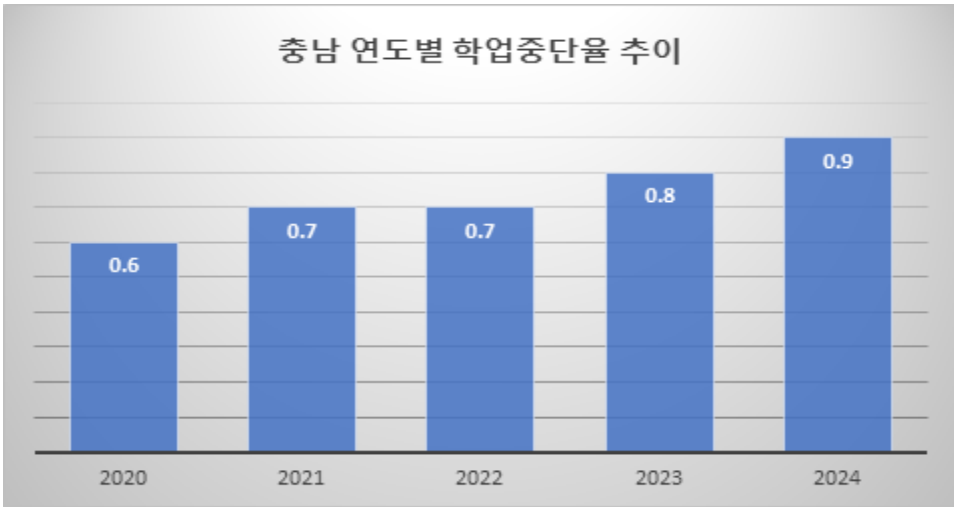
2)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 / 전년도 학생수 × 100

3) 학업중단자 조사기준일: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말/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말/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말

4) 전년도 학생수 기준일 : 2020년~2023년 매년 4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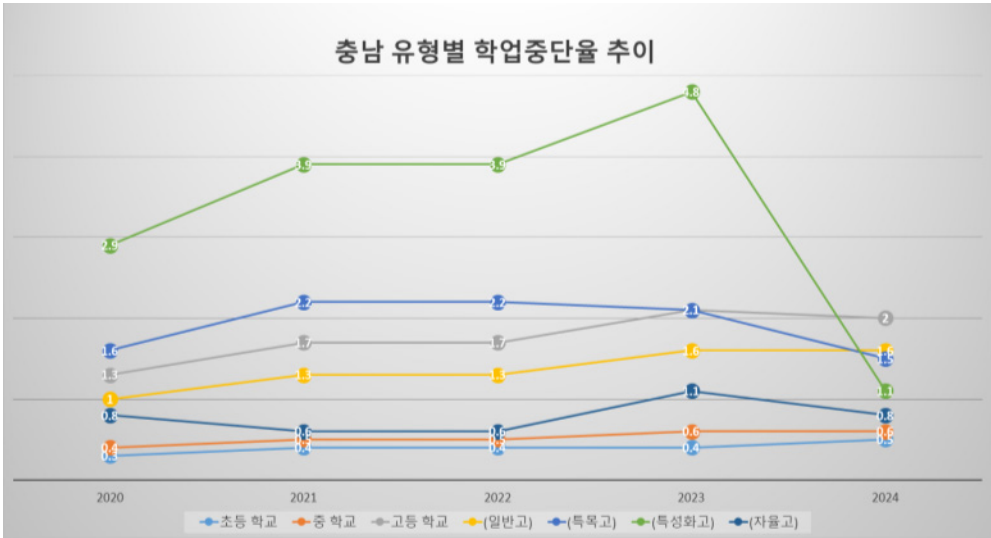
5) 고등학교 세부 유형이 1년 사이 변경된 경우 학업중단률 사용 시 유의하여야 함

- 전년도 학생이 없는데 학업중단자가 있는 경우 발생
- 전년도 학생보다 학업중단자가 더 많은 경우 발생
- 전년도 학생이 있는데 학업중단자가 없는 경우 발생



[그림 2-1] 충남 연도별 학업중단을 추이(2020~2024)

자료 및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자료 가운데 일부를 재가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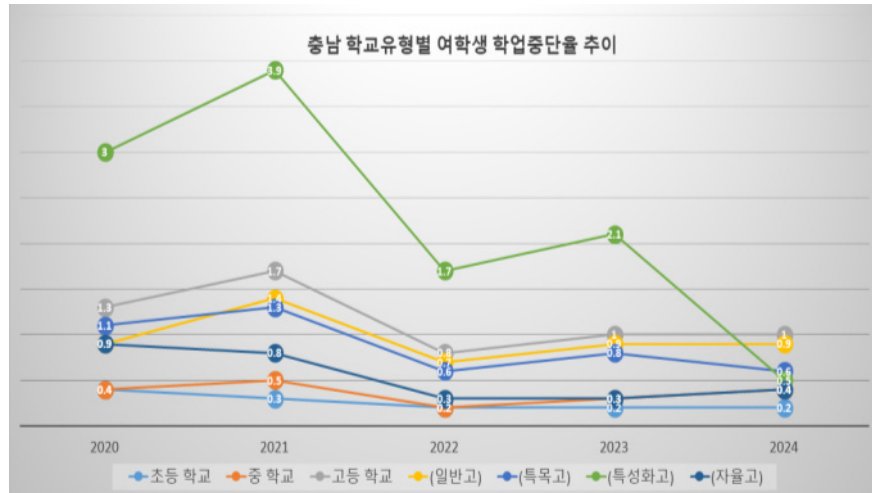


[그림 2-2] 충남 연도별 유형별 학업중단을 추이(2020~2024)

자료 및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자료 가운데 일부를 재가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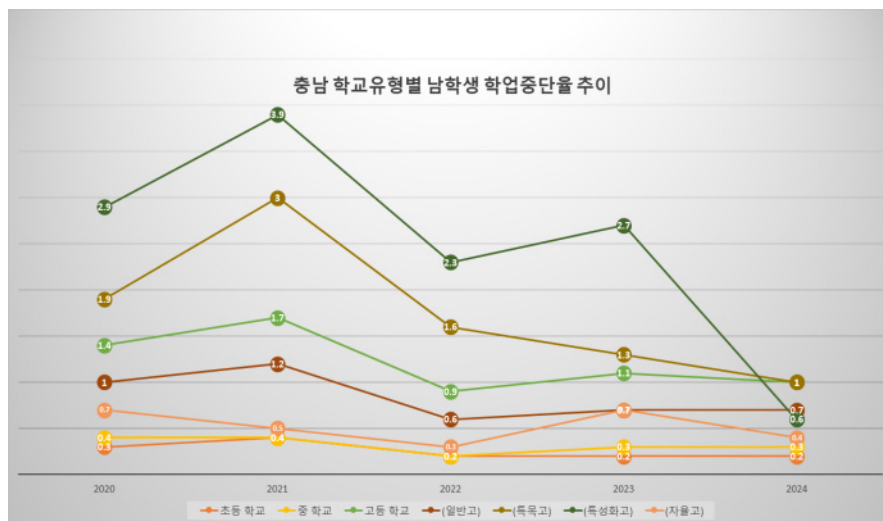
○ 충남 학교유형별 성별 학업중단을 추이를 살펴보면, 여학생과 남학생 중단을 추이가 학교유형별 유사한 패턴으로 특성화고에서 가장 높은 중단을 추이가 나타나며, 특목고 여학생 중단은 2022년 감소하다 증가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특목고 남

학생 학업중단을 추이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됨



[그림 2-3] 충남 학교유형별 여학생 학업중단율 추이(2020~2024)

자료 및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자료 가운데 일부를 재가공함



[그림 2-4] 충남 학교유형별 남학생 학업중단율 추이(2020~2024)

자료 및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자료 가운데 일부를 재가공함

나) 학업 중단 사유 추이

- 연도별 초·중학생 학업중단 사유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초등학교 학업중단사유 구분 가운데 유예와 면제 사유 중 면제에 해당하는 237명으로 유예 174명보다 더 많게 나타나고 이러한 양상은 2023년도까지 이어져 면제 265명, 유예 193명으로 면제사유가 더 높고 시계열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초등학교생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확인됨
- 학업중단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생 사유와 달리 2021년 기준 유예가 189명으로 면제 39명보다 더 많은 사유로 확인되며, 2023년도까지 이러한 양상으로 확인되어 유예가 285명 면제 71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충남 초중학교 학업 중단사유 추이(2021~2024)

연도	학교	유예					면제			
		유예 계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기타	면제 계	질병	해외출국	기타
2021	초등학교	174	2	2	41	129	237	2	192	43
	중학교	189	12	1	32	144	39	0	24	15
	고등학교	-	-	-	-	-	-	-	-	-
	(일반고)	-	-	-	-	-	-	-	-	-
	(특목고)	-	-	-	-	-	-	-	-	-
	(특성화고)	-	-	-	-	-	-	-	-	-
	(자율고)	-	-	-	-	-	-	-	-	-
	소계	363	14	3	73	273	276	2	216	58
2022	초등학교	154	2	-	45	107	274	0	229	45
	중학교	205	13	-	24	168	79	0	56	23
	고등학교	-	-	-	-	-	-	-	-	-
	(일반고)	-	-	-	-	-	-	-	-	-
	(특목고)	-	-	-	-	-	-	-	-	-
	(특성화고)	-	-	-	-	-	-	-	-	-
	(자율고)	-	-	-	-	-	-	-	-	-
	소계	359	15	0	69	275	353	0	285	68
2023	초등학교	193	1	0	76	116	265	4	211	50
	중학교	285	15	4	55	211	71	-	50	21
	고등학교	-	-	-	-	-	-	-	-	-
	(일반고)	-	-	-	-	-	-	-	-	-
	(특목고)	-	-	-	-	-	-	-	-	-
	(특성화고)	-	-	-	-	-	-	-	-	-
	(자율고)	-	-	-	-	-	-	-	-	-
	소계	478	16	4	131	327	336	4	261	71

연도	학교	유예				면제			
		유예 계	질병	기타	대안교육	면제 계	질병	해외출국	기타
2024	초등학교	102	8	40	54	362	1	309	52
	중학교	116	18	55	43	17	61	-	41
	고등학교	-	-	-	-	-	-	-	-
	(일반고)	-	-	-	-	-	-	-	-
	(특목고)	-	-	-	-	-	-	-	-
	(특성화고)	-	-	-	-	-	-	-	-
	(자율고)	-	-	-	-	-	-	-	-
	소계	218	26	95	97	39	226	1	185

자료 및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을 및 중단사유. 자료 가운데 일부를 재가공함

주: 1) 고등학교의 유예 및 면제자는 세부 사유가 없음

2)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 / 전년도 학생수 × 100

3) 학업중단자 조사기준일: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말/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말/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말

4) 전년도 학생수 기준일 : 2020년~2023년 매년 4월 1일

5) 고등학교 세부 유형이 1년 사이 변경된 경우 학업중단을 사용 시 유의하여야 함

- 전년도 학생이 없는데 학업중단자가 있는 경우 발생

- 전년도 학생보다 학업중단자가 더 많은 경우 발생

- 전년도 학생이 있는데 학업중단자가 없는 경우 발생

6) 2024년도의 유형 구분이 전년도까지의 유형구분과 다소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해석상에 유의가 필요함

○ 고등학생 학업중단 사유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고등학생 학업중단사유 구분 가운데 자퇴와 퇴학 사유 중 주요한 중단사유가 자퇴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744명으로 퇴학 22명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상은 2023년도까지 이어져 자퇴 1,137명, 퇴학 22명으로 전반적으로 자퇴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확인됨

- 한편, 2024년도의 중단사유 구분이 전년도와 다소 상이한데, 주요한 학업중단사유 자퇴 588명, 퇴학 383명으로 나타나며, 주로 일반고등학교에서의 자퇴학생이 395명, 특성화고 161명, 특목고 20명, 자율고 12명 순으로 자퇴하는 학생분포가 높게 나타남

[표 2-7] 충남 고등학교 학업 중단사유 추이(2021~2024)

연도	학교	자퇴										퇴학			제적
		자퇴 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퇴학 계	학교 폭력 위원회 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부적응 계	학업 관련	대인 관계	학교 규칙	기타						
2021	고등학교	744	34	1	182	59	8	14	101	36	491	22	6	16	-
	(일반고)	387	21	0	86	32	5	4	45	23	257	7	4	3	-
	(특목고)	36	3	0	3	0	0	0	3	1	29	1	1	0	-
	(특성화고)	280	9	1	84	23	3	10	48	2	184	13	1	12	-
	(자율고)	41	1	0	9	4	0	0	5	10	21	1	0	1	-
	소계	744	34	1	182	59	8	14	101	36	491	22	6	16	0
2022	고등학교	931	52	3	286	123	19	14	130	48	542	35	5	30	-
	(일반고)	501	40	0	151	75	13	6	57	35	275	12	3	9	-
	(특목고)	50	4	0	12	2	0	0	10	1	33	1	0	1	-
	(특성화고)	355	8	3	115	45	6	8	56	5	224	21	2	19	-
	(자율고)	25	0	0	8	1	0	0	7	7	10	1	0	1	-
	소계	931	52	3	286	123	19	14	130	48	542	35	5	30	0
2023	고등학교	1,137	64	6	375	101	17	11	246	60	632	22	7	15	-
	(일반고)	640	54	4	195	61	8	11	115	47	340	6	2	4	-
	(특목고)	50	3	0	14	0	1	0	13	2	31	2	0	2	-
	(특성화고)	416	6	2	158	37	8	0	113	4	246	14	5	9	-
	(자율고)	31	1	0	8	3	0	0	5	7	15	0	0	0	-
	소계	1,137	64	6	375	101	17	11	246	60	632	22	7	15	0
연도	학교	자퇴						퇴학			장기결석(초·중·고)			제적	
		자퇴 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 계	폭력 위원회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장기 결석 계 (고등)	미인정 결석 (초·중)	해외출국 (초·중)		
2024	초등학교	-	0	0	0	0	0	0	0	0	70	34	36	-	
	중학교	-	0	0	0	0	0	0	0	0	-	-	-	-	
	고등학교	-	588	39	2	127	37	383	2	1	-	-	-	1	
	(일반고)	-	395	28	0	82	32	253	0	0	-	-	-	-	
	(특목고)	-	20	4	0	0	2	14	0	0	-	-	-	-	
	(특성화고)	-	161	7	2	40	3	109	2	1	-	-	-	1	
	(자율고)	-	12	0	0	5	0	7	0	0	-	-	-	-	
	소계	0	588	39	2	127	37	383	2	1	0	0	0	1	

자료 및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자료 가운데 일부를 재가공함

주: 1) 고등학교의 유예 및 면제자는 세부 사유가 없음

2)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 / 전년도 학생수 × 100

3) 학업중단자 조사기준일: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말/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말/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말

4) 전년도 학생수 기준일: 2020년~2023년 매년 4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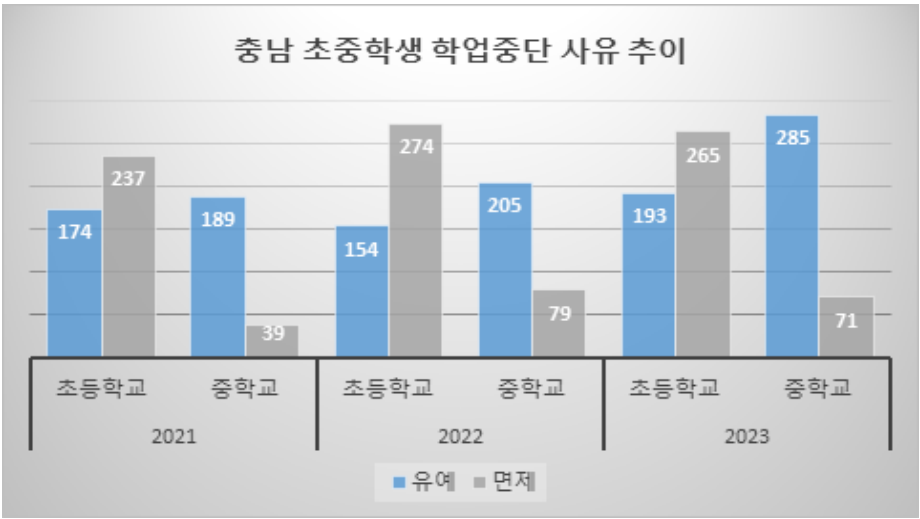
5) 고등학교 세부 유형이 1년 사이 변경된 경우 학업중단률 사용 시 유의하여야 함

- 전년도 학생이 없는데 학업중단자가 있는 경우 발생

- 전년도 학생보다 학업중단자가 더 많은 경우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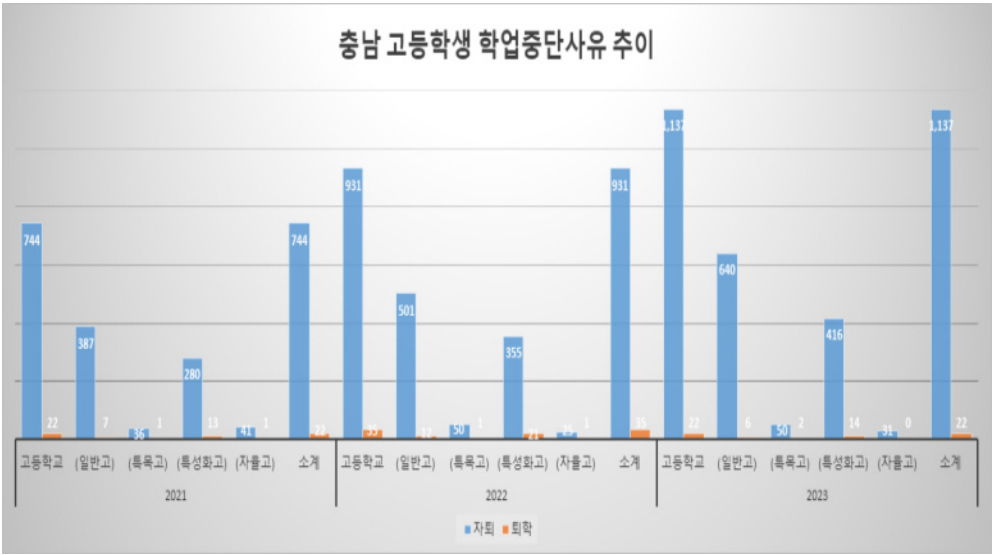
- 전년도 학생이 있는데 학업중단자가 없는 경우 발생

6) 2024년도의 유형 구분이 전년도까지의 유형구분과 다소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해석상에 유의가 필요함



[그림 2-5] 충남 초중학생 학업중단사유 추이

자료 및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자료 가운데 일부를 재가공함



[그림 2-6] 충남 고등학생 학업중단사유 추이

자료 및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자료 가운데 일부를 재가공함

2. 충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 현황

- 본 장에서는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우선 중앙단위에서 시행되는 중장기 기본 계획 및 정책사업, 그리고 충청남도의 정책사업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내 학교 밖 청소년 정책⁹⁾

-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48번째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내용이 담겨 있음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진로·직업 교육훈련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방향임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과제 내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범주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지향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을 통해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정보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함
 - 재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즉시 해당 정보가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 모니터링을 강화함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지원을 확대함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구함
 - 공적 교육체계를 벗어났으나 대학진학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인정·반영하는 대학은 단계적으로 확대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일경험을 지원하여 진로발달을 적극 지원함
-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도록 교통비 등 활동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함
 -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을 확충함

9)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및 관계부처합동(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함

2) 중앙정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¹⁰⁾

가) 성평등가족부¹¹⁾

- 학업중단율이 줄지 않는 가운데 개인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사회적 손실이 부각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와 함께 2013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수립함.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이 범정부 수준에서 시행됨(김희진, 백혜정, 2020)
- 학업중단 사전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으로 이루어진 5대 중점과제와 총 18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수립됨

[표 2-8]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

사업명		주요 대상	주요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학습지원, 진로교육, 취업지원 등 개인 맞춤형 지원
내일이름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특화 프로그램(학력취득, 자격증 준비 등)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상담,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청소년 자활 및 재할지원 등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중·고위험군 청소년 1:1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자원 발굴 및 연계서비스 제공
청소년 복지 시설	청소년쉼터 운영	가정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최대 36개월 한도 내 지급)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자립준비 청소년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고 감호위탁 된 청소년	부모를 대신한 훈육 및 생활지원 사회서비스 지원(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상담·선도·건강육성활동 및 학업·진로 지원 등)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지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위기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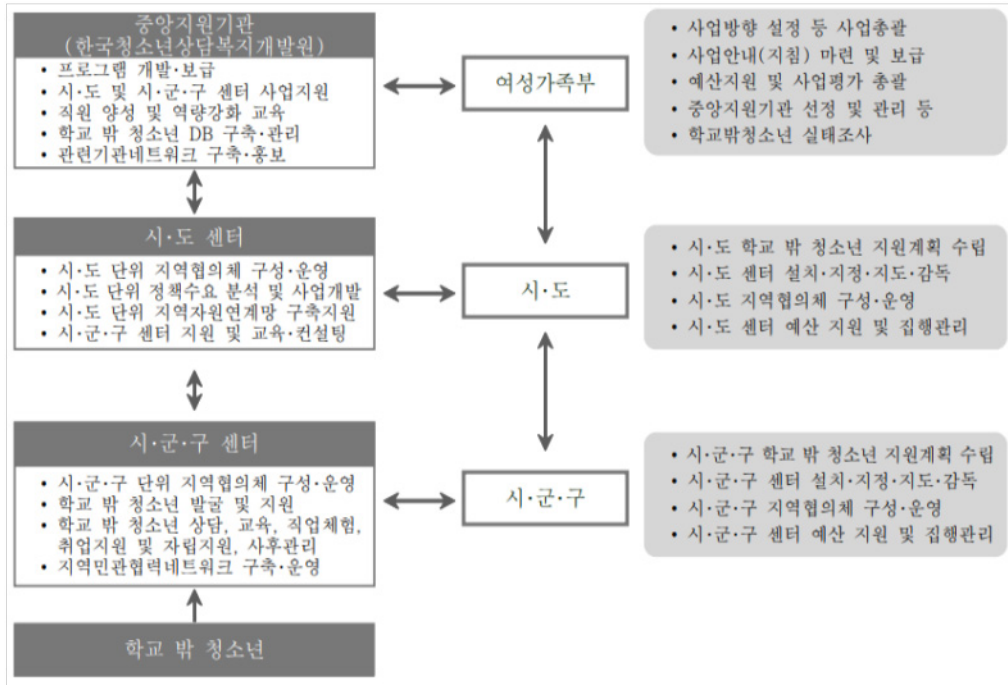
자료 및 출처: 김희진, 백혜정(2020), p.19-20 일부 수정

10)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는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

11) 성평등가족부 주요 지원 정책은 「김희진, 백혜정(202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성평등가족부(2023),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II)」를 참고하여 작성함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성평등가족부의 총괄 하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중앙 지원기관을 담당함. 광역자치단체는 시·도 센터의,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센터의 설치부터 감독, 예산 지원 및 집행관리를 담당함



[그림 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체계

자료 및 출처: 성평등가족부(2023),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II), p.57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교육부(교육청), 경찰서, 법무부(검찰청 포함), 가정법원(지방법원 포함)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를 강화함
 - 교육청의 미취학·장기결석 관리 전담기구 운영 시 협조요청 대상기관이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업중단 발생 시 즉시 연계를 추진함
- 학교 밖 청소년 개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지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시행, 활동 지원, 건강검진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 직업교육훈련 연계를 제공하기도 함

(2) 내일이룸학교

- 한국생산성본부가 중앙운영기관으로 기능하는 가운데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검정고시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취업지원 과정 등이 운영됨. 2023년 7월 현재 13개 직업훈련 과정이 운영 중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음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223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 중임. 위기지원 강화 및 상담복지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표 3-3>과 같은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함

[표 2-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및 역할

주요 기능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할 지원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지역 특성화 사업(예시)	구조 영역: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비행 영역: 청소년폭력예방 및 가해 청소년 지원, 소년보호 처분자 지원 후기 청소년 영역: 군장병, 대학생 상담센터 연계, 무업청소년 발굴·지원(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로·인성영역: 진로상담 및 지도, 직업체험, 인성교육 계층, 지역특성 영역: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청소년, 군인 자녀 등 정책사업 영역: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및 출처: 성평등가족부(2023),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II), p.68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성평등가족부, 2023)
-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가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적 구성 기관으로 기능함

(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YC: Youth Companion)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지지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공공기관 등 각종 경로를 통하여 청소년안전망에 유입된 위기(징후) 청소년, 자살(징후) 또는 범죄 탈선 등으로 인한 소년범(보호관찰청소년 포함), 약물·인터넷 중독,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유형의 중·고위험군 청소년 발굴 강화를 지향함(성평등가족부, 2023)
- 청소년동반자와 연계된 위기청소년에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종합적 정보와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며 특히 가족갈등·가정해체 등을 겪은 쉼터 퇴소 청소년, 자살·자해 청소년 등은 동반자 연계를 통해 밀착 관리·지원을 제공함(성평등가족부, 2023)

(6) 청소년 복지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서 정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연계성이 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표 2-10] 청소년 복지시설 관련 사업

청소년 쉼터	운영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발견하여 범죄 및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함 거리배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일시보호와 거리상담지원 및 단기쉼터 연계 등 보호지원서비스를 24시간~7일 간 제공하는 일시쉼터, 가정·사회복귀 지원 및 유관시설을 연계하며 3개월 이내(3개월씩 2회 한함)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쉼터,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3년 이내(최장 4년)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과거 3년 간 2년 이상 청소년쉼터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 퇴소한 자 중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의 퇴소 후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매월 40만원, 최대 36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함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기간 쉼터 등 시설의 지원을 받았으나 추가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기반으로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를 지원함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여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

자료 및 출처: 성평등가족부(2023).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 (II). p. 191, 376, 403, 405, 440.

(7)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함(성평등가족부, 2023)

[표 2-11]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생활지원	일상적 의식주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월 65만원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건강검진 및 치료 등 위한 서비스	연 200만원
학업지원	학업 지속에 필요한 교육서비스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검정고시, 학원비 월 30만원
자립지원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월 36만원
법률지원	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연 350만원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월 30만원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및 서비스	월 30만원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 참조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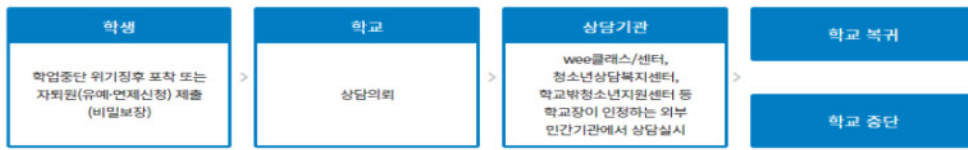
자료 및 출처: 김희진, 백혜정(202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3. 성평등가족부 (2023).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 (II). p. 517.

2) 교육부

(1) 학업중단숙려제¹²⁾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상담을 받으며 일정기간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함
- 시·도교육청별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운영함

1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101.asp>) 및 교육부·성평등가족부(2013),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p.7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2-8]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절차

자료 및 출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101.asp>)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무단결석 학생(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초·중·고교생임. 연락두절 등으로 숙려제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치료 또는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및 학교 폭력 등으로 퇴학한 경우 등은 숙려제 대상에서 제외함

(2)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 2017년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및 제주교육청 6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1년간 시범 운영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022년 기준으로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함(한국교육개발원, 2022)
- 초·중학교에 미취학하였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정원으로 학적이 관리되는 사람으로 초등학교 학력은 7세~24세 이하, 중학교 학력은 13세~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인정됨. 학력인정 대상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학력인정평가를 수행함(김희진, 백혜정, 2020)
- 학력인정 대상 프로그램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운영기관 등은 <표 3-6>과 같음

(3)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 ‘친구랑’은 지하철역 주변, 상권 밀집지역 등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업중단 학생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돌봄, 상담, 어울림 기회를 갖도록 구성된 카페 형식의 공간으로 운영됨. 2014년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계획서를 공모하여 서울, 대구, 강원을 선정하여 시작함(교육부 보도자료, 2014.5.28.)
- 서울시는 관악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내 평생학습관에 거점공간을 두고 운영 중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 검정고시 및 기초

학습 멘토링,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정서지원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 서울시교육청의 '친구랑' 사업은 2019년 3월부터 각종 프로그램 2개월 이상 주 2일 출석 및 70% 이상 출석율을 충족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참여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임

3)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 충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사업의 근거로 두고 있으며 특히 도 및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 충청남도과 15개 시·군 및 충청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주요 사업과 도 및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2022년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1) 충청남도 광역 및 기초지자체 조례 현황

- 충청남도는 2014년 1월 6일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 충남도 내 15개 모든 시·군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명시함

[표 2-12]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 현황

시·군	조례명	제정일
천안시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6.22
공주시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2021.09.01
보령시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7.10
아산시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10.5
서산시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20.12.10
논산시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1.11.
계룡시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2020.11.10
당진시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21.10.29
금산군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8.8.30
부여군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8.12.14
서천군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2015.12.10
청양군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10.13.
홍성군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8.16.
예산군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9.30.
태안군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5.31.

자료 및 출처: 자치법규 시스템(<https://www.elis.go.kr/>)

(2) 충청남도 광역·기초지자체 및 교육청 주요 지원 사업

- 충청남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크게 진로 및 생활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진로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및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공간 운영’이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충남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행함
 - 2023년 진로·진학 박람회는 8월 23일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현장방문형 박람회 부스운영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24학년도 대학입시 전략 특강, (사전 신청자의 경우)1:1 입시 컨설팅, 진로상담 검사, 진로직업 특강, 대학별 입시요강 및 장학제도 안내가 이루어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 체험공간은 충남 거점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공간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며 역시 충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대행함. 센터는 하위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직업체험 및 취업·창업, 진로상담,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등을 지원함
- 충남도의 대표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인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는 2019년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학업중단 이후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학교 밖 청소년을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유입하고자 도입함



[그림 2-9]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비전

자료 및 출처: 충남사회서비스원, 2023, 세상소통카드 운영 매뉴얼 교육 자료집, p.4

- ‘19년 최초 실시 단계에서는 9~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5만원씩 6개월 티머니 카드로 지원되었으며 ‘21년에는 문화체험비, 진로개발비, 간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최대 12개월 지원하며 지원 연령도 19세까지 확대됨. ’23년 부터는 시·군 예산확보를 통해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인원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 그 외에 도 또는 시·군이 중앙부처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함

[표 2-13] 충청남도 지자체 및 교육청 주요 지원 사업

구분	사업 영역	사업명
도	진로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공간 운영
도 및 시·군	생활지원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도 또는 시·군 및 중앙부처(성평등가족부) 연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성평등가족부)	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관련	청소년 쉼터 운영,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도 및 교육청 연계	저연령 청소년 학력인정 프로그램 지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3)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 충남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조사를 결과로 주요 현황조사 내용은 조직구성 체계, 학교 밖 청소년 이용 현황(전체 이용 학교 밖 청소년 수) 및 학업중단 사유, 해당 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봄
 - '22년도 현황에서는 시 단위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총 5개소가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모든 센터에서 센터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과 겸임하고 있었으며 1개소를 제외하면 모두 1인의 팀장과 2인의 팀원 또는 3인의 팀원으로 구성되었고 E센터는 팀장1인 및 팀원 3인으로 조직이 구성됨. 성평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지정 기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군센터는 담당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되 가형은 4명 이상, 나형은 3명 이상, 다형은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기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되 그 이상의 인력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에 참여한 시 단위 내 5개소의 '22년 이용 인원은 104~314명이었음. '학습문제 및 학교부적응' 또는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가 학업중단의 주요 사유로 나타남. 학교 밖 청소년 담당자가 판단한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학업과 관련한 검정고시 준비, 진로와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외부활동 또는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및 급식지원으로 나타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및 외부활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안교육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 2025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일반 현황¹³⁾의 경우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거점센터 1개소와 시·군별 15개소로 설립되어 있음. 천안시를 제외한 거점센터 1개소와 시·군별 14개소 기관 일반 현황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2-14] 기관 일반 현황

구분	운영형태	운영기관유형	주무관청 (등록관청)	개소일	경영감사	경영공개
충청남도 (거점센터)	설치	-	충청남도	2015. 05	자체감사	외부공개
공주시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공주시청	2015. 04	자체감사	자체공개
보령시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보령시청	2015. 06	외부감사	외부공개
아산시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아산시청	2017. 01	자체감사	자체공개
서산시	지정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재단	서산시청	2015. 06	외부감사	외부공개
논산시	설치	-	논산시청	2015. 05	외부감사	외부공개
계룡시	지정	종교단체 및 종교 법인	계룡시청	2015. 03	미 실시	비공개
당진시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당진시청	2022. 02	외부감사	외부공개
금산군	지정	학교법인	금산군청	2015. 04	미 실시	비공개
부여군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부여군청	2019. 01	외부감사	외부공개
서천군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서천군청	1994. 01	외부감사	외부공개
청양군	설치	-	청양군청	2016. 03	미 실시	자체공개
홍성군	지정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재단	홍성군청	2014. 08	외부감사	외부공개
예산군	설치	-	예산군청	2015. 05	미 실시	비공개
태안군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태안군청	1996. 06	자체감사	자체공개

- 2024년 기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의 경우¹⁴⁾ 총 2,079명으로 아산시 327명, 금산군 316명, 서산시 282명 등 학교밖청소년이 기관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13) 기관별 취합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내용임

14) 기관별 취합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내용임

[표 2-15]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분	실 인원(2024년 기준)
전체	2,079
공주시	120
보령시	165
아산시	327
서산시	282
논산시	154
계룡시	80
당진시	229
금산군	316
부여군	61
서천군	48
청양군	32
홍성군	108
예산군	81
태안군	69

○ 공간 현황

- 충청남도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기관별 공간현황의 경우 임대 8개소, 자가 7개소로 나타남. 공간현황의 경우 임대 8개소(거점센터,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자가 7개소(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로 나타남. 전용공간 확보의 경우 독립된 기관 2개소, 타 기관 내 설치 6개소, 타 기관과 공간 공유 7개소로 나타남

[표 2-16] 공간 현황

구분	총 면적(㎡)	공간 소유 여부	임대 현황	전용공간 확보 여부
충청남도(거점센터)	462.0	임대	월세	독립된 기관
공주시	152.0	임대	지자체 건물	독립된 기관
보령시	268.0	자가	-	타 기관 내 설치
아산시	478.0	임대	시 소유 무상임대	타 기관 내 설치
서산시	174.1	자가	-	타 기관 내 설치
논산시	22.0	자가	-	타 기관과 공간 공유
구분	총 면적(㎡)	공간 소유 여부	임대 현황	전용공간 확보 여부
계룡시	279.0	임대	지자체 건물	타 기관과 공간 공유
당진시	98.6	자가	-	타 기관 내 설치
금산군	127.0	자가	-	타 기관과 공간 공유
부여군	205.4	임대	지자체 건물	타 기관과 공간 공유
서천군	204.6	임대	월세	타 기관과 공간 공유
청양군	49.5	자가	-	타 기관 내 설치
홍성군	153.9	임대	무상임대	타 기관 내 설치
예산군	70.0	자가	-	타 기관과 공간 공유
태안군	203.0	임대	청소년수련관 내 기관 있음	타 기관과 공간 공유

○ 상근 직원 현황

- 충청남도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의 경우 총 53명이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 92.5%, 남성 7.5%, 20대 15.1%, 30대 35.8%, 40대 22.6%, 50대 이상 26.4%로 나타나며, 채용 형태의 경우 정규직 49.1%, 무기계약직 24.5%, 계약직 26.4%로 나타남

[표 2-17] 상근 직원 현황(1)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직위			성별		연령				채용형태		
		센터장	팀장	팀원	여	남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전체	(53)	20.8	18.9	60.4	92.5	7.5	15.1	35.8	22.6	26.4	49.1	24.5	26.4
충청남도 (거점센터)	(10)	-	20.0	80.0	100.0	-	10.0	50.0	30.0	10.0	60.0	20.0	20.0
공주시	(5)	20.0	20.0	60.0	100.0	-	20.0	20.0	40.0	20.0	-	60.0	40.0
보령시	(3)	33.3	-	66.7	100.0	-	66.7	-	33.3	-	-	100.0	-
아산시	(4)	-	25.0	75.0	75.0	25.0	25.0	25.0	50.0	-	100.0	-	-
서산시	(3)	33.3	33.3	33.3	100.0	-	-	33.3	-	66.7	100.0	-	-
논산시	(4)	25.0	25.0	50.0	100.0	-	-	75.0	-	25.0	100.0	-	-
계룡시	(3)	33.3	-	66.7	66.7	33.3	33.3	33.3	33.3	-	-	-	100.0
당진시	(4)	25.0	25.0	50.0	75.0	25.0	25.0	50.0	-	25.0	75.0	-	25.0
금산군	(3)	33.3	-	66.7	100.0	-	33.3	-	-	66.7	-	-	100.0
부여군	(2)	-	-	100.0	100.0	-	-	50.0	-	50.0	-	100.0	-
서천군	(2)	-	50.0	50.0	100.0	-	-	50.0	-	50.0	100.0	-	-
청양군	(2)	50.0	-	50.0	100.0	-	-	50.0	-	50.0	50.0	-	50.0
홍성군	(3)	33.3	33.3	33.3	66.7	33.3	-	33.3	66.7	-	100.0	-	-
예산군	(3)	33.3	33.3	33.3	100.0	-	-	-	33.3	66.7	-	66.7	33.3
태안군	(2)	50.0	-	50.0	100.0	-	-	50.0	-	50.0	-	50.0	50.0

- 충청남도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의 상근직원 53명 학력의 경우 대졸 47.2%, 석사 43.4%, 박사 9.4%로 나타나며, 자격증 보유 현황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52.8%, 청소년상담사 47.2%, 사회복지사 49.1%, 교사 3.8%로 나타남

[표 2-18] 상근 직원 현황(2)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최종학력				자격1)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기타 자격증
전체	(53)	-	47.2	43.4	9.4	52.8	47.2	49.1	3.8	20.8
충청남도 (거점센터)	(10)	-	30.0	70.0	-	30.0	50.0	10.0	-	30.0
공주시	(5)	-	60.0	20.0	20.0	60.0	60.0	20.0	20.0	20.0
보령시	(3)	-	66.7	33.3	-	66.7	100.0	33.3	-	-
아산시	(4)	-	75.0	25.0	-	25.0	50.0	75.0	-	-
서산시	(3)	-	33.3	33.3	33.3	100.0	33.3	33.3	-	-
논산시	(4)	-	50.0	25.0	25.0	75.0	25.0	25.0	-	-
계룡시	(3)	-	66.7	-	33.3	66.7	33.3	66.7	-	33.3
당진시	(4)	-	50.0	50.0	-	25.0	50.0	75.0	-	-
금산군	(3)	-	33.3	33.3	33.3	33.3	66.7	66.7	33.3	-
부여군	(2)	-	-	100.0	-	100.0	50.0	100.0	-	50.0
서천군	(2)	-	100.0	-	-	-	-	100.0	-	-
청양군	(2)	-	50.0	50.0	-	100.0	-	50.0	-	50.0
홍성군	(3)	-	66.7	33.3	-	100.0	66.7	66.7	-	66.7
예산군	(3)	-	-	100.0	-	33.3	33.3	66.7	-	33.3
태안군	(2)	-	50.0	50.0	-	50.0	50.0	100.0	-	50.0

1) 복수 응답으로 합이 100% 이상 나타날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주요 특성별(학업 중단 사유) 센터 이용 인원

- 2024년 기준 충청남도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1,780명의 학업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습문제가 4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378명), 심리·정서적 불안정(298명)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시군단위 센터별 이용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공주시 130명, 보령시 165명, 아산시 318명, 서산시 270명, 논산시 154명, 계룡시 80명, 금산군 316명, 부여군 61명, 서천군 17명, 청양군 11명, 홍성군 108명, 예산군 81명, 태안군 69명으로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기관별 이용인원은 실제 이용 인원 합계와 다를 수 있음. 구체적인 센터 이용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습문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가 주요한 학업 중단 사유로 나타남
- 시군 단위 학업중단 주요 사유를 보면, 공주시(1.학습문제,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보령시(1.학습문제, 2.심리정서적 불안정), 아산시(1.학습문제,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서산시(1.심리정서적 불안정,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논산시(1.학습문제, 2.심리정서적 불안정), 금산군

(1.대학입시전략,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부여군(1.학습문제, 2.심리정서적 불안정·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서천군(1.가족문제·학습문제,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청양군(1.학습문제, 2.경제적 문제·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홍성군(1.심리정서적 불안정,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예산군(1.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2.행동문제), 태안군(1.학습문제, 2.심리정서적 불안정)순으로 확인됨

[표 2-19] 학교 밖 청소년 주요 특성별(학업 중단 사유) 센터 이용 인원

(단위 : 명)

구분	전체	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	학습 문제	심리·정서적 불안정	행동 문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대학 입시 전략	결혼/임신/출산	기타
전체	1,780	48	25	472	298	88	378	218	2	251
충청남도 (거점센터)	-	-	-	-	-	-	-	-	-	-
공주시	130	4	2	74	10	-	30	5	-	5
보령시	165	5	-	50	21	-	10	5	2	72
아산시	318	8	7	104	27	34	96	-	-	42
서산시	270	10	10	50	100	20	80	-	-	
논산시	154	5	-	69	50	0	30	-	-	
계룡시	80	-	-	-	-	-	-	-	-	80
당진시	-	-	-	-	-	-	-	-	-	-
금산군	316	-	-	30	16		70	200	-	-
부여군	61	5	-	19	6	3	6	3	-	19
서천군	17	5	1	5	3	-	3	-	-	-
청양군	11	-	2	7	-	-	2	-	-	-
홍성군	108	2	-	11	40	10	20	5	-	20
예산군	81	4	3	3	15	21	22	-	-	13
태안군	69	-	-	50	10	-	9	-	-	-

*출처: 정보망 변경으로 대략적인 인원로 응답받아, 기관 이용 실인원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3. 소결

- 충청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의 학업 복귀, 직업 역량 강화,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통한 상담·교육·직업체험, 학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연계, 인턴십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이 있음. 또한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사업, 검정고시 지원,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음
- 사업 운영은 지역 특성과 청소년의 수요에 맞게 다양화되어 있으며, 충남 내 15개 시군 모두에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지역 간 사업 편차, 전문 인력 부족, 청소년 접근성 한계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정책의 지속성과 통합적 접근 필요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업보다는 복지, 교육,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접근성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측면에서, 충남 전역에 센터가 존재하나 지역 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교통 여건, 정보 접근성,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이 청소년 친화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실무자의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함. 현재 센터의 인력 구성은 제한적이며, 상담·진로·복지 전 영역에 걸친 전문 인력 확충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중요함.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듣고 반영하는 구조가 강화되어야 하며 청소년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와 평가 시스템 마련이 선제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함
- 한편, 사례관리 강화 및 자립 연계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사업이 단기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시스템이 촘촘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자립을 위한 사회적 협력망 구축이 필요함. 특히 지역 내 관련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 간 연계를 통한 실질적 자립 기반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학업 중단 사유가 학습문제, 자기주도적 진로 선택 욕구(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심리·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교육 이탈이 아닌 다층적인 삶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배경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개입의 방향성과 주요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한편, 지역별 이질성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때, 시군별로 학업 중단의 주요 사유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컨대, 금산군은 대학입시 전략, 서천군은 가족문제, 예산군은 행동문제 등

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 복지자원, 문화적 맥락 등에 따라 청소년의 욕구가 다르며 지역 단위로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수적임을 파악할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권리 기반적 접근 강화 측면에서 학교를 중단한 이유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청소년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결정권과 성장권을 보장받아야 할 주체로서 관련 지원정책이 단순히 복지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의 삶의 맥락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사업으로써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시군 센터별 지원정책 기반의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구체화하여야 함. 예를 들어, 아산시(318명), 서산시(270명), 금산군(316명) 등 비교적 많은 청소년이 센터를 이용한 반면, 청양군(11명), 서천군(17명) 등은 접근성이나 인지도, 수요 반영의 한계가 나타남. 이에 따라 지역별 센터 운영의 접근성, 실효성, 서비스 다양성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학업 중단의 사유가 교육뿐 아니라 정신건강, 가족, 경제, 진로 등 다양한 영역과 교차하는 만큼,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체계와 거버넌스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다부처·다기관 연계, 교육청, 지자체, 민간기관 간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제3장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문항별 조사 결과
4.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충청남도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실태 검토와 정책수요 파악을 통한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정책대상 맞춤형 정책 방안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반적 정책수요 및 지원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실증적 근거 기초자료 수집·확보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 본 조사의 세부 설계는 다음과 같이,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및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170명, 센터 16개소에 해당됨
 -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학교를 중단 한 이후의 생활실태, 진로 및 직업 탐색, 신체 심리 건강과 가치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기관 일반현황, 운영 현황, 기관 운영 어려운 측면과 정책적 요구 등으로 세부 항목을 구성함

[표 3-1] 조사 설계

1. 조사 지역 및 대상	☑ 충청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 및 관련 센터 종사자
2.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웹) 조사
3. 회수 표본 수	☑ 청소년 170명, 센터 16개소
4. 조사 기간	☑ 2025년 4월 15일(화) ~ 2025년 5월 16일(금)

3) 조사 내용

[표 3-2] 조사 내용

영역		주요 조사내용
청소년	응답자 특성	- 성별, 출생년월, 거주지역, 학업중단학교 지역규모 - 소속 기관 구분, 가정의 경제적 수준, 현재 함께 사는 사람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학교 중단 시기, 학교 중단 학년, 학교 중단 기간, 학교 중단 이유, 학교 중단 전 고민을 의논한 사람, 학교 중단 당시 성적, 학교 중단 당시 계획,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여부, 학교 중단 당시 꿈드림센터 개인정보제공 여부, 개인정보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유
	학교를 중단 한 이후의 생활 실태	학교 중단 후회, 가장 후회한 것, 중단 이후 가장 좋은 것, 학교 중단 이후 기관 및 서비스 처음 이용한 시기, 이용하지 않은 기간 생활, 이용하지 않은 기간 외출 빈도,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 수도권으로 이주 계획, 이주하고 싶은 이유
	진로 및 직업 탐색	현재 상황,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희망직업여부, 희망직업, 희망직업 직무파악,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 희망직업을 위한 실천 계획, 진로결정 시기, 진로결정 시 영향을 준 대상 또는 방법, 희망직업이 없는 이유,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신체·심리 건강과 가치관	최근 심리 상태, 평소·주말 자는시간 및 일어나는 시간, 식사 빈도, 운동 및 활동 여부, 운동 및 활동 시간, 심리상담전문가 상담 여부, 최근 1년간 자살 고민 여부, 최근 1년간 자해 여부, 자신 및 자신의 생각 상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 관련 시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 학습지원, 진로직업 및 취업 지원, 건강 및 상담 등 복지지원, 경제적 지원, 예체능 및 모임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센터	기관 일반 현황	기관명, 운영형태, 운영기관유형, 주무관청, 개소일, 경영감사, 경영공개
	기관 운영 현황	- 학교 밖 청소년 현황(실인원), 기관 예산 현황(기관 세입현황, 기관 지출 현황), 공간 현황, 상근 직원 현황 - 기관을 이용한 청소년 분류
	기관운영 어려운 점 및 정책적 요구 사항	기관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 가장 유익했던 서비스 및 프로그램 명

4) 응답자 현황

[표 3-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70)	100.0
성별	남성	(91)	53.5
	여성	(79)	46.5
연령	만 20세	(11)	6.5
	만 19세	(22)	12.9
	만 18세	(57)	33.5
	만 17세	(69)	40.6
	만 16세	(7)	4.1
	만 15세	(4)	2.4
거주지역	천안시	(20)	11.8
	공주시	(10)	5.9
	보령시	(10)	5.9
	아산시	(20)	11.8
	서산시	(10)	5.9
	논산시	(10)	5.9
	계룡시	(10)	5.9
	당진시	(10)	5.9
	금산군	(10)	5.9
	부여군	(10)	5.9
	서천군	(10)	5.9
	청양군	(10)	5.9
	홍성군	(10)	5.9
	예산군	(10)	5.9
	태안군	(10)	5.9
학업중단학교 지역 규모	시	(119)	70.0
	군	(51)	30.0
소속 기관 구분	꿈드림	(124)	72.9
	청소년 쉼터	(42)	24.7
	둘 다	(2)	1.2
	기타	(2)	1.2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족	(41)	24.1
	보통	(77)	45.3
	충분	(52)	30.6

2. 주요 조사 결과

1)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 학업중단과 관련한 일반사항에서, ‘가장 최근 학교를 중단한 시기’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학교 밖 청소년 170명 중 59.4%가 ‘고등학교 때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졸업 이후 진학하지 않음(24.7%)’,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하지 않음(11.2%)’ 순으로 중단 시기가 절반이상이 고등학교 때 중단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를 중단한 이유로는 ‘검정고시 준비’가 13.3%로 가장 많은 중단 이유로 확인되며, ‘심리·정신적인 문제(9.6%)’, ‘내 특기를 살리려고(9.6%)’ 순으로 확인되어 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됨. 학교를 중단하기 전에 학교 중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은 주로 ‘부모님’으로 전체의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구(15.5%)’, ‘학교 선생님(15.2%)’ 순으로 학교 중단에 대한 고민 상담 대상이 확인됨. 소속기관이 꿈드림센터 124명 72.9%, 청소년쉼터 42명 24.7%로 조사대상을 확보하였으나, 대안학교의 경우 접근성 한계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음. 대안학교는 학업이나 생활, 정서적 요인 등 다양한 사유로 재학 중인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두 기관에 비해 중립적이고 편향 발생가능성이 낮은 특성 집단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안학교를 포함하여 기관별 특성 차이로 인한 편향을 완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반을 보다 균형 있게 분석가능하도록 표본 대표성을 보완하여 소속기관별 표본의 대표성과 포괄성을 강화하고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를 중단 한 이후의 생활 실태

- 학교를 중단 한 것에 후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전체의 78.2%로 절반 이상이 학교 중단을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후회한 적이 있는 경우 21.8% 가운데 후회하는 주된 이유로는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든 것(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포함)’이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험(수학 여행, 여러 활동 등)을 못하는 것(12.6%)’, ‘졸업장을 못 받는 것(12.6%)’ 순으로 나타남

[표 3-4] 학교 중단 후회

구분	예	아니오
학교를 중단 한 것에 후회한적 있다	21.8	78.2

- 학교를 중단하고 가장 좋은 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15.8%)',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된 것(12.8%)' 순으로 나타남
- 학교를 중단한 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관 및 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시기로는 학교를 중단 한 후 '3개월 미만'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를 중단하자마자 계속 이용(18.2%)', '학교를 중단 한 후 3개월 ~ 6개월 미만(17.6%)', '학교를 중단 한 후 6개월 ~ 1년 미만(17.6%)' 순으로 나타남
-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로는 '오프라인 홍보(기관의 검정고시장 홍보 활동 등)에 의한 권유'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부모님, 형제 등) 또는 친지의 권유(21.4%)', '기관(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연락이 옴(10.7%)', '이전에 재학한 학교 선생님의 권유(10.7%)' 순으로 나타남

3) 진로 및 직업 탐색

- 진로 및 직업탐색 영역에서 주로 필요한 정보로는 '진학 입시 정보', '진로체험 정보', '진로설계 정보'가 주로 필요한 정보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진로 설계와 체험, 진학 입시정보 등에 대한 주요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보들에 비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필요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로설계 및 체험, 그와 관련한 진학입시 정보 공유의 기회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표 3-5] 진로 관련 필요 정보

구분	불필요	보통	필요	5점 평균	100점 평균
자기이해 정보	7.6	28.2	64.1	3.7	67.6
진로체험 정보	8.2	33.5	58.2	3.8	70.6
직업 정보	17.6	25.3	57.1	3.6	65.6
학과 정보	20.0	20.0	60.0	3.6	64.4
진학·입시 정보	8.8	27.1	64.1	3.8	70.7
진로설계 정보	8.2	30.6	61.2	3.8	70.1
학습 방법 정보	12.9	27.1	60.0	3.7	67.8
취업 정보	10.0	33.5	56.5	3.7	67.5
창업 관련 정보	12.4	20.0	67.6	3.8	69.6

-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지에 대해 아니오가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41.8%로 확인되고 직업이 있는 경우, 희망 직업에 대한 직무파악은 알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6.1%로 나타남

[표 3-6] 희망하는 직업 여부

구분	예	아니오
희망하는 직업 여부	41.8	58.2

[표 3-7] 희망 직업 직무 파악

구분	잘 모름	보통	알고 있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희망 직업 직무 파악	2.8	21.1	76.1	3.9	72.5

- 희망하는 직업을 위한 계획으로는 ‘검정고시 준비’가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 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17.8%)’, ‘취업과 진학 병행(13.9%)’ 순으로 확인되며,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내용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 의견을 잘 들어준다’, ‘나는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희망하는 진로에 도전해본다’,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한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임. 즉, 타인의 의견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희망하는 진로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도가 높게 나타남
- 한편, 다른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비동의한 내용으로는 주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종종 물어본다’, ‘나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학교나 학과에 진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로 확인됨에 따라, 진로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취합하는데 있어서 태도의 적극성이 다소 낮으며, 중요한 진로 정보 접근성 역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도전 정신과 의지, 의견 수용도는 높은 반면, 주요한 객관적인 진로 설계 및 입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도전정신과 태도를 취하기 전에 객관적인 진로 설계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를 선제적으로 취합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진로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8]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18.2	32.4	49.4	3.5	62.2
내 장점과 단점을 나는 잘 알고 있다	17.6	38.8	43.5	3.4	60.1
나는 다양한 나의 특성(성격, 흥미, 적성 등)에 대해 알고 있다	20.0	22.4	57.6	3.5	62.8
나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능력과 지식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16.5	27.6	55.9	3.6	65.0
나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	22.9	31.2	45.9	3.4	59.3
나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학교나 학과에 진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29.4	16.5	54.1	3.4	60.9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종종 물어본다	31.8	20.6	47.6	3.3	58.4
나는 미래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본다	15.3	35.9	48.8	3.5	61.3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미래에 필요하지 찾아본다	19.4	30.6	50.0	3.4	61.0
나는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종종 점검한다	22.4	24.1	53.5	3.5	61.9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계획을 실천한다	21.8	25.9	52.4	3.4	60.7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한다	18.8	18.8	62.4	3.6	64.7
열심히 노력하면 진로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4	18.2	62.4	3.6	64.3
내 진로를 성공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4.1	38.2	47.6	3.5	62.8
나는 나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8.2	34.7	47.1	3.5	61.3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4.1	25.9	50.0	3.4	60.0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26.5	18.2	55.3	3.4	61.0
내가 몰랐던 직업 발견하면 그 직업을 알고 싶다	20.6	30.6	48.8	3.4	61.0
진로 계획 변화가 생겨도 유연한 대처	21.2	32.9	45.9	3.4	60.3
나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계획을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20.0	24.7	55.3	3.5	62.9
나는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희망하는 진로에 도전해본다	18.2	19.4	62.4	3.6	64.0
나는 직업에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희망하는 진로를 추구한다	11.8	28.2	60.0	3.7	66.6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13.5	22.9	63.5	3.7	67.1
나는 나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다	14.1	37.1	48.8	3.5	62.9

4) 신체·심리 건강과 가치관

- 최근 심리상태의 경우 ‘나는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요즘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와 같은 내용에 대해 그렇다로 긍정하는 응답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근심이나 걱정 그리고 우울정도에 대해 비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상태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 최근 심리상태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11점 평균	100점 평균
어제 나는 행복했다	16.5	17.6	65.9	7.7	66.6
어제 나는 근심 또는 걱정이 있었다	45.9	20.0	34.1	5.5	45.1
어제 나는 우울하였다	51.8	8.8	39.4	5.1	40.9
나는 요즘 나의 삶(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0.0	5.9	84.1	8.3	72.6
나는 요즘 내가하고 있는 일(공부, 아르바이트 등) 전반적으로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7.1	7.1	85.9	8.4	74.3

- 평소에 몇 시에 자고 일어나는가의 경우 평일 기준 오후 11시에 잔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오전 12시(21.8%), 오전 1시(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어나는 시간의 경우 오전 8시가 35.9%로 가장 많았고, 오전 7시(23.5%), 오전 10시(11.8%) 순으로 나타남
- 주말기준의 경우 오후 11시에 잔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고, 오전 12시(15.9%), 오전 2시(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어나는 시간의 경우 오전 9시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오전 8시(25.9%), 오전 10시(21.2%) 순으로 나타남. 하루 식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10] 하루 식사

구분	먹지 않음 (주 0회)	가끔 먹음 (주 1~2회)	가끔적 먹음 (주 3~6회)	항상 먹음 (주 7회)
아침	19.4	31.2	31.8	17.6
점심	0.6	13.5	29.4	56.5
저녁	0.6	9.4	38.8	51.2

- 사회성과 관련된 문항내용에서 자신과 일치하는 동의 정도를 살펴볼 때,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가 동의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경우 비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타인의 협력보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1] 사회성 관련 문항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4점 평균	100점 평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21.8	78.2	2.9	63.9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19.4	80.6	3.0	66.1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24.1	75.9	3.0	65.3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2	68.8	3.0	66.1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22.9	77.1	3.0	67.1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2.9	77.1	3.1	69.6

- 사회적 소외감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로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동의 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의 경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동의 정도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스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는 반면,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 사회적인 환경적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확인됨

[표 3-12] 사회적 소외감 관련 문항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4점 평균	100점 평균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60.6	39.4	2.2	41.0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48.2	51.8	2.4	47.8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56.5	43.5	2.3	43.9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54.7	45.3	2.2	40.0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68.8	31.2	2.1	36.9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42.4	57.6	2.7	56.1

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도움 받은 정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세상소통카드’, ‘건강검진’, ‘청소년증’,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한 도움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정책 대상사업의 실제 사업 수요와 만족도에 따른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13] 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 받은 정도

구분	알고 있다	이용경험 있다	도움 받은 정도			
			도움 안됨	도움 됨	4점 평균	100점 평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75.9	87.6	2.7	97.3	3.4	8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4	57.5	9.8	90.2	3.3	78.1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42.4	50.0	13.9	86.1	3.3	75.0
청소년 안전망 사업	29.4	20.0	40.0	60.0	2.8	60.0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농어촌청소년 장학사업	31.8	25.9	21.4	78.6	3.1	69.0

구분	알고 있다	이용경험 있다	도움 받은 정도			
			도움 안됨	도움 됨	4점 평균	100점 평균
청소년 센터	47.1	25.0	25.0	75.0	3.3	76.7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30.6	21.2	27.3	72.7	3.1	69.7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41.2	68.6	6.3	93.8	3.4	81.2
내일배움카드	45.9	43.6	5.9	94.1	3.6	85.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44.7	57.9	4.5	95.5	3.6	86.4
청소년증	47.1	78.8	4.8	95.2	3.4	79.4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39.4	55.2	13.5	86.5	3.3	77.5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51.2	86.2	2.7	97.3	3.6	88.0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 분야별로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먼저 '학습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다양한 교육방법(여행, 캠핑, 상담 등)을 활용한 교육 제공'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진로직업 및 취업 지원 중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17.6%로 가장 높은 정책수요가 확인됨. '건강 상담 등 복지 지원 중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이 21.3%로 가장 높으며, '경제적 지원 중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교육(활동, 직업훈련)참여 수당'이 15.8%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예체능 모임 등 지원 중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문화예술 악기, 그림, 사진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28.0%로 높은 정책수요가 나타남

3. 문항별 조사 결과¹⁵⁾

1)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 가장 최근 학교 중단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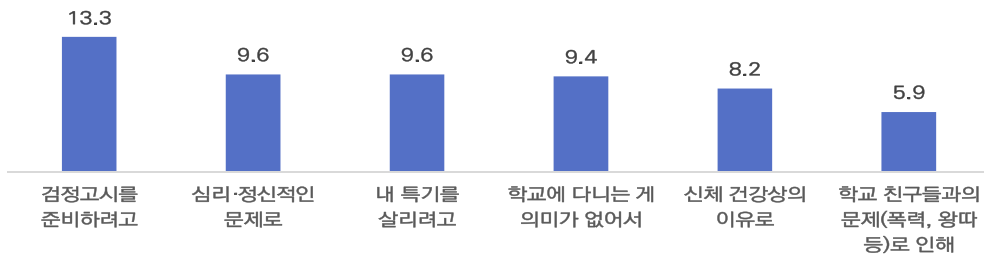
- 본 조사에 응답한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전체 170명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 학교 중단 시기'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때'가 59.4%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이후 진학하지 않음(24.7%),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하지 않음(11.2%) 순으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고등학교 때 학교를 중단한 101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중단 학년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1학년 65.3%', 2학년 28.7%, 3학년 5.9%로 나타남

15) 본문에는 주요 조사결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방대한 조사 문항별 세부 조사결과표는 [부록2]로 보고서 하단에 별도 첨부함

○ 학교를 중단 기간 및 이유

- '학교를 중단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1년 이상 ~ 2년 미만'인 30.0%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상 ~ 3년 미만(24.7%), 6개월 이상 ~ 1년 미만(21.2%) 순으로 나타남
- '학교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가 13.3%로 가장 높았으며, 심리·정신적인 문제로(9.6%), 내 특기를 살리려고(9.6%)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학업성적이 잘 안나와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학교 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등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3-1] 학교를 중단한 이유

○ 학교 중단 관련 상담 의논 대상 등

- '학교 중단 관련 상담 및 의논 대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님'이 40.1%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15.5%), 학교 선생님(15.2%)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인터넷 고민 상담(SNS 등), 형제·자매, 선·후배, 성직자(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등으로 나타남. '학교를 중단할 당시 학교 성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하위권'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하위권(22.4%), 중상위권(21.8%) 순으로 나타남. '학교 중단 당시 계획'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검정고시 준비'가 33.6%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 진학 준비(13.4%), 직업교육훈련(10.1%)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대안학교 진학,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 상담 및 체험활동, 해외 유학 등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 '학교를 중단하기 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참여하였다 20.0%, '참여하지 않았다' 80.0%로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신청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34명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이후 학교를 중단 할 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동의하였다' 79.4%, '잘 모르겠다' 20.6% 순으로 나타남. 학업 중단 이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비율은

20.0%로 낮음. 학업중단 학교 지역으로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이 높았으며($\chi^2=10.651$ $p<.001$) 꿈드림 소속 청소년이 청소년 센터 소속 청소년에 비해 높고($\chi^2=12.538$, $p<.001$) 학교를 그만 둔 시점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청소년들의 참여비율이 높음($\chi^2=19.767$, $p<.001$)

[표 3-14]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여부

단위: (명),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명)	참여	미참여	χ^2
전 체		(170)	20.0	80.0	-
성별	여성	(142)	24.1	75.9	1.513
	남성	(158)	16.5	83.5	
연령	18세 이하	(11)	9.1	90.9	0.875
	19세 이상	(159)	20.8	79.2	
학업중단 학교 지역	시	(176)	13.4	86.6	10.651**
	군	(124)	35.3	64.7	
소속기관	꿈드림	(124)	26.6	73.4	12.538**
	청소년 센터	(42)	2.4	97.6	
	기타	(2)	0.0	100.0	
학교를 그만 둔 시점	1개월 미만	(1)	0.0	100.0	19.767**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9)	31.6	68.4	
	6개월 이상~1년 미만	(36)	41.7	58.3	
	1년 이상~2년 미만	(51)	13.7	86.3	
	2년 이상~3년 미만	(42)	4.8	95.2	
	3년 이상	(21)	19.0	81.0	

2) 학교를 중단 한 이후의 생활 실태

○ 학교 중단 후회 여부

- '학교를 중단 한 것에 대한 후회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예(후회한다) 21.8%, '아니오(후회하지 않는다)' 78.2%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를 중단을 후회하는 37명을 대상으로 '학교 중단 후 가장 후회되는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든 것'이 2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경험을 못하는 것(12.6%), 졸업장을 못 받는 것(12.6%)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교복을 못 입는 것, 평일에 갈 곳이 없는 것,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지식 습득 기회가 줄어든 것, 나 혼자라는 불안감, 건강이 좋지 않음, 부모님과의 갈등, 내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 없음 등으로 나타남

○ 학교 중단 후 가장 좋은 점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를 중단을 후회하지 않는 133명을 대상으로 '학교 중단 후 가장 좋은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유롭게 쓸 시간이 늘어난 것'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하고 싶

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15.8%),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12.8%)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학교규칙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된 것, 선생님의 차별과 체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등으로 나타남

○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시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일배움카드 등 기관 및 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시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교 중단 후 3개월 미만'이 24.1%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를 중단하자마자 계속 이용(18.2%), 학교 중단 후 3개월 ~ 6개월 미만(17.6%), 학교 중단 후 6개월 ~ 1년 미만(17.6%) 순으로 나타남

○ 이용하지 않은 기간 활동 및 외출 빈도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중단과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사이의 기간이 있었던 청소년 139명을 대상으로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혼자 공부'가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원다님(12.9%), OTT를 이용함(10.8%) 순으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중단과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사이의 기간이 있었던 청소년 98명을 대상으로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외출 빈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통은 집에 있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였다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하였다(22.4%),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하였다(20.4%) 순으로 나타남

○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중단 후 외출을 잘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 56명을 대상으로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오프라인 홍보에 의한 권유'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또는 친지의 권유(21.4%), 기관에서 연락 옴(10.7%)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이주 생각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은 생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주할 생각 있음(이주할 생각 매우 있음 14.1%+이주할 생각 있음 33.5%) 47.6%, '이주할 생각 없음(이주할 생각 전혀 없음 21.2%+이주할 생각 없음 31.2%)' 52.4%로 이주생각이 없는 경우가 다소 높음. 수도권으로 이주 의향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주 생각이 높았으며($\chi^2=13.594$ $p<.05$) 꿈드림 소속 청소년이 쉼터 소속 청소년에 비해 높고($\chi^2=30.585$, $p<.001$) 학교를 그만 둔 시점이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청소년이 높음($\chi^2=47.887$, $p<.001$).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수도권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는 청소년 81명을 대상으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풍부한 인프라를 경험하고 싶어서'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다양(23.5%),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18.5%) 순으로 나타남

[표 3-15] (수도권 이주 생각) 수도권으로 이주 생각

단위: (명), %

수도권 이주		(명)	이주할 생각 전혀 없음	이주할 생각 없음	이주할 생각 있음	이주할 생각 매우 있음	χ^2
전 체		(170)	21.2	31.2	33.5	14.1	-
성별	여성	(79)	20.3	19.0	45.6	15.2	13.594**
	남성	(91)	22.0	41.8	23.1	13.2	
연령	18세 이하	(11)	0.0	45.5	27.3	27.3	4.839
	19세 이상	(159)	22.6	30.2	34.0	13.2	
학업중 단학교 지역	시	(119)	26.1	30.3	32.8	10.9	7.491
	군	(51)	9.8	33.3	35.3	21.6	
소속기 관	꿈드림	(68)	14.5	28.2	38.7	18.5	30.585***
	청소년 쉼터	(36)	42.9	35.7	21.4	0.0	
	기타	(43)	0.0	50.0	0.0	50.0	
학교를 그만 둔 시점	1개월 미만	(1)	0.0	0.0	100.0	0.0	47.887***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0.5	21.1	47.4	21.1	
	6개월 이상~ 1년 미만	(36)	19.4	25.0	25.0	30.6	
	1년 이상~2년 미만	(51)	9.8	38.2	45.1	5.9	
	2년 이상~3년 미만	(42)	47.6	33.3	9.5	9.5	
	3년 이상	(21)	9.5	28.6	52.4	9.5	

3) 진로 및 직업 탐색

○ 현재 상황 및 진로 탐색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꿈드림, 대안학교 등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검정고시, 진학을 준비하고자 함'이 37.6%로 가장 높았으며,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하며 진로를 탐색하고자 함(26.5%), 돈을 벌면서 학력도 취득하고자 함(13.5%) 순으로 나타남. '진로와 관련한 필요 정보 중 자기이해 정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필요함(매우 필요함+필요함) 64.1%', 보통 28.2%, 필요 없음(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7.6%로 나타남. 진로와 관련한 필요 정보 중 '진로체험 정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필요함(매우 필요함+필요함) 58.2%', 보통 33.5%, 필요 없음(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8.2%로 나타남. 진로와 관련한 필요 정보 중 '직업 정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필요함(매우 필요함+필요함) 57.1%', 보통 25.3%, 필요 없음(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17.6%로 나타남. 진로와 관련한 필요 정보 중 '학과 정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필요함(매우 필요함+필요함) 60.0%', 보통 20.0%, 필요 없음(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20.0%로 나타남. 진로와 관련한 필요 정보 중 '진학·입시 정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필요함(매우 필요함+필요함) 64.1%', 보통 27.1%, 필요 없음(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8.8%로 나타남.

○ 진로설계 및 학습 정보

- 진로와 관련한 필요 정보 중 '진로설계 정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필요함(매우 필요함+필요함) 61.2%', 보통 30.6%, 필요 없음(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8.2%로 나타남. 진로와 관련한 필요 정보 중 '학습 방법 정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필요함(매우 필요함+필요함) 60.0%', 보통 27.1%, 필요 없음(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12.9%로 나타남. 진로와 관련한 필요 정보 중 '취업 정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필요함(매우 필요함+필요함) 56.5%', 보통 33.5%, 필요 없음(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10.0%로 나타남. 진로와 관련한 필요 정보 중 '창업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필요함(매우 필요함+필요함) 67.6%', 보통 20.0%, 필요 없음(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27.6%로 나타남

○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한 결과 진학·입시정보(평균 3.83)와 진로체험 정보(평균 3.82), 진로설계 정보(평균 3.8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진학과 진로와 관련한 정보 접근성 요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맞춤형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활로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진로와 관련된 필요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진학·입시정보($\chi^2=13.073$ $p<.05$)와 진로설계 정보($\chi^2=13.812$ $p<.01$)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 18세 이하 전기 청소년은 19세 이상 후기 청소년에 비해 진로체험정보($\chi^2=21.533$ $p<.001$), 진학 입시정보($\chi^2=18.062$ $p<.01$)가 높고, 진로설계 정보의 경우 후기 청소년이 높음($\chi^2=16.383$ $p<.01$)
- 쉼터 소속 청소년은 꿈드림 소속 청소년보다 직업정보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반면,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쉼터 소속 청소년보다 직업정보를 제외한 자기이해정보, 진로체험정보, 학과정보, 진학·입시정보, 진로설계정보, 학습방법 정보, 취업정보, 창업관련 정보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3년도 조사 결과에서도 쉼터 소속 청소년은 타 기관 청소년 대비 취업정보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쉼터 소속 청소년의 경우, 직업과 취업 등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 소속 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둔 지 3년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청소년에 비해 진로체험 정보, 직업정보, 학과정보, 진학·입시정보, 취업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진로설계 정보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지 6개월 이상-1년 미만 청소년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남. 즉, 상대적으로 학교를 그만둔지 얼마 안된 청소년의 경우, 진로와 관련된 기본적인 진로설계단계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학교를 그만둔지 3년 이상 지난 청소년의 경우, 직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체험정보, 학과정보, 입시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학교 중단 시

- 기가 진로발달단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해당 시점에 맞는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 정책은 성별, 연령대, 소속기관, 학교 중단 시점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진로 실행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적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설계와 관련한 정보에 높은 접근 필요성과 활용성이 나타났으며, 청소년 개별 특성 기반한 필요 정보 유형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제공 채널도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등 다각도 채널로 설계하여 시공간 제약없이 실시간 진로 정보 탐색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인 특성에 따라 정보 수요 차이를 반영할 때, 이를 테면 성별 대상 맞춤형 지원과 연령대별 단계적 지원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전기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 진로 지원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 전기 청소년은 체험 중심, 후기 청소년은 실천 중심으로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함. 셋째, 소속기관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설계도 필요함. 예를 들어 쉼터 소속 청소년과 꿈드림센터 소속 청소년이 요구하는 정책수요가 상이하기에 소속기관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쉼터 소속 청소년은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이 좀 더 요구되며 꿈드림센터 소속 청소년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넷째, 학교를 중단한 시점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이 실효성있게 지원될 필요가 있음. 즉, 학교를 중단한 초기 청소년은 진로 설계 기초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 이탈 청소년은 직업 취업 연결 프로그램 지원이 실질적으로 요구됨. 다섯째, 청소년 개별 상황과 특성 맞춤형 정보 제공이 다층적으로 개입될 필요가 있음. 개인특성 데이터 기반 진로상담과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관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종합적 연계 프로그램이 패키징으로 제안될 필요
 - 즉, 단순한 진로 지원을 넘어서 청소년 개인별 자기이해와 진로 탐색 관련 역량의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진입으로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표 3-16]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 관련 정보

단위: (명), 5점

	전 체 (n=170)	성별		연령		지역		소속기관		학교를 그만둔 시점				
		남성 (n=91)	여성 (n=79)	18세 이하 (n=11)	19세 이상 (n=159)	시 (n=119)	군 (n=51)	꿈드림 (n=68)	청소년 쉼터 (n=36)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n=19)	6개월 이상~1년 미만 (n=36)	1년 이상~2년 미만 (n=51)	2년 이상~3년 미만 (n=42)	3년 이상 (n=21)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t	t	t	t	t	t	t	t	F				
자기이해 정보 (예: 본인의 적성, 흥미, 직업기대관, 진로성숙도 등)	3.71 (0.84)	3.70 (0.82)	3.71 (0.87)	4.00 (1.09)	3.69 (0.82)	3.65 (0.84)	3.84 (0.85)	3.78 (0.81)	3.60 (0.88)	4.11 (0.65)	3.81 (0.74)	3.57 (0.87)	3.71 (0.94)	3.48 (0.81)
	-	5.714		11.976*		4.625		3.936* (꿈드림>청소년 쉼터)		1.572				
	3.82 (0.99)	3.65 (0.98)	4.03 (0.98)	4.27 (1.19)	3.79 (0.98)	3.76 (0.99)	3.98 (1.01)	4.11 (0.92)	3.07 (0.74)	4.11 (0.87)	4.28 (0.84)	3.49 (0.98)	3.43 (0.99)	4.33 (0.79)
진로체험 정보 (예: 1일 직업/학과체험 프로그램 안내 등)	-	12.984		21.533*** (18세 이하>19세 이상)		4.710		17.765*** (꿈드림>청소년 쉼터)		6.526*** (3년 이상>6개월 이상~1년 미만)				
	3.62 (1.09)	3.42 (1.16)	3.86 (1.02)	3.64 (1.02)	3.62 (1.10)	3.57 (1.12)	3.75 (1.01)	3.97 (0.87)	2.71 (1.13)	3.84 (1.11)	4.14 (0.76)	3.39 (1.07)	2.83 (1.08)	4.33 (0.79)
	-	14.446		9.285		3.894		20.957*** (청소년 쉼터>꿈드림)		8.167*** (3년 이상>6개월 이상~1년 미만)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연구

단위: (명, 5점)

	전 체 (n=170)	성별		연령		지역		소속기관		학교를 그만둔 시점				
		남성 (n=91)	여성 (n=79)	18세 이하 (n=11)	19세 이상 (n=159)	시 (n=119)	군 (n=51)	꿈드림 (n=68)	청소년 쉼터 (n=36)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n=19)	6개월 이상~1년 미만 (n=36)	1년 이상~2년 미만(n=51)	2년 이상~3년 미만 (n=42)	3년 이상(n=21)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t	t	t	t	t	t	t	t	F				
학과정보 (학과 특성, 학과 전망, 개설 대학, 졸업 후 진로 등)	3.58 (1.05)	3.35 (1.13)	3.84 (0.88)	3.64 (1.02)	3.57 (1.05)	3.56 (1.08)	3.61 (0.98)	3.90 (0.85)	2.71 (1.04)	3.79 (0.85)	4.14 (0.83)	3.39 (0.94)	2.83 (1.12)	4.33 (0.48)
	-	14.991		7.926		3.769		21.858*** (꿈드림>청소년 쉼터)		11.728*** (3년 이상>6개월 이상~1년 미만)				
	3.83 (0.95)	3.60 (0.95)	4.09 (0.89)	4.09 (1.21)	3.81 (0.93)	3.82 (0.96)	3.84 (0.94)	4.14 (0.83)	3.00 (0.73)	4.05 (0.70)	4.22 (0.79)	3.53 (1.02)	3.38 (0.90)	4.52 (0.51)
진학·입시정보 (수시/정시 진학상담 프로그램, 모집요강, 대학별 학과 경쟁률 등)	-	13.073* (여성>남성)		18.062** (18세 이하>19세 이상)		5.835		22.394*** (꿈드림>청소년 쉼터)		8.275*** (3년 이상>6개월 이상~1년 미만)				
진로설계 정보 (‘자기이해-직업이 해-진학/취학준비’ 와 같은 단계별 과정 프로그램 참여방법 안내 등)	3.81 (0.97)	3.57 (0.99)	4.08 (0.88)	3.73 (1.09)	3.81 (0.97)	3.76 (0.97)	3.90 (0.98)	4.06 (0.87)	3.21 (0.89)	4.05 (0.91)	4.36 (0.79)	3.49 (1.00)	3.33 (0.87)	4.29 (0.64)
	-	13.812** (여성>남성)		16.383** (19세 이상>18세 이하)		3.357		13.995*** (꿈드림>청소년 쉼터)		8.476*** (6개월 이상~1년 미만>3년 이상)				

단위: (명), 5점

	성별		연령		지역		소속기관		학교를 그만둔 시점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n=19)	6개월 이상~1년 미만 (n=36)	1년 이상~2년 미만(n=51)	2년 이상~3년 미만 (n=42)	3년 이상(n=21)
	전 체 (n=170)	남성 (n=91)	여성 (n=79)	18세 이하 (n=11)	19세 이상 (n=159)	시 (n=119)	군 (n=51)	꿈드림 (n=68)	청소년 쉼터 (n=36)	F			
학습 방법 정보(나만의 공부법 만들기, 노트필기 방법 등)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t	t	t	t	t	t	t	t	t	F			
	3.71 (1.04)	3.57 (1.05)	3.87 (1.01)	3.73 (1.27)	3.71 (1.03)	3.70 (1.06)	3.75 (1.01)	3.88 (1.03)	3.29 (0.89)	3.63 (1.11)	3.55 (1.00)	3.52 (0.99)	4.10 (1.04)
취업정보 (취업박람회 일정 및 개요, 구직사이트 정보 등)	-	9.958* (여성)남성)		4.199		3.351		5.647** (꿈드림)청소년 쉼터)		1.807			
	3.70 (1.01)	3.56 (0.90)	3.86 (1.10)	3.82 (1.25)	3.69 (1.00)	3.71 (1.02)	3.69 (1.01)	3.88 (1.00)	3.24 (0.87)	3.79 (1.22)	3.51 (0.85)	3.43 (0.88)	4.10 (1.22)
	-	11.605* (여성)남성)		3.847		3.724		5.574** (꿈드림)청소년 쉼터)		2.369* (3년 이상)6개월 이상~1년 미만)			
창업 관련 정보(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안내 등)	3.78 (1.08)	3.74 (0.98)	3.84 (1.18)	3.64 (1.12)	3.79 (1.08)	3.78 (1.05)	3.78 (1.13)	3.88 (1.10)	3.64 (0.90)	3.53 (1.07)	3.59 (1.08)	3.69 (0.95)	4.00 (1.30)
	-	12.931* (여성)남성)		2.160		2.140		4.110** (꿈드림)청소년 쉼터)		1.861			

○ 희망 직업 여부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예(희망하는 직업이 있다) 41.8%, '아니오(희망하는 직업이 없다) 58.2%'로 나타남.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요리사, 헤어디자이너, 공인중개사, 간호사, 드론 전문가, 프로그래머, 간호사, 디자이너, 회사원, 웹툰 작가 등으로 나타남

○ 장래 희망하는 직업 유무를 조사한 결과 41.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 청소년 36.4%, 후기 청소년 42.1%로 희망 직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 = 3.742$, $p < .05$) 군 지역 청소년은 52.9%가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시 지역 청소년은 37.0%만이 장래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함. 꿈드림 소속 청소년 50.0%이 청소년 쉼터 소속 청소년 11.9%에 비해 희망직업 있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chi^2 = 24.432$, $p < .001$), 쉼터 소속 청소년 88.1%가 희망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학교를 그만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chi^2 = 11.956$, $p < .05$) 상대적으로 학교를 그만둔지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청소년, 6개월 이상~1년 미만,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지 2년 이상~3년 미만 청소년에 비해 희망직업 있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래 희망직업의 유무조사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41.8%가 희망직업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3년도 조사결과인 63.33%에 비해 약 21%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장래 희망직업 보유는 청소년 스스로의 진로 방향을 주체적으로 설정하는 지표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이 진로 방향 설정에 좀 더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됨. 개인 특성별로 희망 직업 보유율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 후기 청소년(19세 이상)이 전기 청소년(18세 이하)에 비해 희망 직업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전기 청소년에게는 조기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후기 청소년에게는 진로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함
- 둘째, 군 지역 청소년의 희망직업 보유율(52.9%)이 시 지역(37.0%)보다 높은 것은 역설적으로 시 지역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진로 인식과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도시 지역일수록 다양한 선택지가 오히려 진로 결정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청소년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함. 이에 따라 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1 진로 상담 및 심화 진로탐색 기회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소속기관별로 희망직업 보유율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 점은 매우 주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꿈드림 소속 청소년의 절반이 희망직업을 가지고 있는 반면, 쉼터 청소년의 경우 88.1%가 희망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기관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 내용이 청소년의 진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쉼터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단기적 보호 중심의 서비스에 머물

- 고 있어 장기적인 진로 목표 설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쉼터 청소년에게는 심리·정서 안정 기반 위에 진로 상담과 체험을 병행한 개입이 시급하고, 보다 체계적인 진로지원 체계를 해당 기관에 도입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넷째, 학교 중단 시점에 따른 희망직업 유무 차이는 진로 목표 형성의 시기와 개입 타이밍이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학교를 그만둔 지 2년 이상~3년 미만인 청소년의 희망직업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 시기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고 중도 포기 상태에 머물 수 있는 위험군임을 의미함. 따라서, 학교 중단 후 2~3년 이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진로 재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재사회화 프로그램, 직업 탐색 캠프, 동기부여 중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즉, 청소년의 희망직업 형성과 진로설계는 개인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단일화된 접근이 아닌 맞춤형 진로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쉼터, 시군 지역별, 연령대, 중단 시점 등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전략이 정책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체계적 접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진로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3-17] 장래 희망하는 직업 유무

단위: (명), %

희망직업 여부		(명)	있음	없음	χ^2
전 체		(170)	41.8	58.2	-
성별	여성	(79)	45.6	54.4	0.878
	남성	(91)	38.5	61.5	
연령	18세 이하	(11)	36.4	63.6	0.141
	19세 이상	(159)	42.1	57.9	
학업중단	시	(119)	37.0	63.0	3.742*
학교 지역	군	(51)	52.9	47.1	
소속기관	꿈드림	(68)	50.0	50.0	24.432***
	청소년 쉼터	(36)	11.9	88.1	
	기타	(43)	100.0	0.0	
학교를 그만 둔 시점	1개월 미만	(1)	100.0	0.0	11.956*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9)	57.9	42.1	
	6개월 이상~1년 미만	(36)	55.6	44.4	
	1년 이상~2년 미만	(51)	39.2	60.8	
	2년 이상~3년 미만	(42)	23.8	76.2	
	3년 이상	(21)	42.9	57.1	

○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및 희망 직업 이유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 청소년 71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알

고 있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 있음+잘 알고 있음) 76.1%', 보통 21.1%, 모름(전혀 모름+잘 모름) 2.8%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 청소년 71명을 대상으로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23.9%),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9.9%) 순으로 나타남

○ 희망 직업을 위한 계획 및 진로 결정 시기, 진로 결정 영향 요인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 청소년 71명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위한 계획'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검정고시 준비가 23.9%'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학교 복학(대학 진학 포함)(17.8%), 취업과 진학 병행(13.9%) 순으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 청소년 71명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시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교를 중단하기 전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중단 후 6개월 미만(22.5%), 학교 중단 후 6개월~1년 미만(8.5%), 학교 중단 후 2년 이상(8.5%) 순으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 청소년 71명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혼자 결정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31.0%), 인터넷 또는 유튜브 정보(9.9%) 순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이유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청소년 99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미래 직업 변화 예측이 어려워서가 25.3%'로 가장 높았으며,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몰라서(22.2%), 내 강점과 단점을 잘 몰라서(21.2%) 순으로 나타남

○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나의 강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43.5%', 보통 38.8%,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7.6%로 나타남.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49.4%', 보통 32.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8.2%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나의 강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43.5%', 보통 38.8%,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7.6%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57.6%', 보통 22.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20.0%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능력과 지식이 필요
한지 알고 있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
다) 55.9%', 보통 27.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6.5%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에 대
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45.9%', 보통
31.2%,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22.9%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학교나 학과에 진
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
렇다+그렇다) 54.1%', 보통 16.5%,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29.4%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종종 물어본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47.6%', 보통
20.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31.8%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를 종종 찾아본다'에 대한 평
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48.8%', 보통 35.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5.3%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지 찾아보려고
노력한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50.0%', 보통 30.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9.4%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종종 점검한다'에 대한 평
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53.5%', 보통 24.1%,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22.4%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계획을 실천한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52.4%', 보통
35.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7.1%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
력한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62.4%', 보통 18.8%,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8.8%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
다+그렇다) 62.4%', 보통 18.2%,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9.4%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
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47.6%', 보통 38.2%, 그렇지 않다(전혀 그

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4.1%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나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47.1%', 보통 34.7%,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8.2%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50.0%', 보통 25.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24.1%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55.3%', 보통 18.2%,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26.5%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내가 몰랐던 직업을 발견하면 그 직업에 대해 알고 싶어 진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48.8%', 보통 30.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20.6%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진로 계획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45.9%', 보통 32.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21.2%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계획을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55.3%', 보통 24.7%,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20.0%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희망하는 진로에 도전해 본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62.4%', 보통 19.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8.2%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직업에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희망하는 진로를 추구한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60.0%', 보통 28.2%,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1.8%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63.5%', 보통 22.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3.5%로 나타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나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48.8%', 보통 37.1%,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4.1%로 나타남

4) 신체·심리 건강과 가치관

○ 최근 심리상태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어제 나는 행복했다'에 대한 최근 심리상태에 대해 11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6~10) 65.9%', 보통(5) 17.6%, '그렇지 않다(0~4) 16.5%'로 나타남. '어제 나는 근심 또는 걱정이 있었다'에 대한 최근 심리상태에 대해 11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6~10) 34.1%, 보통(5) 20.0%, '그렇지 않다(0~4) 45.9%'로 나타남. '어제 나는 우울하였다'에 대한 최근 심리상태에 대해 11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6~10) 39.4%, 보통(5) 8.8%, '그렇지 않다(0~4) 51.8%'로 나타남. '요즘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에 대한 최근 심리상태에 대해 11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6~10) 84.1%', 보통(5) 5.9%, '그렇지 않다(0~4) 10.0%'로 나타남.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가치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최근 심리상태에 대해 11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6~10) 85.9%', 보통(5) 7.1%, '그렇지 않다(0~4) 7.1%'로 나타남. 최근 1년 동안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적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받은 12.9%', '받지 않음 87.1%'로 나타남

○ 일상 생활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주중(월~금) 평소 취침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23시에 취침한다'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자정(21.8%), 1시(12.9%)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21시, 4시, 6시, 8시, 13시, 14시로 확인됨. 주중(월~금) 평소 기상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8시에 기상한다'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7시(23.5%), 9시(11.2%)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5시, 13시, 14시, 15시, 16시, 18시, 20시, 22시로 나타남. 주말(토~일) 평소 취침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23시에 취침한다'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자정(15.9%), 2시(12.4%)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22시, 5시, 6시, 8시, 9시, 14시, 15시로 나타남. 주말(토~일) 평소 기상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9시에 기상한다'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8시(25.9%), 10시(21.2%)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6시, 13시, 14시, 15시, 16시, 19시, 20시, 22시로 나타남
- 하루 식사 중 아침 식사를 하는 빈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급적 먹음(주 3~6회)'이 31.8%로 가장 많았으며, '가끔 먹음(주 1~2회)' (31.2%), '먹지 않음(주 0회)'(19.4%) 순으로 나타남. 하루 식사 중 점심 식사를 하는 빈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항상 먹음(주 7회)'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가급적 먹음(주 3~6회)' (29.4%), '가끔 먹음(주 1~2회)'(13.5%) 순으로 나타남. 하루 식사 중 저녁 식사를 하는 빈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항상 먹음(주 7회)'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가급적 먹음(주 3~6회)' (38.8%), '가끔 먹음(주 1~2회)'(9.4%)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주일 간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예(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을 했음)' 48.2%, '아니오(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 안했음)' 51.8%로 나타남.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82명의 경우 지난 1주일 평균 4.39시간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 관련 조사 결과, '최근 1년 간 심리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12.9%로 2013년 조사 결과 21.67%에 비해 약 9%정도 감소한 추이로 확인되며, ‘최근 1년 간 진지하게 자살 생각을 하였다’는 비율이 5.9%로 2013년도 조사결과인 11.67%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최근 1년 간 심각한 자해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2.4%로 2013년도 조사결과인 6.33%에 비해 역시 약 4%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조사대상 특성별 정신건강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 도움을 받은 비율도 높고,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우, 남학생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나며, 자해경험 역시 남학생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에 취약한 위험군으로 확인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자살을 생각한 경우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19세 이상에 비해 약 3배 이상 매우 높게 나타나 정서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심각한 자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청소년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쉼터 소속 청소년에 비해 공동체 소속 청소년이 심리상담전문가 도움을 받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chi^2=10.734$, $p<.05$) 자살 생각을 하거나 자해 경험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를 그만 둔 시점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둔지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심리상담전문가 도움을 받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최근 1년 간 심각한 자해 경험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는 한편, 학교를 그만둔지 1개월 이상~6개월 미만의 청소년은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학교를 그만둔지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위험군으로 확인됨
- 2023년 정신건강 관련 조사 결과에 비해, 2025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지표(상담 이용률, 자살 생각, 자해 경험)는 2023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집단에서는 심리적 위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첫째, 정신건강 지표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률이 감소한 점(12.9%)은 단순히 정신건강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담 접근성 저하나 이용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고민의 지점으로 정책서비스 확대보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상담 수요를 조기 발견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 모바일 기반 익명 상담 등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둘째, 실태조사에 참여한 18세 미만 전기 청소년 및 여학생의 경우, 특히 정신건강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자살에 대한 생각 비율이 약 5배로 나타나고, 자해의 경험도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자살에 대한 생각 비율이 19세 이상의 청소년보다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여학생과 전기 청소년 대상의 심리적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기 사전예방적 상담 프로그램 이 보다 확대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셋째, 19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에 있어서 자해의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 진입을 앞두고 불안정한 미래와 경제적 스트레스 등에 직면하면서 불안정한 행동 위기를 겪고 있음. 이러한 자립준비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취업·진로·주거 등 다양한 국면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통합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넷째, 학교를 중단 시점에 따라서 정신건강의 위험도 대상별로 맞춤형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학교를 그만둔 지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나타나, 학교를 이탈한 직후 사전 위기 개입의 골든타임에 적절한 정서심리적 지원사업이 제공되어야 함. 또한 학교 중단 이후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 청소년은 자해에 대한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학교를 중단한 지 3년 이상이 된 청소년 역시 자살에 대한 생각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학교 중단 시기별로 해당 정책 대상 맞춤형으로 단계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실태 모니터링 정례화 및 고위험군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별·연령별·소속기관별·학교 중단 시점별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체계 마련,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상담 비용 요인에 대한 개선 전략 마련, 심리위기 개입에서 자립지원까지 연계되는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정신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공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표 3-18] 정신건강

단위: (명), %

	전 체	성별		연령		지역		소속기관		학교를 그만둔 시점					
		남성	여성	18세 미만	19세 이상	시	군	꿈드림	청소년 쉼터	1년 미만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명)	(170)	(91)	(79)	(11)	(159)	(119)	(51)	(68)	(36)	(1)	(19)	(36)	(51)	(42)	(21)
최근 1년 간 심리상담전문가 도움 받음	12.9	8.8	17.7	27.3	11.9	12.6	13.7	16.9	0.0	0.0	10.5	16.7	15.7	4.8	19.0
χ^2		2.993		2.144		0.040		10.734*		4.221					
최근 1년 간 진지하게 자살 생각함	5.9	2.2	10.1	18.2	5.0	5.9	5.9	8.1	0.0	0.0	10.5	8.3	3.9	2.4	9.5
χ^2		0.318		3.214		0.000		3.942		2.980					
최근 1년 간 심각한 자해 경험 있음	2.4	1.1	3.8	0.0	2.5	1.7	3.9	3.2	0.0	0.0	5.3	5.6	0.0	2.4	0.0
χ^2		1.340		0.283		0.780		1.678		4.067					

○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있음 5.9%, '없음 94.1%'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해한 경험이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있음 2.4%, '없음 97.6%'로 나타남.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에 대한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78.2%',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21.8%로 나타남.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에 대한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80.6%',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19.4%로 나타남.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에 대한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75.9%',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24.1%로 나타남.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68.8%',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31.2%로 나타남.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77.1%',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22.9%로 나타남.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한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77.1%',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22.9%로 나타남.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39.4%,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60.6%'로 나타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51.8%',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48.2%로 나타남. '사회가 나를 문제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43.5%,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56.5%'로 나타남.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45.3%,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54.7%'로 나타남. '유용한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31.2%,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68.8%'로 나타남.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런 편임(매우 그런 편임+그런 편임) 57.6%', 그렇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은 편임) 42.4%로 나타남

○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는 4점 기준으로 평균 2.92~2.98로 도출되었고 자아존중감은 2.98~3.09로 도출됨

- 꿈드림 소속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쉼터 소속 청소년에 비해 대부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으며,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문항 가운데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문항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chi^2=20.832$, $p<.05$) 자아존중감 문항 중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chi^2=17.328$, $p<.05$). 한편, 자아존중감 문항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있어서는 쉼터 소속 청소년이 꿈드림 소속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군지역보다 시지역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남. 학교를 그만둔 지 6개월 이상~1년 미만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이 대부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대인관계 문항 가운데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문항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chi^2=3.525$, $p<.001$) 자아존중감 문항 중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chi^2=5.521$, $p<.001$),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도 유의한 수준으로 높음($\chi^2=2.284$, $p<.05$). 학교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3점 내외(4점 기준)로 중상위 수준의 응답 경향을 보였으며, 세부 집단별로는 소속 기관, 지역, 학교 중단 시점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가 개인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정책 개입 시 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구체적으로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쉼터 청소년에 비해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 나타남. 특히,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이는 꿈드림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의 자기 인식과 대인관계 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정서적·사회적 역량 강화 중심 프로그램을 쉼터 등 타 기관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쉼터 청소년을 위한 심화형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특정 문항에서의 역전 현상으로, 자아존중감 문항 중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항목에서는 쉼터 청소년이 꿈드림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시 지역 청소년이 군 지역보다 높은 자아 만족도를 보였음. 이는 쉼터 청소년의 경우 현재의 자기 상황에 익숙해지며 상대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아존중감이 항상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주관적 특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사료됨. 자아존중감 지표를 해석할 때는 정서적 적응과 현실적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평가 체계로 측정하여야 하며, 군 지역 청소년의 심리적 만족도 제고를 위한 문화·사회활동 접근성 확대가 필요함. 학교 중단 시점에 따른 조사결과를 볼 때, 학교를 그만둔 지 6개월 이상~1년 미만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시기는 청소년들이 초기의 충격과 혼란을 일정 부분 극복하고, 새로운 적응 단계를 거치며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관계를 재구축하는 시기로 특히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은 심리적 회복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와 동시에, 학교 중단 후 6개월~1년 미만의 시기에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골든타임 개입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자기 이해, 대인관계 훈련, 집단활동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회복과 자립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야 함

[표 3-19]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단위: (명), 4점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전 체 (n=170)	성별		연령		지역		소속기관		학교를 그만둔 시점				
		남성 (n=91)	여성 (n=79)	18세 이하 (n=11)	19세 이상 (n=159)	시 (n=119)	군 (n=51)	푸드림 (n=68)	청소년 쉼터 (n=36)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n=19)	6개월 이상~ 1년 미만 (n=36)	1년 이상~2년 미만(n=51)	2년 이상~ 3년 미만 (n=42)	3년 이상(n=21)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대인 관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t		t		t		t		F				
		2.92 (0.68)	3.03 (0.69)	2.55 (0.82)	2.94 (0.66)	2.96 (0.65)	2.82 (0.74)	2.95 (0.69)	2.79 (0.64)	2.84 (0.60)	3.19 (0.52)	2.84 (0.73)	2.90 (0.65)	2.71 (0.84)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6.973		4.330		2.541		6.168		1.768				
		2.98 (0.75)	2.97 (0.64)	2.64 (1.02)	3.01 (0.72)	2.98 (0.81)	2.98 (0.58)	3.03 (0.82)	2.83 (0.48)	3.05 (0.78)	3.39 (0.54)	2.80 (0.69)	2.95 (0.62)	2.71 (1.10)
	-	7.690		5.057		6.195		20.832* (푸드림)청소년 쉼터)		3.525** (6개월 이상-1년 미만)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자아 존중감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2.96 (0.78)		2.99 (0.73)	2.92 (0.82)	2.96 (0.77)	2.96 (0.79)	2.99 (0.81)	2.86 (0.68)	3.00 (0.94)	3.17 (0.69)	2.82 (0.81)	3.02 (0.64)	2.76 (0.88)
		5.777		6.788		0.259		6.295		1.162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98 (0.85)		2.95 (0.86)	3.03 (0.84)	2.92 (0.88)	3.14 (0.74)	3.09 (0.83)	2.62 (0.82)	2.84 (0.76)	3.50 (0.81)	2.98 (0.81)	2.69 (0.84)	2.86 (0.79)
		0.381		4.714		4.372		17.328* (푸드림)청소년 쉼터)		4.521** (6개월 이상-1년 미만)1년 이상-2년 미만)				

단위: (명), 4점

대인관계 및 자이존증감	전 체 (n=170)	성별		연령		지역		소속기관		학교를 그만둔 시점				
		남성 (n=91)	여성 (n=79)	18세 이하 (n=11)	19세 이상 (n=159)	시 (n=119)	군 (n=51)	꿈드림 (n=68)	청소년 쉼터 (n=36)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n=19)	6개월 이상~ 1년 미만 (n=36)	1년 이상~2년 미만(n=51)	2년 이상~ 3년 미만 (n=42)	3년 이상(n=21)
좋은 성품을 기졌다고 생각한다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t		t		t		t		F				
	3.01 (0.79)	3.08 (0.77)	2.94 (0.82)	2.73 (0.90)	3.03 (0.79)	3.04 (0.82)	2.94 (0.73)	3.03 (0.84)	2.95 (0.66)	2.84 (0.83)	3.39 (0.80)	2.88 (0.79)	3.00 (0.58)	2.86 (1.01)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1.351		1.601		3.080		8.209		2.284* (6개월 이상-1년 미만)2년 이상-3년 미만)				
	3.09 (0.85)	3.22 (0.80)	2.94 (0.89)	2.82 (0.98)	3.11 (0.84)	3.14 (0.91)	2.96 (0.69)	3.04 (0.84)	3.26 (0.66)	2.89 (0.80)	3.31 (0.82)	2.82 (0.76)	3.48 (0.74)	2.76 (1.04)
	-	5.355		1.332		12.707* (시·군)		9.776		4.373** (2년 이상-3년 미만)6개월 이상-1년 미만)				

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75.9%', 모름 24.1%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를 알고 있는 청소년 129명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87.6%', 이용해 본 경험 없음 12.4%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3명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97.3%',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2.7%로 나타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62.4%', 모름 37.6%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는 청소년 106명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57.5%', 이용해 본 경험 없음 42.5%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61명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90.2%',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9.8%로 나타남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42.4%, '모름 57.6%'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청소년 72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50.0%, 이용해 본 경험 없음 50.0%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6명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86.1%,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13.9%로 나타남

○ 청소년 안정망 사업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29.4%, '모름 70.6%'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알고 있는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20.0%, '이용해 본 경험 없음 80.0%'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60.0%',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40.0%로 나타남

○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장학사업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장학사업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31.8%, '모름 68.2%'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장학사업을 알고 있는 청소년 54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25.9%, '이용해 본 경험 없음 74.1%'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장학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78.6%',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21.4%로 나타남

○ 청소년 쉼터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쉼터 시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47.1%, '모름 52.9%'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 쉼터 시설을 알고 있는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25.0%, '이용해 본 경험 없음 75.0%'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 쉼터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75.0%',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25.0%로 나타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30.6%, '모름 69.4%'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알고 있는 청소년 52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21.2%, 이용해 본 경험 없음 78.8%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72.7%',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27.3%로 나타남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자립 취업지원 서비스)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자립 취업지원 서비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41.2%, '모름 58.8%'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자립 취업지원 서비스)을 알고 있는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68.6%', 이용해 본 경험 없음 31.4%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자립 취업지원 서비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48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93.8%',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6.3%로 나타남

○ 내일배움카드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45.9%, '모름 54.1%'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내일배움카드를 알고 있는 청소년 78명을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43.6%, '이용해 본 경험 없음 56.4%'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4명을 대상으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94.1%',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5.9%로 나타남

○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44.7%, '모름 55.3%'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을 알고 있는 청소년 76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57.9%', 이용해 본 경험 없음 42.1%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44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95.5%',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4.5%로 나타남

○ 청소년증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47.1%, '모름 52.9%'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증을 알고 있는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78.8%', 이용해 본 경험 없음 21.3%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증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63명을 대상으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95.2%',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4.8%로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39.4%, '모름 60.6%'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를 알고 있는 청소년 67명을 대상으로 해당 박람회를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55.2%', 이용해 본 경험 없음 44.8%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7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86.5%',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13.5%로 나타남

○ 학교밖청소년 세상소통카드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학교밖청소년 세상소통카드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51.2%', 모름 48.8%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 세상소통카드를 알고 있는 청소년 87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경험 있음 86.2%', 이용해 본 경험 없음 13.8%로 나타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 세상소통카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75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 97.3%', 도움 안됨(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 2.7%로 나타남

○ 학습지원 및 진로 지원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에서 필요한 도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양한 방법의 교육 제공이 23.2%'로 가장 높았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22.2%), 검정고시 준비 지원(20.5%) 순으로 나타남
-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에서 필요한 도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17.6%'로 가장 높았으며,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15.6%),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13.9%)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학력 취득과 직업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작업장, 근로 시 피해예방 교육, 근로 중 피해(언어 폭력, 임금체불 등)에 대한 보호로 나타남

○ 건강 상담 등 복지지원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복지지원에서 필요한 도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자산관리에 관련한 정보 제공(20.5%), 건강 검진(19.2%) 순으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에서 필요한 도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육(활동, 직업훈련)참여 수당'이 15.8%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생활비(식사비, 식료품구입비, 의류구입비 등) 지원(13.3%), 주거 지원(주거비, 공유 주택 등)(12.7%)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취업/자격증 준비 학원비 지원, 예체능(음악/미술/운동) 강습비 지원, 재난 지원비로 나타남

○ 예체능 및 모임 등 지원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예체능 및 모임 등 지원에서 필요한 도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 악기, 그림, 사진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26.2%), 체육 활동 지원(25.1%) 순으로 나타남. 기타 지원에서 필요한 도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지원(44.3%) 순으로 나타남

○ 학습지원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36.5%)'

로 높게 나타남.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40.332$, $p<.05$) 그 만둔 지 1년 이상~2년 미만,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3년 이상 청소년들은 멘토 응답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청소년들은 다양한 교육방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단순한 교과 학습보다, 개별 상황과 진로 여정에 공감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멘토)의 존재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지원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학교 중단 시점에 따라 학습지원 유형 선호가 상이하게 나타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학습지원의 핵심 필요가 '멘토'로 나타난 점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함께 학습·진로 방향을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관계 중심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학교라는 제도적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비형식적, 관계 기반의 학습 환경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라, 전문성 있는 진로·학습 멘토 인력풀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또래 멘토, 진로 분야 실무자, 대학생, 직업인 등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함
- 학교를 중단한 시점에 따라서 필요한 학습지원이 상이함에 따라, 학교 중단 직후 초기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지지자인 멘토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이탈 중기인 6개월에서 1년 이하인 청소년은 지속적인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며 장기 이탈 청소년은 직업과 연결된 실천적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단순한 교육 지원이 아닌 정서적 지지와 진로 탐색과 학습을 조력하고 독려하는 프로그램 연계, 그리고 이러한 동기가 강화될 수 있는 관련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이 종합적으로 패키징화하여 지원되어야 함

[표 3-20]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학습지원)

단위: (명), %

학습지원		(명)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대입 정보 제공 및 대학 진학 상담	검정고시 준비 지원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한 교육 제공	복교(학교 복귀)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복교 지원	수능준비 지원
전 체		(170)	36.5	14.7	23.5	15.9	1.8	7.6
성별	남성	(91)	30.8	16.5	30.8	13.2	2.2	6.6
	여성	(79)	43.0	12.7	15.2	19.0	1.3	8.9
$\chi^2=7.917$								
연령	18세 이하	(11)	45.5	9.1	9.1	36.4	0.0	0.0
	19세 이상	(159)	35.8	15.1	24.5	14.5	1.9	8.2
$\chi^2=5.768$								
지역	시	(176)	31.9	12.6	27.7	16.8	2.5	8.4
	군	(124)	47.1	19.6	13.7	13.7	0.0	5.9
$\chi^2=8.202$								
소속기관	꿈드림	(68)	37.9	16.1	16.1	17.7	2.4	9.7
	청소년 쉼터	(36)	31.0	11.9	45.2	9.5	0.0	2.4
$\chi^2=20.702$								

학습지원		(명)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대입 정보 제공 및 대학 진학 상담	검정고시 준비 지원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한 교육 제공	복교(학교 복귀)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복교 지원	수능준비 지원
학업중단 후 경과 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36.8	15.8	26.3	10.5	0.0	10.5
	6개월 이상~ 1년 미만	(36)	27.8	11.1	22.2	30.6	2.8	5.6
	1년 이상 ~2년 미만	(51)	52.9	15.7	9.8	13.7	2.0	5.9
	2년 이상~ 3년 미만	(42)	23.8	9.5	47.6	11.9	2.4	4.8
	3년 이상	(21)	33.3	28.6	9.5	9.5	0.0	19.0
	$\chi^2=40.332^*$							

○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직업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이 25.37%로 높게 나타남.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20.284$, $p<.01$) 군 지역 청소년들은 '직업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41.2%)'을 원하는 경우가 시 지역 청소년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남

-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 따라 정책 요구 서비스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며($\chi^2=64.839$, $p<.01$) 학교를 그만둔 지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 청소년은 '직업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52.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학교를 그만둔 지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45.1%)의 청소년과 학교를 그만둔 지 3년 이상(28.6%)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직업적성 등 직업 관련 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학교를 그만둔 지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의 청소년과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의 비교적 초기 단계 청소년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진로 관련 직업 역량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제공이 필요함. 지역 특성과 학교 중단 시기 등의 개인 특성을 반영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각각으로 요구되고 있어 맞춤형 지원체계 세분화가 필요
- 직업교육과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직무 중심 훈련과정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기관 연계 강화가 필요함. 실질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구조 마련이 요구됨. 예컨대,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 청소년 41.2%는 직업 상담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보와 상담을 통해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상담지원서비스 활성화, 온라인 직업적성 진단 시스템 확대, 진로 탐색 워크숍 정례화 등의 접근성 강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직업상담사 및 청소년 진로코치의 1:1상담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를 그만둔 시기에 따라 희망하는 지원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 진로 발달 단계가 학교 중 단 시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진로 인식-직업탐색-기술습득-취업실행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예컨대, 학교 이탈 초기(1개월~1년 미만)는 자격증 중심의 단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하고, 중기(1~2년) 자기 이해와 직업 적성 상담을 통해 진로 방향 설정을 지원하며, 장기(2~3년 이상) 직업훈련, 창업·취업 연결 중심의 실천 프로그램 집중 제공하는 등 단계적인 지원체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표 3-21]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진로·직업 및 취업지원)

단위: (명), %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		(명)	직업·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	직업 탐색을 위한 인터넷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	맞춤형 직업 지원 프로그램	학력 취득과 직업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작업장	근로 시 피해 예방 교육
전 체		(170)	25.3	6.5	25.9	15.3	12.4	5.9	7.1	1.8
성별	남성	(91)	22.0	8.8	31.9	12.1	11.0	5.5	6.6	2.2
	여성	(79)	29.1	3.8	19.0	19.0	13.9	6.3	7.6	1.3
	$\chi^2=7.121$									
연령	18세 이하	(11)	0.0	27.3	27.3	18.2	18.2	9.1	0.0	0.0
	19세 이상	(159)	27.0	5.0	25.8	15.1	11.9	5.7	7.5	1.9
	$\chi^2=12.480$									
지역	시	(119)	18.5	4.2	28.6	16.0	16.0	5.0	9.2	2.5
	군	(51)	41.2	11.8	19.6	13.7	3.9	7.8	2.0	0.0
	$\chi^2=20.284^{**}$									
소속 기관	꿈드림	(68)	24.2	7.3	18.5	19.4	13.7	8.1	7.3	1.6
	청소년 쉼터	(36)	28.6	2.4	47.6	2.4	9.5	0.0	7.1	2.4
	$\chi^2=32.553$									
학업 중단 후 경과 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5.8	10.5	15.8	26.3	5.3	10.5	10.5	5.3
	6개월 이상~ 1년 미만	(36)	19.4	0.0	19.4	27.8	16.7	11.1	5.6	0.0
	1년 이상~ 2년 미만	(51)	45.1	2.0	13.7	7.8	11.8	5.9	9.8	3.9
	2년 이상~ 3년 미만	(42)	9.5	11.9	52.4	7.1	11.9	0.0	7.1	0.0
	3년 이상	(21)	28.6	14.3	23.8	14.3	14.3	4.8	0.0	0.0
	$\chi^2=64.839^{**}$									

- 건강·상담 등 복지지원의 경우 건강검진지원이 28.8%로 가장 높은 비율로 건강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남.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25.578$, $p<.05$)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급식지원 및 건강검진(21.0%), 쉼터 소속 청소년은 건강검진(52.4%)을 원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신체 건강과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그에 따른 공공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즉, 기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시사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기적인 건강검검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인 학교 보건체계 밖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 건강관리 및 예방 차원의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반증함
 - 이러한 건강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상 건강검진 패키지’ 제도화 및 주기적 실시, 지역보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모바일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정신건강·영양·시력·치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 종합형 건강검진 항목 구성 필요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또한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급식지원과 건강검진(각 21.0%)에 고른 수요를 보였고, 쉼터 소속 청소년은 건강검진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52.4%)에 따라, 기관별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일상 지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볼 때, 쉼터 청소년은 가정·학교로부터 단절된 환경 속에서 기초적인 건강관리조차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의료 접근성의 사각지대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형 건강검진 서비스 및 건강상담 프로그램 우선 제공, 꿈드림 청소년의 경우, 급식지원과 같은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대 병행 필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지원 패키지 모델 개발 및 적용 등의 구체적 방안이 실현되어야 함. 즉,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 수요 중 건강지원과 급식지원이 가장 높은 것은, 기초 생활권·건강권이 국가의 공공체계 내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에 따라,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공공의 제도적 책임 아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 영양, 심리, 생활 등 복지 수요를 일괄 진단·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고, 기초지자체 단위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안전망 TF팀’ 구성 및 서비스 접근성 확대,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한 방문형 복지지원 시범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표 3-22]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건강상담 등 복지지원)

단위: (명), %

건강상담 등 복지지원		(명)	급식지원	건강검진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치과, 예방접종, 정신과 상담 등)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자산관리 (용돈이나 생활비, 알바비 등) 방법에 관련한 정보 제공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가족상담/부모상담 지원
전 체		(170)	19.4	28.8	16.5	17.1	15.3	2.9
성별	남성	(91)	22.0	34.1	11.0	16.5	12.1	4.4
	여성	(79)	16.5	22.8	22.8	17.7	19.0	1.3
	$\chi^2=8.867$							
연령	18세 이하	(11)	27.3	0.0	45.5	18.2	9.1	0.0
	19세 이상	(159)	18.9	30.8	14.5	17.0	15.7	3.1
	$\chi^2=10.413$							
지역	시	(119)	14.3	31.1	17.6	16.8	16.0	4.2
	군	(51)	31.4	23.5	13.7	17.6	13.7	0.0
	$\chi^2=8.686$							
소속기관	꿈드림	(68)	21.0	21.0	16.9	19.4	18.5	3.2
	청소년 쉼터	(36)	16.7	52.4	16.7	9.5	2.4	2.4
	$\chi^2=25.578^*$							
학업중단 후 경과 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26.3	21.1	15.8	21.1	15.8	0.0
	6개월 이상~ 1년 미만	(36)	16.7	16.7	25.0	19.4	22.2	0.0
	1년 이상~ 2년 미만	(51)	25.5	21.6	15.7	15.7	11.8	9.8
	2년 이상~ 3년 미만	(42)	9.5	50.0	7.1	16.7	16.7	0.0
	3년 이상	(21)	19.0	33.3	23.8	14.3	9.5	0.0
	$\chi^2=36.370$							

○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용돈지원(24.1%)’이며,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지원(18.2%)’, ‘교육(활동, 직업 훈련) 참여 수당(16.5%)’이 높게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19.811$, $p<.05$) 시 지역 청소년들이 ‘보건의료비 지원(21.8%)’이 높게 나타나고 군 지역 청소년은 그에 비해 ‘기초생활비(41.2%)’ 지원 요구정도가 시 지역 청소년 대비 높게 나타남.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63.561$, $p<.001$) 쉼터 소속 청소년은 ‘보건의료비 지원(40.5%)’로 높게 나타나고,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기초생활비(22.6%)’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71.353$, $p<.01$) 그만둔 지 2년 이상~3년 미만(42.9%)과 3년 이상(28.6%)은 ‘보건의료비지원’, 1년 이상~2년 미만(41.2%) 청소년들은

‘기초생활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높고, 1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용돈지원(26.3%)’,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교육(활동, 직업 훈련) 참여 수당(22.2%)’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경제적 지원은 ‘용돈지원’이었으며, 이는 기초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의 금전적 지원이 심리적 안정과 자율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교육 참여 수당’에 대한 수요 역시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활동이나 훈련에 대한 보상적 접근을 희망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단기적 용돈형 지원과 활동 참여 수당(인센티브형 지원)을 병행하는 이중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의 활동 참여 유도 및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해 직업훈련·학습참여에 대한 실비성 수당제 확대, 비현금성 복지 바우처와 연계한 지원 다각화 (예: 식품, 교통, 문화, 의료비 포인트 등) 등의 정책 방안이 필요함
- 한편, 시 지역 청소년은 ‘보건의료비 지원(21.8%)’ 요구가 높고, 군 지역 청소년은 ‘기초생활비 지원(41.2%)’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이는 군 지역의 인프라 부족, 취업 기회 제한, 복지 접근성 저하 등과 연결된 생계불안 문제를 반영함. 반면 도시에서는 의료기관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군 지역 청소년을 위한 최소 생계보장 성격의 현금성 지원 확대 필요, 시 지역은 건강권 중심의 보건의료비 지원 체계 강화, 지역특성 반영한 경제지원 유형 표준모델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 쉼터 소속 청소년은 ‘보건의료비 지원(40.5%)’ 수요가 압도적이며,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기초생활비(22.6%)’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볼 때, 쉼터 청소년은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많고, 꿈드림 청소년은 비교적 자립 준비 중이나 여전히 생계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보험료·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건강경제 복지체계 우선 도입, 꿈드림 청소년 대상 월 단위 생계보조 또는 자립준비금 제도 도입 검토, 기관 유형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관-기능 연계형 경제지원 체계’ 설계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경제적 지원의 경우, 심리정서 안정과 생활자립,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건강한 사회진출까지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정책지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예컨대, 단계별 경제 지원방법으로 초기 청소년의 경우, 심리안정과 학습 동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후 생계 기반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까지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단계적 지원방식을 통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필요

[표 3-23] 학교 중단 시기별 경제적 지원 방향

학교 중단 시기	경제적 지원 수요	정책 방향
1개월~6개월 미만	생활 바우처 형태 지원	초기 혼란기: 심리 정서적 안정과 자율성 자립 확보를 위한 생활 바우처 소액을 지원
6개월~1년 미만	교육 참여 수당	동기 회복기: 활동 참여 유도 위한 훈련 수당제 도입
1년~2년 미만	기초생활비	생계 취약기: 현금성 생계지원 필요
2~3년 이상	보건의료비	장기 이탈자: 건강관리 사각지대 보건안전망 구축 필요

[표 3-24]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경제적 지원)

단위: (명), %

경제적 지원		(명)	기초 생활비	용돈 지원	보건 의료비 지원	검정 고시 학원비	교육 (활동, 직업 훈련) 참여 수당	주거 지원 (주거비, 공유 주택 등)	재난 지원비	교통비 지원	취업/자격증 준비 학원비 지원	예체능 (음악/미술/운동) 강습비 지원
전 체		(170)	24.1	14.7	18.2	5.9	16.5	1.8	3.5	2.9	7.6	4.7
성별	남성	(91)	25.3	11.0	23.1	4.4	14.3	3.3	3.3	2.2	8.8	4.4
	여성	(79)	22.8	19.0	12.7	7.6	19.0	0.0	3.8	3.8	6.3	5.1
	$\chi^2=9.147$											
연령	18세 이하	(11)	45.5	18.2	0.0	0.0	27.3	0.0	9.1	0.0	0.0	0.0
	19세 이상	(159)	22.6	14.5	19.5	6.3	15.7	1.9	3.1	3.1	8.2	5.0
	$\chi^2=9.023$											
지역	시	(119)	16.8	13.4	21.8	6.7	17.6	2.5	5.0	3.4	9.2	3.4
	군	(51)	41.2	17.6	9.8	3.9	13.7	0.0	0.0	2.0	3.9	7.8
	$\chi^2=19.811^*$											
소속기관	꿈드림	(68)	22.6	19.4	11.3	6.5	16.9	0.8	4.0	4.0	8.1	6.5
	청소년 쉼터	(36)	28.6	2.4	40.5	4.8	14.3	2.4	2.4	0.0	4.8	0.0
	$\chi^2=63.561^{***}$											
학업중단 후 경과 기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9)	21.1	26.3	5.3	5.3	21.1	0.0	5.3	5.3	10.5	0.0
	6개월 이상~1년 미만	(36)	13.9	19.4	8.3	8.3	22.2	2.8	5.6	2.8	5.6	11.1
	1년 이상~2년 미만	(51)	41.2	9.8	5.9	9.8	13.7	2.0	2.0	0.0	9.8	5.9
	2년 이상~3년 미만	(42)	14.3	9.5	42.9	2.4	19.0	2.4	4.8	0.0	2.4	2.4
	3년 이상	(21)	19.0	19.0	28.6	0.0	4.8	0.0	0.0	14.3	14.3	0.0
	$\chi^2=71.353^{**}$											

○ 예체능·활동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문화예술 악기, 그림, 사진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27.6%)’이며, 그 다음으로 ‘체육 활동 지원(27.1%)’,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2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8.393$, $p<.05$) 남성 청소년은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31.9%)’을 여성 청소년은 ‘문화예술 악기, 그림, 사진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36.7%)’을 가장 많이 응답함.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12.272$, $p<.001$) 시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31.1%)’이 높게 나타나고 군 지역 청소년은 ‘체육 활동 지원(37.3%)’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18.981$, $p<.05$)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28.2%)’, 쉼터 소속 청소년은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45.2%)’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학업중단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44.225$, $p<.001$) 학업 중단 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청소년은 ‘체육활동 및 청소년활동 바우처 제공(36.8%)’요

- 구가 높고, 6개월 이상~2년 미만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36.1%, 33.3%)', 2년 이상~3년 미만 청소년들은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54.8%)'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청소년들은 '체육활동지원(47.6%)' 요구가 높게 나타남.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 표현의 기회, 신체적 활력 회복이 중요한 복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냄.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보급 필요하며, 예컨대 음악치유, 사진·영상 워크숍, 지역 체육관 연계 운동 프로그램 등 활동 참여 기회 자체가 적은 이들에게 참여비 지원 또는 활동 바우처 제공을 통해 실질적 접근성 확보하고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 여가를 넘어서 심리 안정 및 자기표현 역량 강화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한편, 남성 청소년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31.9%)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여성 청소년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36.7%) 수요가 가장 높았음. 시 지역 청소년은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31.1%) 요구가 크고, 군 지역 청소년은 '체육 활동 지원'(37.3%)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성별 및 지역별로 일상 공간과 활동 기회에 대한 경험이 다르며, 필요로 하는 활동 지원 형태도 다르다는 점을 보여줌. 여성 청소년 중심 문화예술 치유허동 프로그램 확대, 남성 청소년 중심 자유공간(예: 창작공간, 소모임실, 자유 토론공간 등) 확보 지원, 군 지역 청소년 대상 이동형 체육 프로그램, 농산촌 지역 체육시설 연계 사업 추진 필요함. 꿈드림 소속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28.2%) 수요 높음
- 기관별로 살펴보면, 쉼터 소속 청소년은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45.2%) 수요가 높아 쉼터 청소년은 공간의 제약과 사생활 부족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여가공간이나 창작공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며,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가 많아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확장 요구가 나타남. 이를 반영하여, 쉼터 청소년 대상 '자율활동 기반 공간 지원 시범사업' 도입, 꿈드림 소속 청소년에는 전문 예술 강사와 연계된 창의 프로그램 지원 강화가 필요함

[표 3-25]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예체능·활동 등 지원)

단위: (명), %

예체능·활동 등 지원		(명)	체육 활동 지원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	청소년활동 바우처 제공
전 체		(119)	27.1	27.6	25.3	20.0
성별	남성	(51)	29.7	19.8	31.9	18.7
	여성	(158)	24.1	36.7	17.7	21.5
	$\chi^2=8.393^*$					
연령	18세 이하	(11)	18.2	45.5	27.3	9.1
	19세 이상	(159)	27.7	26.4	25.2	20.8
	$\chi^2=2.410$					

예체능활동 등 지원		(명)	체육 활동 지원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	청소년활동 바우처 제공
지역	시	(119)	22.7	30.3	31.1	16.0
	군	(51)	37.3	21.6	11.8	29.4
	$\chi^2=12.272^{**}$					
소속기관	꿈드림	(68)	27.4	28.2	19.4	25.0
	청소년 센터	(36)	26.2	23.8	45.2	4.8
	$\chi^2=18.981^{*}$					
학업중단 후 경과 기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9)	36.8	5.3	21.1	36.8
	6개월 이상~1년 미만	(36)	19.4	36.1	22.2	22.2
	1년 이상~2년 미만	(51)	31.4	33.3	11.8	23.5
	2년 이상~3년 미만	(42)	14.3	23.8	54.8	7.1
	3년 이상	(21)	47.6	28.6	4.8	19.0
	$\chi^2=44.225^{***}$					

○ 기타 영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이 79.4%,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지원'이 19.4%로 나타남.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chi^2=7.005$, $p<.05$) 18세 이하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에 63.6%로 19세 이상이 80.5%인데 비해 다소 낮고 권리 침해 사례 지원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79.4%가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사회안에서 단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아닌 능동적인 진로 탐색자, 혹은 다양한 삶의 경로를 택한 청소년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됨.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환 캠페인 전개, 공공기관, 학교, 기업,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한 편견 해소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스토리텔링형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후기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낙인을 더 자각하고 있으며, 전기 청소년은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차별적 경험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전기 청소년에게는 현장 중심의 권리 보호 체계 우선 지원으로 상담 접근성, 긴급 대응 매뉴얼 제공 등을 강화하고, 후기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편견 해소와 제도 개선 중심의 참여형 정책 확대 차원에서 청년 서포터즈, 정책제안단 참여 활성화 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18세 이하 전기 청소년의 경우 인식 개선보다 권리침해 지원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현장에서의 차별·폭력·배제 경험이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대응 전담 기구 설치 또는 기존 청소년인권센터와의 연계 강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및 법률·심리·의료 연계 지원 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명시한 '청소년 권리보장 조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다각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

[표 3-26] 영역별 가장 필요한 도움(기타)

단위: (명), %

		(명)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 지원
전 체		(119)	79.4	19.4
성별	남성	(51)	82.4	17.6
	여성	(158)	75.9	21.5
	$\chi^2=2.864$			
연령	18세 이하	(11)	63.6	27.3
	19세 이상	(159)	80.5	18.9
	$\chi^2=7.005^*$			
지역	시	(119)	79.8	19.3
	군	(51)	78.4	19.6
	$\chi^2=0.391$			
소속기관	꿈드림	(68)	75.0	23.4
	청소년쉼터	(36)	92.9	7.1
	$\chi^2=7.945$			
학업중단 후 경과 기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9)	63.2	36.8
	6개월 이상~1년 미만	(36)	75.0	22.2
	1년 이상~2년 미만	(51)	84.3	15.7
	2년 이상~3년 미만	(42)	85.7	14.3
	3년 이상	(21)	76.2	19.0
	$\chi^2=9.823$			

4. 정책적 시사점

1) 현장기관 정책수요

○ 현장기관의 운영 전반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재정적 제약이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라 예산은 일부 증가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센터 대부분이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사이동이나 휴직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공백이 발생해 업무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 추진되며 행정적 업무 분산으로 사례관리 청소년 수에 비해 종사자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이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확인됨. 예산 삭감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이 지연되고 운영의 안정성 확보도 어려운 구조적인 제약의

로 지속가능한 서비스 지원이 어려움. 센터 위상과 기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며 대다수 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의사결정 권한 부재로 인한 운영 전반에 제약이 나타남. 또한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수 감소로 지원 정책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처럼 접근성의 제한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찾아가는 진로 상담 및 정서상담 서비스 등이 필요함

- 한편, 청소년 전용공간 부족,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공백이 지적되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대상별 체계적 통합 지원이 중대한 과제로 확인되었음. 각 센터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진로 탐색이나 자립 역량 강화, 정서적 안정 등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자 인력 충원 등 인적자원의 재정비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수. 둘째, 센터의 위상 강화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센터가 지역 청소년 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 운영 과정에서 자율성과 의사결정 보장도 필요. 셋째, 지역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 읍면 단위 문화나 여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됨. 정책 대상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라도 소수 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지속적 지원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함. 넷째,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 지역사회 적응, 문화·정서·진로 측면을 우선적으로 아우르는 종합적 통합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 효과성이 나타나는 프로그램들을 확대 적용하거나 타 지역에 공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자격증 취득 과정, 멘토링, 자립수당, 자기계발 동아리 등은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립 의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정리하여 표준 모델화 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무엇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 이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그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기관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 가장 유익했던 서비스 프로그램,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음

(1) 기관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

- 사업비 증액 추이에 비해 안정적 인력 충원을 위한 지자체 관심이 부족함
- 근무환경 개선 필요하며,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증가로 심층 상담지원이 필요하지만 전담인력 사업수행으로 깊이 있는 사례개입의 어려움이 발생함
-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어 이직, 인사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실무자 인력 공백에 영향이 큼
- 사례관리 청소년 인원 수 대비 센터 종사자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고, 예산 삭감으로 인한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

(2)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

- 도 및 시·군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 등록 청소년 대비 사례관리자 적정비율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가 많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수도 감소하고 있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대부분 위탁운영으로 기관 내 하위조직으로 인식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하고, 의사결정 권한 부족 등의 제역 있으므로, 센터가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심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대중 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먼단위 지역에 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움

(3) 가장 유익했던 서비스 프로그램

- 〈꿈드림 청소년단 정책제안 도 단위 집합 프로그램〉,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거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과제 발굴,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시·군센터 프로그램에 비해 다양한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가 마련됨”
- 〈자립동기부여 프로그램〉, 공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에서 운영한 자립동기프로그램을 통해 자립동기과정 캠프가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수료함으로써 자격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음”
- 〈자기계발 프로그램(스포츠, 음악, 요리)〉, 보령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으며, 매년 수요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의 취미 소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임”
- 〈멘토링프로그램〉, 아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대비반 운영을 위한 학습멘토링으로 시작하였지만 대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서적 멘토 활동을 통해 센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크게 일조하였으며, 적응을 함으로써 수혜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과(진학, 취업)으로 연결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음”

〈급식 지원 세상소통카드 지원〉, 서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산지역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생활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아 현금성 지원이 용이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논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4년 센터 서비스/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결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학교밖청소년부모자조모임〉, 계룡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보호자들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당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센터의 지원을 받아 자기계발을 하는 영역이 만족도가 높았음”

〈사진·시 동아리 ‘시시 때때’ 프로그램〉, 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 알바 또는 개인 일정으로 장기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매번 참석하기 힘든데, 사진·시 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여 접근성이 높아 참여율이 매우 높았고, 지역 내에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직접 사진도 찍어보고 시도 작성하여 창의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진·시집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자존감 향상의 좋은 기회가 되었음”

〈자립지원/자기계발 동아리 ‘반짝’〉, 부여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래 관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해소와 공통 관심사 공유의 기회 제공으로 협력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되고 동아리라는 공동체 소속감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단절감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성취를 경험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증가되고, 개인의 흥미와 역량을 발견하여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재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 탐색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기여함”

〈학교밖청소년 자립수당지원〉, 서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참여율이 낮았던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센터 방문 횟수를 높일 수 있었고, 자립수당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과 진로 역량강화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선정함”

〈공모사업 자격증 취득 과정 - 바리스타 자격증, 민간 제빵 자격증〉, 청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의 사전요구를 반영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음”

〈길 위의 학교(학교밖청소년 소록도 봉사활동), 청소년 카페 ‘파란’〉, 홍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길 위의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밖청소년들이 받기만 하는 주체가 아닌 베풀 수 있는 주체로서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응이 좋았으며, 청소년 카페 ‘파란’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검정고시 준비반〉, 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는 대부분의 학교밖청소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

이 높으며, 현재 검정고시 준비반은 꿈드림 멘토단의 학습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가 개소한 2015년부터 꿈드림 멘토단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멘토단원의 변동도 거의 없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관계형성에 긍정적임.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과의 라포 형성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수업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핸드드립 마스터 자격증 과정〉, 태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커피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직업 선택 및 진로 설계를 도우며 자존감과 성취감을 향상시켜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줌”

(4) 현안 과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용 공간이 열악함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함
- 한국어가 어려운 다문화, 이주배경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이 없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만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 예산 문제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증가와 이에 따른 정책적 관심 확대는 근무환경개선 등 해결 방안이 없는 한 전담 인력의 업무과중만 초래함

2) 2025년도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먼저, 학업 중단 사유에 따른 관련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화, 진로 설계 연계 및 접근성 확대, 지원제도 연계 강화, 정서적 지원 체계 및 후속관리 체계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실태조사 주요한 결과로 첫째, 학업 중단 사유의 다양성과 중단 시기의 집중으로, 충남 지역 학교 밖 청소년 1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학업 중단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에 집중되는 경향(65.3%)을 보였으며, 중학교 졸업 이후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24.7%에 달했음. 이는 학업에 대한 명확한 동기 부족, 교육 시스템과의 부적응, 혹은 다른 진로 선택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학업 중단 사유로는 검정고시 준비(13.3%), 심리적 문제(9.6%), 자신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9.6%)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고, 기타 항목에서는 ‘공부에 흥미가 없음’, ‘학교 분위기와 맞지 않음’, ‘취업 및 소득 추구’ 등 다양한 개인적 이유가 확인되었음. 이는 획일적인 교육 제도와 진로 탐색 기회의 부족이 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냄. 둘째, 제도 및 지원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예: 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비교적 높은 인지율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은 인지율과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음.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율도 20%에 불과하여 조기 개입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항. 이는 정보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과 접근성 문제로 이어지며, 정보격차로 인한 제도 활용의 편차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 대부분이 오프라인 권유를 통해 기관에 접근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습득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 탐색에 대한 높은 관심과 낮은 실천력으로 조사 대상 청소년 중 58.2%는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미래 직업 변화 예측의 어려움(25.3%), 직업 종류에 대한 정보 부족(22.2%), 자기 강점 파악의 미비(21.2%)가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과 자기이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진로 결정 방식 중 ‘혼자 결정’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경우(31.0%)가 뒤를 이었음. 이는 청소년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 지원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개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넷째, 심리정서적 지지의 부족과 사회적 낙인 경험으로, 청소년 중 12.9%만이 최근 1년 내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5.9%에 달했음. 또한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는 항목에 공감한 청소년이 43.5%로, 사회적 낙인에 대한 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도 많았으나(68.8%),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다르게 취급받는다’는 인식도 절반 가까이 나타나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포용성 제고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먼저,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관련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화, 진로 설계 연계 및 접근성 확대, 지원제도 연계 강화, 정서적 지원 체계 및 후속관리 체계 마련 등으로 첫째, 학업 중단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강화로 학업중단숙려제 실효성 제고를 통하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다양화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또한 학교 내 통합 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조기 위기 징후를 포착하여 진로·심리·생활 전반에 대한 통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그리고 진로 대안 교육과정 등의 정보 접근성을 활성화하여 학업 중단 이전 단계부터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로 및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청소년 지원제도 연계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종합정보 포털 구축함으로써, 꿈드림, 위기청소년지원, 내일배움카드 등 각종 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통합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함. 찾아가는 연계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방문 상담 및 지속적 관계 형성을 통해 제도 연계를 활성화하여야 함. 셋째, 진로설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진로 탐색, 진로 설계,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함. 또한 직업 체험·멘토링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 종사자들과의 만남, 직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실감 있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 야 함. 그리고 창업·직업 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67.6%)을 반영하여, 창업 기초 교육, 실습,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정서적 지지체계 및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상담사 및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를 늘리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확보해야 함. 또한, 자존감 회복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소그룹 대화, 예술치유, 관계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그리고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과 성공 사례 홍보를 통해 포용적 문화 형성을 유도하여야 함
 - 다섯째, 제도 연계 후속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 후속지원 전담제를 도입하여 제도 이용 이후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소년에 대한 전담 상담 체계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동행과 지원을 보장해야 함. 또한 청소년 의견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고, 청소년 정책 자문단 및 온라인 제안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 궁극적으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단순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와 욕구를 지닌 독립적 주체임을 보여줌. 이에 따라 관련 지원 정책은 ‘보호’ 중심에서 ‘역량 강화’와 ‘사회적 포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제도 간 연계성, 실효성, 접근성을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됨. 이를 토대로 청소년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업중단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에서의 교육청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특히, 학업중단 시기 집중시기로 고1에 집중(65.3%)된 학업중단을 고려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현장의 학업중단위기 조기 감지 및 숙려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 구체적인 교육청 연계 방안으로는 첫째, 학업중단숙려제에 다양한 콘텐츠와 개별 맞춤형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청이 주도해 도입, 학교 내 통합상담 시스템 구축(진로·심리·생활 통합) → 교육청 소속 전문인력 및 컨설팅 체계와 협업, 검정고시, 대안교육, 직업교육 등 진로 대안 교육경로 정보를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둘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교육청-센터 공동 운영이 필요함. 진로설계 정보 접근성 수요(진학·입시 정보, 진로체험, 진로설계 등)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고, 꿈드림센터 및 지역 교육지원청 진로부서 공동 프로그램 운영(진로박람회, 멘토링, 직업 체험 등),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단계별 모듈화로 교육청 주도 커리큘럼과 센터의 실행 역량 연계하여 진로 진학 컨설팅(교육청 인력)와의 협업 멘토링 체계 구축하도록 함. 셋째,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 연계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핵심 학습지원은 ‘멘토링 기반 관계형 학습지원’의 일환으로 교육청이 보유한 지역 인적자원(교사, 퇴직교사, 진로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단 구성, 지역 교육기관(평생학습관, 위(Wee)센터 등)과 연계한 비형식 학습과정 지원, 교육청-센터 간 학습지원 매뉴얼 공동 개발 및 멘토-멘티 매칭 시스템 구축을 설계할 수 있음. 넷째, 정서·심리 지

- 원 교육청 연계 방안으로 Wee센터, 교육청 소속 전문상담교사, 학업중단숙려지원팀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정기적 연계 회의 운영 및 고위기 청소년 정보 공유 프로토콜 마련, 교육청 차원에서 심리 정서 프로그램(예술치유, 마음건강 캠프 등) 공동 운영 등을 살펴볼 수 있음. 다섯째, 청소년은 정보 접근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인지 편차도 큼에 따라, 정보 전달 및 홍보 연계의 일환으로 교육청 주관 진로·진학 정보 포털 또는 앱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 섹션 신설, 학교에서 중단 직전 청소년 대상 센터 연계 정보 사전 제공 체계 구축, 교육청 홈페이지, 각급 학교 등을 통한 홍보자료 배포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여섯째,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피드백 선순환을 위해 공동 평가 및 정책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충남도교육청-충남도청-센터 간 정기 정책협의회 운영, 공동 실태조사 및 성과 공유회 개최, 교육청이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 구성 등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표 3-27] 교육청과의 연계 방안

영역별	교육청 연계 방안
학업중단 예방	숙려제 개선, 통합상담 체계 구축, 대안교육 정보 제공
진로설계	단계별 진로 프로그램 공동 운영, 진로 박람회 협력
학습지원	퇴직 교사 멘토단, 비형식 학습과정 운영 협력
정서심리	Wee센터, 상담교사 연계 및 위기청소년 공동 지원
정보접근	진로 포털 내 전용 정보 제공, 사전 연계 체계 구축
정책협력	정기 협의체, 실태조사 공동 수행 및 성과 공유

3) 시계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비교분석

-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2023년 및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연도별 주요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항목별 분석결과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음
- 2023년 조사의 경우 주로 정책 수요 파악에 중점을 둔 반면, 2025년은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구조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 실시됨. 각 영역별 실행 기반 시스템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청소년 지원 정책 성숙도 제고 방안 모색 등의 변화가 확인됨

(1) 항목별 분석결과

(가) 학업중단 사유와 진로발달

- 2023년 조사는 유형별 학업을 중단한 사유와 상태 진단에 초점을 두었고, 2025년 조사의 경우 구조적 문제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구체화에 중점을 두었음
- 2023년 조사결과 학업을 중단한 주요한 사유를 소속기관별로 파악하였고, 꿈드림센터 소속 청소년은 '학교에 의미를 느끼지 못함'이나 '심리적 문제'를, 대안학교 소속 청소년은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를, 쉼터 소속 청소년은 다시 '학교에 의미 없음'을 주요 학업중단 사유로 확인하고 있음. 청소년 개별의 주관적인 동기와 정서적인 요인이 학업중단의 주요한 원인으로 확인하고 있음. 진로 분석 결과에서는 학업형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진로 정보의 부족, 자부심의 저하, 진로 장벽의 상승 등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확인함
 - 반면, 2025년 조사결과, 학업중단 이후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많았으며, 숙려제 참여율도 2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특히 자기이해 부족과 진로 실행 역량 미흡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로 4단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전반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행 중심의 진로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표 3-28] 학업중단 사유 및 진로발달 시계열 분석 결과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학업 중단 사유	소속 유형별 상이. 꿈드림: '학교에 의미 없음', '심리적 문제' / 대안학교: '원하는 것 배우고자' / 쉼터: '학교 의미 없음'	학업중단 이후 진로 미설정, 숙려제 참여율 20%에 불과
진로발달	학업형(42.67%) > 무업형(18.00%) > 병행형(13.67%) 순. 진로에 대한 정보 필요성과 자부심 저하, 진로장벽 상승	자기이해와 진로 실행 역량 부족, '진로 4단계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강조

(나) 심리·정서 상태 및 사회적 인식

- 2023년 조사결과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고, 2025년은 심리적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23년 결과,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은 낮게 나타나며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함. 청소년의 67.32%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위축된 경험이 나타나 사회적인 낙인 문제를 확인함
 - 2025년 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예술치유, 반려동물치유 등 다양한 정서적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시함.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는 플랫폼 강화가 강조됨

[표 3-29] 심리정서 상태 및 사회적 인식 시계열 분석 결과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자아존중감 및 심리상태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 낮음. 심리상담 필요성 제기	심리상담 이용률 낮고 낙인감 높음. 예술치유, 반려동물치유 등 정서회복 프로그램 강화 필요
사회 인식	청소년 67.3% 인식 개선 요구함	사회 인식 개선 및 참여 플랫폼 강화

(다) 지원제도 접근성 및 만족도

- 2025년 조사결과 통합적인 지원제도 체계 구축과 지속적 사후관리 방안으로 참여형 원스톱 플랫폼 체계를 제안함
 - 2023년 조사는 정책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에 있어서 격차가 나타나는 한편, 경제적 직접지원인 장학금이나 청소년카드 등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2025년 조사는 정보 접근성과 연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으로 '원스톱 포털 플랫폼' 등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전담관리제' 도입과 참여형 플랫폼 강화를 강조함

[표 3-30] 지원제도 접근성과 만족도 시계열 분석 결과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정책 인지 및 이용	인지도 19.3379.33%, 이용률 17.3378.20%로 격차 있음	정보 접근성과 연계 부족 → '원스톱 포털 플랫폼', 키오스크 설치 등 접근성 확대 강조
정책 만족도	경제적 직접지원(장학금, 카드 등) 만족도 높음	후속 관리 미흡 지적 → '청소년 전담관리제' 도입, 참여형 플랫폼 구축 제안

(라) 급식, 건강, 기본 생활 지원

- 기본 생활지원 측면에서 2023년은 필요 중심 수요 조사, 2025년은 통합적 서비스 설계와 자립지원 강화에 방점을 둘 수 있음
 - 2023년 조사 결과 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불규칙한 식습관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급식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건강 및 복지 영역에서는 용돈 지원, 청소년 공간 제공 등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으나, 서비스 항목이 구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의 세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반면, 2025년 조사에서는 개별 서비스 제공보다는 정서적 지원, 자립 지원, 사회통합을 포괄하는 통합형의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식이 확인되었음. 복지 기반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이 강조되면서, 기존 단편적 수요 조사에서 벗어나 청소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설계 및 전달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음

[표 3-31] 기본 생활 지원 시계열 분석 결과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급식 지원	불규칙 식습관, 급식지원 확대 요구	급식지원에 대한 측면보다는 복지 기반 지원 확대 포함
건강·복지 지원 수요	급식지원(32.33%), 용돈지원(40.33%), 청소년공간 요구	구체적으로 분리 제시되진 않으나, 정서·자립·사회 통합 중심 서비스 확대 강조

(2) 주요 비교 항목별 분석결과 시사점

(가) 학업중단 사유 및 진로발달 상태

-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소속에 따라 학업중단 사유가 상이하게 나타났음. 꿈드림 소속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및 ‘심리·정신적 문제’가 주된 이유였으며, 대안학교 소속 청소년은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라는 비교적 능동적인 이유를 들었음. 반면, 쉼터 청소년의 경우는 보호자와의 사전 논의 부족과 낮은 진로발달 수준이 확인되었음
- 2025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학업중단 이후의 상태에 더 주목하며,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많고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많으나 자기이해와 실행 능력은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진로 설계부터 실행까지를 포함한 단계별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나) 심리·정서 상태 및 사회적 인식

- 2023년 조사에서는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정서적 안정감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특히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담이 청소년들의 위축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 2025년 조사결과 사회적 낙인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심리상담 이용률은 낮은 반면 사회적 고립감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예술치유, 반려동물 매개치료, 애니어그램 등 다양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의 활성화 필요성이 높고, 포레 커뮤니티 및 자치모임 등의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다) 정책 인지도 및 이용 실태

- 2023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인지 수준은 정책별로 19.33%~79.33%로 다양했으며, 실제 이용률은 이보다 낮은 17.33%~78.20%로 나타나 인지와 이용 간

간극이 존재하였음. 특히 경제적 직접지원(장학금, 청소년카드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정보 접근성이 낮고 연계체계가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2025년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책인지도 제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원스톱 포털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됨.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추천 시스템이나 키오스크 설치,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가 전제되어야 함

(라) 건강·복지 및 기본 생활 지원

- 2023년 조사결과에서는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의 식습관이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나, 점심과 저녁의 섭취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건강·복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요는 급식지원과 용돈지원이었음
- 2025년도 조사 결과, 이러한 기본적 생활 안정 지원, 자립과 역량 강화 서비스로 확장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직업체험, 창업교육 등 직무실습 기회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심리정서적 회복지원사업 확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

(3) 소결

- 2023년 실태조사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25년 실태조사는 파악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특히 2025년 조사에서는 학업 중단 예방에서부터 자립과 사회통합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제시된 측면에서 기존 조사에서 한단계 정책적 진일보가 있었음

[표 3-32] 시계열 분석 결과 및 주요 시사점1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유형별 특성을 진단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정책지원의 방향성	지원 필요한 영역 중심으로 제언	학업, 진로, 심리, 자립, 인식개선로의 통합적인 정책 지원 체계 강화
주요 결과	학업 중단 사유, 진로 특성, 서비스 수요 확인	정책 플랫폼, 통합적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체계 등 전략 구체화

- 기존 2023년 조사가 주로 조사 결과와 문제 진단에 초점을 맞췄다면, 2025년 조사는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 설계와 실행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어 구체화 함

[표 3-33] 시계열 분석 결과 및 주요 시사점2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정책방향	유형별 특성에 기반한 개별적 정책 개선 필요성 제기	학업중단 예방 → 진로설계 → 심리회복 → 사회통합의 단계별 통합정책 제시
특화대상 지원	쉼터 청소년은 진로발달 수준 낮고 가정 논의 부족	쉼터 포함, 전체 청소년 대상 구조적 시스템 강조 및 후속조치 체계화

- 학교 밖 청소년은 단순한 학업 중단 상태만을 가진 정책대상이 아닌, 진로, 심리, 사회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위기로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복합적 대상임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2025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방-지원-회복-통합의 전 주기 정책체계를 보다 정교화해야 할 것임

[표 3-34] 시계열 분석 결과 및 주요 시사점3

구분	2023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초점	문제 현황 진단 및 유형별 특성 파악	구조적 대응책 중심 정책화, 실행전략 제언
성과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적 문제 확인	서비스 통합, 디지털 접근성 확대, 정책 사후관리 강화 등 실질적 해결책 제언

-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단절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인프라 조성이 요구됨

1. 학업중단속려제 내실화 및 조기위기 감지 시스템 강화
2. 디지털 기반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연계
3. 진로 설계 및 직무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자립 역량 강화
4. 정서 회복 및 관계성 회복 프로그램의 일상적 지원화
5.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캠페인과 청소년 참여 제도화

제4장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1. 분석틀
2. CIPP 분석
3. 소결

제4장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1. 분석틀

1)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분석틀¹⁶⁾

- 본 장에서는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지원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2024년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결과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황 분석틀로는 CIPP성과분석 모형을 활용하고자 함. 이 분석틀은 전반적인 조직 및 사업의 상황, 투입, 과정, 산출 각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의사결정자의 주요 관심, 정보 요구, 프로그램 효과성의 판단 준거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보는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음
-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성과분석 모형은 의사결정 중심의 평가 접근법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들을 판단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기술하고, 획득하고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즉, CIPP모형은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분석 틀로 설명할 수 있음([표 4-1] CIPP 모형의 평가내용과 평가질문 예시 및 평가방법 참조)
- 이러한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성과평가모델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평가를 실시, 정책개선 과제 도출, 사업 지침 개선 방안 제시하고자 하며, 먼저 본연구의 분석 대상은 도내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건가 및 다가센터 총 17개 가족관련 센터 조직의 성과분석으로 사업별, 추진내용, 참여 인원, 사업효과 등을 살펴보고 검토함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상황평가(Context)인 사업의 목표와 비전 수행 평가(문헌검토, 관계자 면담 등), 투입평가(Input)로 사업의 투입 자원의 적절성 평가(인적 물적 자원 파악), 과정평가(Process) 사업의 목표 효과적 실행 평가(목표 실행과정 지속적 점검), 산출평가(Product) 사업의 산출결과물 평가(평가자료의 양적질적 분석 수행)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할 수 있음
- 과정평가(Process)에서는 평가영역인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과정의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계획 대비 실행수준, 계획된 내용의 구체적 실행정보 및 과정, 참여자 상호작용 등의 내용을 분석·평가함
- 투입평가(Input)에서 사업예산 집행, 지역사회자본 확대, 참여의 자발성의 각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를 통하여 사업의 자원 배분, 필요에 부합하는 자원 검토 등의 내용을 분석·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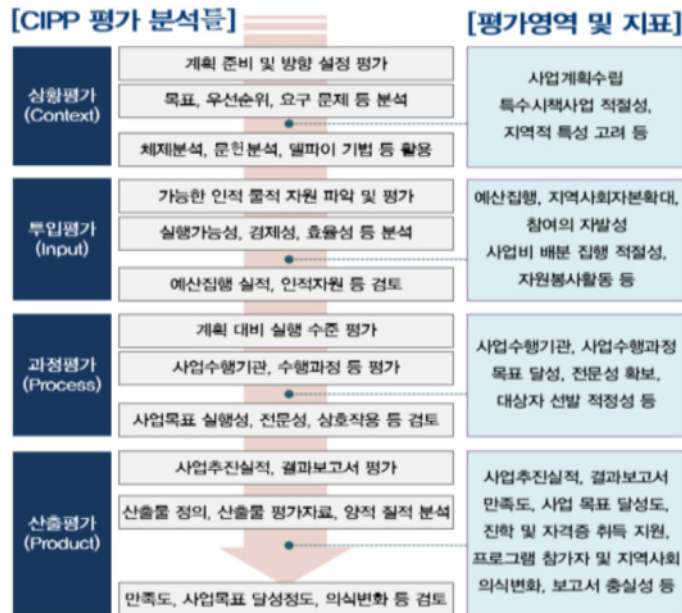
16) 충남 가족정책관련 인프라 조직 진단 연구(안세아, 2024)에서 활용한 분석틀 내용을 재구성함

- 산출평가(Product)에서 적용되는 평가영역으로 사업추진실적, 결과보고서의 세부평가지표인 만족도, 사업 목표 달성 정도, 진학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및 지역사회 의식변화 등의 내용을 활용하여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결과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도출된 산출물에 대한 평가 내용 등의 내용을 분석·평가함

[표 4-1] CIPP모형의 평가내용과 평가질문 예시 및 평가방법

구분	평가내용	평가질문 예시	평가방법
상황평가 (Context)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요구, 문제 그리고 기회를 평가	프로그램은 어떤 목표와 미션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가?	체제분석, 표본조사, 문헌검토, 청취 및 면담, 진단검사, 델파이 기법 등
투입평가 (Input)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필요에 부합하는 대안적 방안을 평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원은 적절한가?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파악, 해결전략, 연관성을 위한 절차설계의 실행가능성과 경제성 목록 작성, 문헌연구의 우수 사례 프로그램과 팀에 대한 방문 파일럿 운영 등
과정평가 (Process)	계획에 대비하여 활동들을 이끌 수 있는 실행수준을 평가	프로그램이 의도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활동에 대한 잠재적 절차상의 장벽을 지켜보고 예상되지 않은 장애물 파악, 계획된 결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정보 획득, 실제 과정 기술, 프로젝트 참여자의 활동을 관찰하고 계속된 상호작용 실시
산출평가 (Product)	의도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인지를 평가	프로그램 산출결과물은 무엇인가?	산출물의 기준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산출물에 대한 평가자로 수집, 양적·질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종합

자료 및 출처: 김혜숙(2014).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이론과 실제, p. 48-49 표 재구성.



[그림 4-1] 조직 현황 분석틀

2) 충청남도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직 현황 분석

- 본 장에서는 성평등가족부 2025년 시도 및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가지표에서 제시된 평가내용 및 평가지표를 CIPP 성과분석틀로 구분하여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영역을 구분할 수 있음. 상황평가의 경우, 사업의 목표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수립의 평가영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의 적절성, 사업의 구체성, 지역적 특성 고려, 내외부의견 수렴 노력 등의 평가지표로 구체화된 평가지표 등을 통해 상황평가(Context) 분석·평가할 수 있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평가지표는 ‘사업인프라’, ‘센터협력도’,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반 노력도’, ‘운영성과’의 영역별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있음
 - 사업인프라 영역 가운데 1.시설 및 예산관리 평가항목에서는 ①센터 설치기준 준수 여부(시도 6점, 시군 4점), ②시설의 안전성(시도·시군 3점), ③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기준 준수 여부(시도·시군 3점)으로 배점하고, 2.인력관리 평가항목은 ①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시도·시군 4점), ②직원의 역량제고 노력(시도·시군 2점)으로 배점 설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센터 협력도 영역은 시도센터와 시군센터의 협력 항목으로 ①종사자 교육 운영의 체계성(시도 5점), ②시군센터 대상 컨설팅 실시(시도 5점), ③수요분석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여부(시도 5점), ④시군센터의 시도센터에 대한 협력(시군 5점)으로 평가항목을 살펴볼 수 있음
 -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반 노력도 영역은 지자체의 지원기반 구축 항목으로 ①조례 및 규칙의 제정(시도·시군 6점), ②재정 확보 수준(시도 5점, 시군 6점), ③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준수(시도·시군 4점), ④센터장 팀장 전임 여부(시도 4점, 시군 5점), ⑤직원의 고용안정성 및 복지 수준(시도·시군 6점)으로 구성 설계하여 평가하고 있음
 - 운영성과 영역 가운데 1.발굴 및 연계 항목은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증가율(시도 6점, 시군 7점), ②개인정보 관리의 체계성(시도 · 시군 4점), ③자원 개발 및 연계 노력(시도 5점, 시군 2점)으로 배점 설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한편, 2.지원서비스 및 성과 항목은 ①지원서비스 제공 증가율(시도 4점, 시군 6점), ②건강검진 지원 노력(시군 4점), ③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시도 7점, 시군 8점), ④청소년활동안전 공제 가입(시도 · 시군 4점), ⑤학교밖청소년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수행 노력(시군 4점)으로 평가항목을 살펴볼 수 있음
 - 이러한 평가영역을 CIPP 평가틀에 적용하면 [표 4-2]와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테면, 산출 평가에 대한 평가는 운영성과 영역으로 적용할 수 있음

[표 4-2] CIPP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적용

구분	CIPP 분석틀 ¹⁷⁾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평가지표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지표
상황평가 (Context)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요구, 문제 그리고 기회를 평가	체제분석, 표본조사, 문헌검토, 청취 및 면담, 진단검사, 델파이 기법 등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반 노력도	지자체의 지원기반 구축	조례 및 규칙 제정, 재정 확보 수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센터장 팀장 전임 여부, 직원 고용안정성 및 복지수준
투입평가 (Input)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필요에 부합하는 대안적 방안을 평가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파악, 해결전략, 연관성을 위한 절차설계의 실행가능성과 경제성 목록 작성, 문헌연구의 우수 사례 프로그램과 팀에 대한 방문 파일럿 운영 등	사업 인프라	시설 및 예산 관리	센터 설치기준 준수 여부, 시설 안전성,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인력관리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 직원의 역량제고 노력
과정평가 (Process)	계획에 대비하여 활동들을 이끌 수 있는 실행수준을 평가	활동에 대한 잠재적 절차상의 장벽을 지켜보고 예상되지 않은 장애물 파악, 계획된 결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정보 획득, 실제 과정 기술, 프로젝트 참여자의 활동을 관찰하고 계속된 상호작용 실시	센터 협력도	시도 센터와 시군 센터의 협력	종사자 교육 운영 체계성, 시군센터 대상 컨설팅 실시, 수요분석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여부, 시군센터 시도센터 협력
산출평가 (Product)	의도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인지를 평가	산출물의 기준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산출물에 대한 평가자료 수집, 양적·질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종합	운영성과	발굴 및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증가율, 개인정보 관리 체계성, 자원 개발 및 연계 노력
				지원 서비스 및 성과	지원서비스 제공 증가율, 건강검진 지원 노력,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청소년활동안전 공제 가입, 정책사업 수행 노력

17) 자료: 김혜숙(2014).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이론과 실제 지표 및 평가매뉴얼 개발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2.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분석

1) 상황평가(Context)

- 본 절에서는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둘러싼 상황(context)을 분석함. 도내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개요와 변천과정, 충남 도내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센터사업의 기능과 주요 사업 등을 살펴봄
 - 구체적으로,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들의 추진근거 및 체계, 관련 조례 및 추진 지침 등 계획 준비 및 방향 설정 등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음
- 충남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황평가를 위하여 추진대상, 추진근거, 추진지침 및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지침,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현황 등을 살펴보면, 우선 관련 법률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음. 한편, 제12조의2 지원센터의 평가에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로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에서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소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명시하고 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가.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나.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 수행다. 청소년을 위한 활동진흥 지원 및 학교교육의 보완 라.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자립지원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바. 청소년 육성정책에 필요한 사업“ 로 명시하고 있음

[표 4-3] 충남 도내 지원센터 관련 조례 현황

구분		관련 조례 여부	내용	시행일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 22.] [충청남도조례 제4894호, 2021. 2. 22., 일부개정]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2024-12-30 조례 제 5804호
1	금산군	○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21. 11. 22.]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일부개정]
2	논산시	○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1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040호, 2016. 1. 11., 제정]
3	당진시	○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21. 10. 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965호, 2021. 10. 29., 일부개정]
4	보령시	○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15. 7. 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168호, 2015. 7. 10., 제정]
5	부여군	○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18. 12. 14.]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470호, 2018. 12. 14., 제정]
6	서산시	○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23. 9. 18.]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829호, 2023. 9. 18., 일부개정]
7	서천군	○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21.]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일부개정]
8	예산군	○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22. 1. 13.]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727호, 2021. 12. 24., 전부개정]
9	천안시	○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2.]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477호, 2023. 6. 21., 일부개정]
10	청양군	○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15. 10. 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985호, 2015. 10. 13., 제정]
11	태안군	○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31.]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564호, 2021. 5. 31., 제정]
12	홍성군	○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16.]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634호, 2019. 8. 16., 일부개정]
13	공주시	○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시행 2023. 5.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54호, 2023. 5. 1., 일부개정]
14	아산시	○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2. 16.]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582호, 2024. 12. 16., 일부개정]
15	계룡시	○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시행 2020. 11. 1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806호, 2020. 11. 10., 제정]

자료 및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 투입평가(Input)

(1) 센터별 예산현황

○ 2024년 충남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센터 세입 총액은 약 40.8억 원으로 국비(37.5%), 도비(30.1%), 시·군비(19.0%), 후원금 및 기타(13.3%) 구성되어 있음. 지출도 동일한 수준(40.5억 원)으로 인건비(45.7%)와 사업비(48.0%)가 대부분을 차지함. 거점센터는 전체 예산의 약 42%를 차지하며, 사업비 비중이 크고 운영의 중심적 역할 수행하고 있음. 전체 예산에서 국비·도비 비중은 67.6% 수준으로 비교적 높으나, 일부 지자체 자부담 편차 존재하며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 차원의 장기적 재정지원 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 세입 현황

- 2024년 기준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세입 총액은 4,085,911천원으로 나타남. 기관별 세입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4-4] 기관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국비	도비	시·군비	법인 전입금	수익자 부담 수입 (수업료 등)	후원금 (기부금)	기타
전체	4,085,911	1,530,506	1,229,520	776,385	-	-	5,000	544,500
충청남도 (거점센터)	1,734,614	269,993	927,121	-	-	-	-	537,500
공주시	151,739	92,217	6,000	53,522	-	-	-	-
보령시	106,642	62,049	5,400	39,193	-	-	-	-
아산시	359,536	134,502	30,886	194,148	-	-	-	-
서산시	193,040	98,468	14,640	79,932	-	-	-	-
논산시	234,085	165,085	44,000	25,000	-	-	-	-
계룡시	104,643	88,643	16,000	-	-	-	-	-
당진시	246,339	112,728	51,570	79,541	-	-	-	2,500
금산군	149,924	68,958	29,866	46,100	-	-	5,000	-
부여군	147,802	67,178	35,291	45,333	-	-	-	-
서천군	116,642	88,642	16,000	12,000	-	-	-	-
청양군	123,657	67,178	9,166	42,813	-	-	-	4,500
홍성군	117,767	71,658	12,116	33,993	-	-	-	-
예산군	160,709	73,459	19,831	67,419	-	-	-	-
태안군	138,772	69,748	11,633	57,391	-	-	-	-

○ 기관 지출 현황

- 2024년 기준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출 총액은 4,085,911천원으로 나타남. 기관별 지출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4-5] 기관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기타
전체	4,052,687	1,853,921	1,947,964	250,801	1
충청남도 (거점센터)	1,734,614	551,933	1,094,769	87,912	-
공주시	150,276	125,884	21,637	2,755	-
보령시	104,934	70,962	24,529	9,443	-
아산시	359,536	163,350	128,619	67,567	-
서산시	193,040	122,149	65,300	5,591	-
논산시	233,310	110,856	118,746	3,708	-
계룡시	104,641	69,749	19,807	15,085	-
당진시	245,339	98,534	146,805	-	-
금산군	141,361	72,552	59,783	9,026	-
부여군	147,802	83,900	51,139	12,763	-
서천군	104,642	67,212	27,900	9,530	-
청양군	117,943	78,472	28,891	10,580	-
홍성군	130,365	84,376	45,676	313	-
예산군	153,530	75,761	68,563	9,206	-
태안군	131,354	78,231	45,800	7,322	1

(2) 센터별 인력현황

- 충남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조사를 결과로 주요 현황조사 내용은 조직구성 체계, 학교 밖 청소년 이용 현황(전체 이용 학교 밖 청소년 수) 및 학업중단 사유, 해당 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봄
- 상근 직원 총 53명, 여성 비율이 92.5%로 매우 높으며 연령대는 30대(35.8%)와 50대 이상(26.4%)이 많음. 채용형태는 정규직(49.1%), 무기계약직(24.5%), 계약직(26.4%)으로 확인되며, 학력은 대졸(47.2%), 석사(43.4%), 박사(9.4%)로 나타나며, 자격증은 청소년지도사(52.8%), 청소년상담사(47.2%), 사회복지사(49.1%)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정규직 비율은 절반 수준, 여전히 계약직 의존도가 높으며,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와 전문성 개발(자격증, 연수, 슈퍼비전 체계)이 필요함

- '22년도 현황에서는 시 단위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총 5개소가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모든 센터에서 센터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과 겸임하고 있었으며 1개소를 제외하면 모두 1인의 팀장과 2인의 팀원 또는 3인의 팀원으로 구성되었고 E센터는 팀장1인 및 팀원 3인으로 조직이 구성됨. 성평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지정 기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군센터는 담당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되 가형은 4명 이상, 나형은 3명 이상, 다형은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기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되 그 이상의 인력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에 참여한 시 단위 내 5개소의 '22년 이용 인원은 104~314명이었음. '학습문제 및 학교부적응' 또는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가 학업중단의 주요 사유로 나타남. 학교 밖 청소년 담당자가 판단한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학업과 관련한 검정고시 준비, 진로와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외부활동 또는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및 급식지원으로 나타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및 외부활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안교육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 충청남도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의 경우 총 53명이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 92.5%, 남성 7.5%, 20대 15.1%, 30대 35.8%, 40대 22.6%, 50대 이상 26.4%로 나타남, 채용 형태의 경우 정규직 49.1%, 무기계약직 24.5%, 계약직 26.4%로 나타남

[표 4-6] 상근 직원 현황(1)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직위			성별		연령				채용형태		
		센터장	팀장	팀원	여	남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전체	(53)	20.8	18.9	60.4	92.5	7.5	15.1	35.8	22.6	26.4	49.1	24.5	26.4
충청남도 (거점센터)	(10)	-	20.0	80.0	100.0	-	10.0	50.0	30.0	10.0	60.0	20.0	20.0
공주시	(5)	20.0	20.0	60.0	100.0	-	20.0	20.0	40.0	20.0	-	60.0	40.0
보령시	(3)	33.3	-	66.7	100.0	-	66.7	-	33.3	-	-	100.0	-
아산시	(4)	-	25.0	75.0	75.0	25.0	25.0	25.0	50.0	-	100.0	-	-
서산시	(3)	33.3	33.3	33.3	100.0	-	-	33.3	-	66.7	100.0	-	-
논산시	(4)	25.0	25.0	50.0	100.0	-	-	75.0	-	25.0	100.0	-	-
계룡시	(3)	33.3	-	66.7	66.7	33.3	33.3	33.3	33.3	-	-	-	100.0
당진시	(4)	25.0	25.0	50.0	75.0	25.0	25.0	50.0	-	25.0	75.0	-	25.0
금산군	(3)	33.3	-	66.7	100.0	-	33.3	-	-	66.7	-	-	100.0
부여군	(2)	-	-	100.0	100.0	-	-	50.0	-	50.0	-	100.0	-
서천군	(2)	-	50.0	50.0	100.0	-	-	50.0	-	50.0	100.0	-	-
청양군	(2)	50.0	-	50.0	100.0	-	-	50.0	-	50.0	50.0	-	50.0
홍성군	(3)	33.3	33.3	33.3	66.7	33.3	-	33.3	66.7	-	100.0	-	-
예산군	(3)	33.3	33.3	33.3	100.0	-	-	-	33.3	66.7	-	66.7	33.3
태안군	(2)	50.0	-	50.0	100.0	-	-	50.0	-	50.0	-	50.0	50.0

자료 및 출처: 기관별 조사 응답 결과(2025년도 상반기 기준)

- 충청남도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의 상근직원 53명 학력의 경우 대졸 47.2%, 석사 43.4%, 박사 9.4%로 나타나며, 자격증 보유 현황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52.8%, 청소년상담사 47.2%, 사회복지사 49.1%, 교사 3.8%로 나타남

[표 4-7] 상근 직원 현황(2)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최종학력				자격1)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기타자격증
전체	(53)	-	47.2	43.4	9.4	52.8	47.2	49.1	3.8	20.8
충청남도 (거점센터)	(10)	-	30.0	70.0	-	30.0	50.0	10.0	-	30.0
공주시	(5)	-	60.0	20.0	20.0	60.0	60.0	20.0	20.0	20.0
보령시	(3)	-	66.7	33.3	-	66.7	100.0	33.3	-	-
아산시	(4)	-	75.0	25.0	-	25.0	50.0	75.0	-	-
서산시	(3)	-	33.3	33.3	33.3	100.0	33.3	33.3	-	-
논산시	(4)	-	50.0	25.0	25.0	75.0	25.0	25.0	-	-
계룡시	(3)	-	66.7	-	33.3	66.7	33.3	66.7	-	33.3
당진시	(4)	-	50.0	50.0	-	25.0	50.0	75.0	-	-
금산군	(3)	-	33.3	33.3	33.3	33.3	66.7	66.7	33.3	-
부여군	(2)	-	-	100.0	-	100.0	50.0	100.0	-	50.0
서천군	(2)	-	100.0	-	-	-	-	100.0	-	-
청양군	(2)	-	50.0	50.0	-	100.0	-	50.0	-	50.0
홍성군	(3)	-	66.7	33.3	-	100.0	66.7	66.7	-	66.7
예산군	(3)	-	-	100.0	-	33.3	33.3	66.7	-	33.3
태안군	(2)	-	50.0	50.0	-	50.0	50.0	100.0	-	50.0

1) 복수 응답으로 합이 100% 이상 나타날 수 있음

- 2025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일반 현황¹⁸⁾의 경우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거점센터 1개소와 시·군별 15개소로 설립되어 있음. 천안시를 제외한 거점센터 1개소와 시·군별 14개소 기관 일반 현황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민간위탁, 직영 등 다양한 운영형태가 혼재되어 있으나 관리·감독 체계가 일관되지 않음. 표준화된 성과관리 지표와 운영평가 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을 균등하게 보장할 필요

18) 기관별 취합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내용임

[표 4-8] 기관 일반 현황

구분	운영형태	운영기관유형	주무관청 (등록관청)	개소일	경영감사	경영공개
충청남도 (거점센터)	설치	-	충청남도	2015. 05	자체감사	외부공개
공주시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공주시청	2015. 04	자체감사	자체공개
보령시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보령시청	2015. 06	외부감사	외부공개
아산시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아산시청	2017. 01	자체감사	자체공개
서산시	지정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재단	서산시청	2015. 06	외부감사	외부공개
논산시	설치	-	논산시청	2015. 05	외부감사	외부공개
계룡시	지정	종교단체 및 종교 법인	계룡시청	2015. 03	미실시	비공개
당진시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당진시청	2022. 02	외부감사	외부공개
금산군	지정	학교법인	금산군청	2015. 04	미실시	비공개
부여군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부여군청	2019. 01	외부감사	외부공개
서천군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서천군청	1994. 01	외부감사	외부공개
청양군	설치	-	청양군청	2016. 03	미실시	자체공개
홍성군	지정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재단	홍성군청	2014. 08	외부감사	외부공개
예산군	설치	-	예산군청	2015. 05	미실시	비공개
태안군	지정	민간단체 및 기타법인	태안군청	1996. 06	자체감사	자체공개

자료 및 출처: 기관별 조사 응답 결과(2025년도 상반기 기준)

- 충청남도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기관별 공간현황의 경우 임대 8개소, 자가 7개소로 나타남. 공간현황의 경우 임대 8개소(거점센터,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자가 7개소(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로 나타남. 전용공간 확보의 경우 독립된 기관 2개소, 타 기관 내 설치 6개소, 타 기관과 공간 공유 7개소로 나타남
- 총 15개소(거점센터 1, 시·군센터 14)로 운영형태는 ‘설치형(지자체 직영)’과 ‘지정형(민간 위탁)’ 혼재하며, 공간 현황: 임대(8개소), 자가(7개소)형태로 공간 안정성이 취약한 기관 존재하며 독립공간 확보는 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타 기관 내 설치·공유 형태로 확인됨. 임대·공유형 공간 비율이 높아 독립성과 안정성이 부족, 청소년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장기적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4-9] 공간 현황

구분	총 면적(㎡)	공간 소유 여부	임대 현황	전용공간 확보 여부
충청남도(거점센터)	462.0	임대	월세	독립된 기관
공주시	152.0	임대	지자체 건물	독립된 기관
보령시	268.0	자가	-	타 기관 내 설치
아산시	478.0	임대	시 소유 무상임대	타 기관 내 설치
서산시	174.1	자가	-	타 기관 내 설치
논산시	22.0	자가	-	타 기관과 공간 공유
계룡시	279.0	임대	지자체 건물	타 기관과 공간 공유
당진시	98.6	자가	-	타 기관 내 설치
금산군	127.0	자가	-	타 기관과 공간 공유
부여군	205.4	임대	지자체 건물	타 기관과 공간 공유
서천군	204.6	임대	월세	타 기관과 공간 공유
청양군	49.5	자가	-	타 기관 내 설치
홍성군	153.9	임대	무상임대	타 기관 내 설치
예산군	70.0	자가	-	타 기관과 공간 공유
태안군	203.0	임대	청소년수련관 내 기관 있음	타 기관과 공간 공유

자료 및 출처: 기관별 조사 응답 결과(2025년도 상반기 기준)

3) 과정평가(Process)

- 본 절에서는 과정평가(Process)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충남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별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측면을 살펴봄, 예컨대,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우수 사례에 대한 평가 등으로 우수사례 개발 추진 과정, 활용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등의 평가 기준을 과정평가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충남도는 전년도 사업평가 및 환류 체계를 통해서, 15개 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사업의 운영 점검체계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15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컨설팅 및 현장점검,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의,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음

[표 4-10] 전년도 사업 운영 및 환류

내용	일정	목표실적	추진실적
컨설팅 및 현장점검	5월~11월	15개 센터	15개 센터
추진회의	2월, 12월	2회	2회, 94명
우수사례 프로그램 공모전	10월~12월	1회	1회, 49명

출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2025.1.)

- 2025년 성평등가족부 평가 대비 세부적인 평가지표 점검과 보완사항 피드백으로 평가 전략 수립하고, 도내 15개 시군센터 대상 후속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계획서, 공모전 서류 작성

법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함. 또한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의를 실시하여 도와 시군센터 간에 협력체계 강화 및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우수사례는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하여 도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및 공유를 통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 프로그램 균형 발전 기여 및 지역 내 관심을 확대하기 위함

- 도 및 15개 시군 센터 종사자 대상 전문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전체 4종 꿈드림 전문프로그램 전문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 센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표 4-11] 전문인력양성교육

내용	일정	목표실적	추진실적
4종 꿈드림 전문프로그램 전문지도자 교육과정 운영	3월~6월	4회	4회
도 센터 직원 역량강화	2월~12월	10명	11명

출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2025.1.)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활용을 통한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 향후 도내 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통해 전문지도자 프로그램 전체 6종 가운데 수요가 높은 교육 4종을 운영하고자 하며 상담 관련 교육 이외에 직무 관련 교육지원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다양한 정책사업 및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사회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민간자원, 그리고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를 확장하고 있음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업지원, 생활지원, 장학금 등 상시적으로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자원연계 및 신규 연계자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조손가정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표 4-12] 협의체 및 지역자원과 연계

내용	일정	목표실적	추진실적
학교 밖 협의체*	연중	1회	1회
지역자원 연계	상시	-	상시 약 11,900,200원 상당 연계 지원

*협의체는 청소년안전망 복지실무위원회 연계 운영

출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2025.1.)

[표 4-13] 지역자원과의 연계 내용

내용	일정
학업지원	KSD나눔재단 검정고시 교재, EBS 방송교재
생활지원	세이브더칠드런 우리금융미래재단(생필품), 세이브더칠드런 경보제약(여성용품), (주)에스원제약(생활용품), 공동모금회(생활소품)
장학금	등대장학금
기타	레고코리아(레고블록), 건강보험공단(양치도구)

출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2025.1.)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하여 도교육청과 도청 등 다양한 기관 연계, 매체 확장 등으로 잠재적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의무연계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추진하고 있음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장학금, 검정고시 교재 지원, 검정고시 응시지원, 기초소양교육 관리, 대학 학과체험 프로그램,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함
 - 청소년 수요가 높은 검정고시 교재 지원, 프로그램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통한 교육참여장학금 지원, 외국어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대학 학과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권 증진사업을 추진함

[표 4-14]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

내용	일정	목표실적	추진실적
교육참여장학금	1월~12월	100명	100명
검정고시 교재 지원 (높은 수요에 따른 추가지원)	1월~12월	100명	197명
검정고시 응시 지원 (홍보사업연계 운영)	4월, 8월	2회	2회
기초소양교육 관리	1월~12월	-	상시
대학 학과체험 프로그램	9월, 11월	2회	2회, 52명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연계 어학 연수 운영)	7월~12월	-	1회, 39명

출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2025.1.)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학입시지원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진학지원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함. 이를 통해 1대1 대학 입시 컨설팅,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재 및 수능모의평가 응시로 지원,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 지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봉투모의고사 및 교재 지원을 통하여 맞춤형 컨설팅과 입시정보를 제공함
- 향후, 맞춤형 상시입시컨설팅을 운영함으로써 증가하는 입시컨설팅 수요에 대응하는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표 4-15] 대학 입시 지원 전담 사업

내용	일정	목표실적	추진실적
대학입시지원전담인력 관리	1월~12월	-	2명
1:1 대학 입시 컨설팅	1월~12월	50건	53건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재 및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1월~12월	100명	181명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 지도 지원	1월~12월	10건	10건
수능모의평가 봉투모의고사 및 교재 지원	10월	1회	1회, 20명

출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2025.1.)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직업선택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동기를 강화, 취업의지를 제고하도록 함. 사업설명회, 단계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립동기강화 성장공유회,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성장전시회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향후 지역사회 우호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표 4-16] 직업역량강화 지원

내용	일정	목표실적	추진실적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연중	50명	53명

출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2025.1.)

4) 산출평가(Product)

- 본 절에서는 충청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산출평가(Product)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사업의 운영 실적현황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의 산출내용을 분석하고자 함

(1) 사업 이용자 현황

- 2024년 기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의 경우¹⁹⁾ 총 2,079명으로 아산시 327명, 금산군 316명, 서산시 282명 등 학교밖청소년이 기관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19) 기관별 취합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내용임

[표 4-17]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분	실 인원(2024년 기준)
전체	2,079
공주시	120
보령시	165
아산시	327
서산시	282
논산시	154
계룡시	80
당진시	229
금산군	316
부여군	61
서천군	48
청양군	32
홍성군	108
예산군	81
태안군	69

자료 및 출처: 기관별 조사 응답 결과(2025년도 상반기 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주요 특성별(학업 중단 사유) 센터 이용 인원

- 2024년 기준 충청남도 거점센터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1,780명의 학업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습문제가 4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378명), 심리·정서적 불안정(298명)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시군단위 센터별 이용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공주시 130명, 보령시 165명, 아산시 318명, 서산시 270명, 논산시 154명, 계룡시 80명, 금산군 316명, 부여군 61명, 서천군 17명, 청양군 11명, 홍성군 108명, 예산군 81명, 태안군 69명으로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기관별 이용인원은 실제 이용 인원 합계와 다를 수 있음. 구체적인 센터 이용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습문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가 주요한 학업 중단 사유로 나타남
- 시군 단위 학업중단 주요 사유를 보면, 공주시(1.학습문제,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보령시(1. 학습문제, 2.심리정서적 불안정), 아산시(1.학습문제,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서산시(1.심리정서적 불안정,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논산시(1.학습문제, 2.심리정서적 불안정), 금산군(1.대학입시전략,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부여군(1.학습문제, 2.심리정서적 불안정·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서천군(1.가족문제·학습문제,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청양군(1.학습문제, 2.경제적 문제·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홍성군(1.심리정서적 불안정, 2.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예산군(1.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2.행동문제), 태안군(1.학습문제, 2.심리정서적 불안정)순으로 확인됨

[표 4-18] 학교 밖 청소년 주요 특성별(학업 중단 사유) 센터 이용 인원

(단위 : 명)

구분	전체	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	학습 문제	심리·정서적 불안정	행동 문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대학 입시 전략	결혼/임신/출산	기타
전체	1,780	48	25	472	298	88	378	218	2	251
충청남도 (거점센터)	-	-	-	-	-	-	-	-	-	-
공주시	130	4	2	74	10	-	30	5	-	5
보령시	165	5	-	50	21	-	10	5	2	72
아산시	318	8	7	104	27	34	96	-	-	42
서산시	270	10	10	50	100	20	80	-	-	
논산시	154	5	-	69	50	0	30	-	-	
계룡시	80	-	-	-	-	-	-	-	-	80
당진시	-	-	-	-	-	-	-	-	-	-
금산군	316	-	-	30	16		70	200	-	-
부여군	61	5	-	19	6	3	6	3	-	19
서천군	17	5	1	5	3	-	3	-	-	-
청양군	11	-	2	7	-	-	2	-	-	-
홍성군	108	2	-	11	40	10	20	5	-	20
예산군	81	4	3	3	15	21	22	-	-	13
태안군	69	-	-	50	10	-	9	-	-	-

*출처: 정보망 변경으로 대략적인 인원으로 응답받아, 기관 이용 실인원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2) 실적 현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성취도를 살펴보면, 62.25% 목표대비 65.87%를 달성함. 이는 목표치 62.25%를 상회하여 65.87%의 계획한 성과보다 +3.62%p 초과 달성한 것으로 단순 참여율이 아니라, 진로·학업·취업·심리 등 자립역량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이므로 실질적 성취를 보여줌
-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인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한 사업(진로탐색, 직업훈련, 멘토링 등)이 실제로 자립 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함. 또한 참여를 통한 성과 연결 구조 작동측면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역량 습득·목표 달성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었음을 시사함. 정책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목표 대비 성과가 초과 달성되었다는 점은 향후 사업 예산 확대·지속 추진에 있어 근거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즉, 성과 기반 확산이 필요, 초과 달성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여전히 34.13%는 자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임에 따라 고위기·저성과 집단을 위한 맞춤형 보완 프로그램이 필요함. 둘째, 사업 운영 모델 고도화로 현재 방식이 효과적임이 검증된 만큼, 향후에

는 지역별 특화 모델(군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심리정서 지원 강화 등)로 세분화 가능. 셋째, 성과 관리 체계 강화로 목표 설정 방식과 성과 측정 지표를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실적이 단순 ‘양적 초과 달성’이 아니라 청소년 삶의 질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음

[표 4-19] 2024년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단위 : %)

성과지표		2024 목표	2024 달성
자립성취도*	서비스 제공인원 대비 성과달성도	62.25	65.87

*자립성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대비 성과인원 비율(‘24년 성과인원/’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100
출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2025.1.)

- 구체적인 지원 실적으로는 서비스 지원 실인원 2,578명, 성과인원은 총 1,698명으로 확인되며 이 가운데 학업복귀인원은 1,021명, 사회진입 326명, 자립역량강화 351명으로 나타남
- 즉, 지원 체계가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성과 인원 중 60% 이상(1,021명)이 학업으로 복귀하여, 학업 복귀 지원(검정고시, 대안교육 연계, 학업중단수려제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함. 재학 체계로의 복귀 경로가 강력한 지원 효과임을 보여줌. 둘째, 다양한 경로 성과 분화하여, 사회진입(326명, 취업·훈련 등)과 자립역량 강화(351명, 상담·멘토링·기술 습득 등)도 각각 20% 내외를 차지함. 이는 학업 복귀 외에도 진로·자립·취업 경로 지원의 실효성을 보여줌
 - 현재 성과가 학업 복귀에 집중되어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중 상당수는 학업보다 직업훈련·취업·자립 역량을 원하고 있음. 이에 진로 다변화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함. 20%대에 그친 사회진입·자립 강화 성과를 높이려면 맞춤형 직업훈련, 창업 지원, 멘토링 강화, 지역기업 연계가 필요, 사회진입·자립역량 지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관리 강화를 통해 단순 지원 인원보다 성과 인원 비율(약 66%) 중요 지표로, 향후 성과 관리 체계(추적 조사·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함

[표 4-20] 2024년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실적 현황

(단위 : 명)

지표		내용	지원 실적
서비스 지원 실인원*		학업, 취업, 진로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받은 실인원	2,578
성과 인원	합계	학업복귀, 사회진입, 자립역량향상의 영역별 사업지원 받은 인원 합산	1,698
	학업복귀	교육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규학교 복교, 상급학교 진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학교 재적응, 대학진학, 학력인정 등의 인원	1,021
	사회진입	취업, 창업,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의 인원	326
	자립역량강화	자기계발, 진로체험, 봉사활동, 수상 등 자립역량 향상 인원	351

*실인원: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 받은 중복을 제거한 학교 밖 청소년 실인원
출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2025.1.)

- 한편 교육청 및 경찰청 연계현황은 총 790명으로 교육청 753명, 경찰청 37명으로 확인됨(2024년도 기준,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실적)
- 이는 조기 발굴·연계 시스템 작동으로 학교 중단 시점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상당수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꿈드림 등)'로 연결했음을 의미함.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지원 등 교육청 중심의 조기 개입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사료됨. 둘째, 지원 체계의 제도화 성과로 753명은 전체 연계 인원 중 95% 이상을 차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주된 진입 경로가 교육청 채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학교를 이탈할 때 가장 먼저 접촉하는 기관이 교육청이므로, 향후 정책에서도 교육청 협력 강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함. 셋째, 위기 청소년 발굴 경로로써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부는 범죄·비행·가출 상황에서 발견되어 경찰을 통해 지원체계로 연계되어 심리·정서·법적·가정환경 문제를 동시에 안은 고위기군일 경우 경찰을 통한 연계는 학교 기반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발견된 청소년도 지원체계로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의 성과로 사료됨
 - 교육청 중심 연계 강화 필요 측면에서 현재 연계의 95% 이상이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학교 내 위기 조기발견 시스템, 대안교육 연계 강화, 학업중단숙려제 실효성 제고가 핵심 과제임을 시사함. 둘째, 다른 기관과의 연계 다변화가 필요함. 즉 경찰청 외에도 복지부·보건소·지역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등 다양한 경로로의 연계를 확장하여 다부처·다기관 협업체계가 요구됨. 셋째, 고위기군 맞춤 지원 강화를 통해 심리·정서적 위기개입, 상담·치유, 자립지원으로 이어지는 집중 패키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표 4-21] 2024년 교육청 및 경찰청 연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인원		
	전체	교육청	경찰청
인원	790	753	37

출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2025.1.)

3. 소결

- 충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context)을 분석하기 위하여, 충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들의 추진근거 및 체계, 관련 조례 내용을 검토함
 - 충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운영체계 검토, 관련 법령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확인되어 도지사는 상담, 학업지원, 진로·직업체험, 자립지원(생활·문화·의료) 등 다양한 지원 가능하며 충남 내 센터는 법률적 근거와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 중이며, 정기적 운영평가가 실시됨
 - 법·조례 근거 기반의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큼에 따라 표준화된 운영·성과관리 지표 필요하며, 정기평가(성평등가족부 주관)와 연계한 환류체계 강화가 필요함. 한편 조례를 통한 지원 범위가 넓어, 실제 사업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투입평가(Input)에 대한 내용으로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별 예산과 인력을 중심으로 투입정도를 살펴보았으며,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을 살펴봄
 - 2024년 총 세입 약 40.8억 원(국비 37.5%, 도비 30.1%, 시군비 19.0%, 기타 13.3%). 지출은 인건비(45.7%), 사업비(48.0%) 중심. 거점센터가 42% 차지하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근 인력 53명(여성 92.5%, 정규직 49.1%, 계약직 26.4%). 자격증 보유율 높음(청소년지도사 52.8%, 사회복지사 49.1%). 기관 공간은 임대 8개소, 자가 7개소로 안정성이 부족한 편으로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는 2개소로 확인되며 운영형태는 직영·민간위탁 혼재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도비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재정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인력 안정성 부족(계약직 비중 높음)에 따라 정규직 확대 및 전문성 개발 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간 안정성이 취약(임대·공유 비율 높음)함에 따라 장기적 독립공간 확보 방안 마련 필요하며 운영형태 다양성에 따른 표준화된 경영·평가체계 구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과정평가(Process)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충남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별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측면을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등으로 대표과제, 우수사례 개발 추진 과정, 활용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등의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과정평가내용으로 살펴보았음
 - 구체적으로 전년도 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운영(컨설팅·현장점검, 우수사례 공모전 등), 전문지도자 교육과정 운영(4종 꿈드림 전문교육, 온라인 맞춤형 교육)하고, 지역 자원 연계(학업·생활·장학금·외부활동 등)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 활성화사업을 위해 검정고시 교재·응시 지원, 대학 체험,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또한 진학지원을 위하여 입시전담인력 배치,

- 1:1 컨설팅, 수능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업체험, 성장공유회, 취업 연계 등을 추진함
- 우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경우 상담·학업 및 직무 다양화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환류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연계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진학 중심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한편, 직업·자립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향후 진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함. 또한 자원연계의 범위를 보다 확대(복지·보건·고용부 등 타 부처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출평가(Product)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산출평가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시군 사업의 실적 만족도 증가 현황과 시군별 우수사례 선정 결과와 본예산 확보, 체계적 사례관리 구축 등의 산출평가내용을 살펴볼 수 있음
- 2024년 이용 청소년 2,079명으로 학업중단의 주요한 사유로는 학습문제(26.5%),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1.3%), 심리·정서 문제(16.8%)로 나타남. 서비스를 지원한 인원은 2,578으로 이 가운데 학업복귀 1,021명, 사회진입 326명, 자립역량강화 351명으로 전체 성과 인원 1,698명으로 나타나며, 자립성취도 목표 62.25%로 실제 달성률은 65.87%로 목표 대비 +3.62%p를 초과 달성하였음. 한편, 교육청·경찰청으로 연계한 인원은 총 790명(교육청 753명, 경찰청 37명)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학업복귀 성과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청 협력 지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진입·자립역량 강화는 각 2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직업훈련, 취업·창업, 멘토링 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립 미달성 인원은 약 34%로 이에 대한 맞춤형 보완 프로그램 필요하며, 성과 관리 체계 정교화하여 단순 참여 인원보다 질적 성과(삶의 변화) 측정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연계 구조가 교육청 95% 이상으로 나타나며 향후 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 복지기관, 보건소 등 다기관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주요 결과 및 정책시사점

1. 주요 결과
2.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주요 결과 및 정책시사점

1. 주요 결과

1) 실태조사 주요 결과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주요 핵심 문제는 ① 정보 접근성 부족, ② 심리·정서 취약성, ③ 경제적 불안, ④ 지역 격차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 단계별 접근, 교육청 연계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이 핵심 축으로 도출됨
- 첫째, 지원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는 진학·입시, 진로 체험, 직업 관련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 권유와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한계에서 비롯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통합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성별·연령별·학교 중단 시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함. 지역 전반의 관련 기관 등 사회적 자원, 대학생, 도래 집단 멘토 등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멘토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둘째, 심리적 정서적 취약 문제는 학교를 중단한 초기 청소년의 경우에서 특히 자살 생각이나 자해 경험 등 위기 상황에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며, 여학생이나 만 18세 이하 전기 청소년에서 특히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음. 이에 따라 학교 이탈 직후에는 위기 개입 중심의 심리적 정서 지원서비스를 집중하여야 하며, 여학생과 미성년 청소년 대상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후기 청소년의 경우 사회 진입의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립 준비와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셋째,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비, 의료비, 교육훈련 참여비 지원 등 기초적 지원 요구를 단계적으로 는 소액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교육참여 수당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동시에 학습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중기적으로는 기초생활비 생계형 지원 확대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으로 자립 기반 마련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함
 - 넷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거주 지역별 청소년 특성을 반영하여, 군 지역 청소년은 농어촌 지역 셔틀버스 운송수단 운영, 이동 상담 서비스 활성화 등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시 지역 거주 청소년의 경우 맞춤형 진로 상담 및 중장기적 진로 탐색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다섯째, 교육청과의 연계 강화는 모든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야 함.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내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할 수 있는 통합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또한 검정고시, 대안학교, 직업훈련 과정 등 다양한 대안 경로에 대한 정보

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학습·진로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지자체, 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가족센터 간 공동 전략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례회의를 통한 사례관리, 대상 맞춤형 학습·진로·심리·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동행 지원을 보장해야 함

-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충남 도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 자율적인 진로에 대한 설계와 건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단순한 보호 중심에서 주체적인 자율성을 가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대상 맞춤형 지원이 구체화되어야 함. 또한 학교 밖으로 이탈한 시점별로 단계적인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이 주요 기관인 지자체, 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긴밀한 연계지원으로 실현되어야 함

[표 5-1] 통합지원체계 구축

주요 문제 영역	구체적 문제	정책 대응 방향	세부 전략
정보 접근성 부족	진학·입시·진로체험·직업 정보 접근 제한, 오프라인 의존	맞춤형 지원	- 온라인·모바일 통합 플랫폼 구축 - 성별·연령·학교 중단 시기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지역 기반 멘토링·직업인 네트워크 강화
심리·정서 취약성	자살 생각·자해 경험, 정서 불안정, 상담 접근성 낮음	단계별 접근	- 학교 중단 초기: 위기개입 프로그램 집중 지원 - 여학생·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조기개입 확대 - 후기 청소년: 자립준비·사회진입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경제적 불안	생활비·의료비 부담, 자립 기반 부족	맞춤형 지원 + 단계별 접근	- 단기: 소액 용돈 지원, 교육 참여 수당 - 중기: 생계형 기초생활비 지원 - 장기: 의료비·주거비 지원, 자립준비금 제도화
지역 격차	군 지역: 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시 지역: 선택지 많아도 진로 결정 혼란	교육청 연계 강화	- 교육청과 연계한 대안교육·검정고시 지원 확대 - 농어촌: 셔틀·이동상담·문화체험 기회 제공- 도시지역: 1:1 진로 상담,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제도 연계 미흡	꿈드림·상담센터·직업훈련 등 서비스 단절적 운영	교육청 연계 강화	- 지자체, 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동협의체 운영, 정례회의 사례통합관리 추진 등 - 학업중단속려제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학습·진로·복지 통합 연계 플랫폼 구축

2) CIPP 주요 결과

- 충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context)을 분석 결과, 법·조례 근거 기반의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큼에 따라 표준화된 운영·성공관리 지표 필요하며, 정기평가(성평등가족부 주관)와 연계한 환류체계 강화가 필요함. 한편 조례를 통한 지원 범위가 넓어, 실제 사업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투입평가(Input) 결과, 2024년 총 세입 약 40.8억 원(국비 37.5%, 도비 30.1%, 시군비 19.0%, 기타 13.3%). 지출은 인건비(45.7%), 사업비(48.0%) 중심. 거점센터가 42% 차지하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근 인력 53명(여성 92.5%, 정규직 49.1%, 계약직 26.4%). 자격증 보유율 높음(청소년지도사 52.8%, 사회복지사 49.1%). 기관 공간은 임대 8개소, 자가 7개소로 안정성이 부족한 편으로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는 2개소로 확인되며 운영형태는 직영·민간위탁 혼재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도비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재정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인력 안정성 부족(계약직 비중 높음)에 따라 정규직 확대 및 전문성 개발 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간 안정성이 취약(임대·공유 비율 높음)함에 따라 장기적 독립공간 확보 방안 마련 필요하며 운영형태 다양성에 따른 표준화된 경영·평가체계 구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과정평가(Process) 결과, 전년도 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운영(컨설팅·현장점검, 우수사례 공모전 등), 전문지도자 교육과정 운영(4종 꿈드림 전문교육, 온라인 맞춤형 교육)하고, 지역 자원 연계(학업·생활·장학금·외부활동 등)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 활성화사업을 위해 검정고시 교재·응시 지원, 대학 체험,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또한 진학지원을 위하여 입시전담인력 배치, 1:1 컨설팅, 수능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업체험, 성장공유회, 취업연계 등을 추진함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경우 상담·학업 및 직무 다양화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환류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연계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진학 중심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한편, 직업·자립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향후 진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함. 또한 자원연계의 범위를 보다 확대(복지·보건·고용부 등 타 부처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출평가(Product) 결과, 2024년 이용 청소년 2,079명으로 학업중단의 주요한 사유로는 학습문제(26.5%),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1.3%), 심리·정서 문제(16.8%)로 나타남. 서비스를 지원한 인원은 2,578으로 이 가운데 학업복귀 1,021명, 사회진입 326명, 자립역량강화 351명으로 전체 성과 인원 1,698명으로 나타나며, 자립성취도 목표 62.25%로 실제 달성률은 65.87%로 목표 대비 +3.62%p를 초과 달성하였음. 한편, 교육청·경찰청으로 연계한 인원은 총 790명(교육청 753명, 경찰청 37명)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학업복귀 성과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청 협력 지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진입·자립역량 강화는 각 2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직업훈련, 취업·창업, 멘토링 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립 미달성 인원은 약 34%로 이에 대한 맞춤형 보완 프로그램 필요하며, 성과 관리 체계 정교화하여 단순 참여 인원보다 질적 성과(삶의 변화) 측정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연계 구조가 교육청 95% 이상으로 나타나며 향후 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 복지기관, 보건소 등 다기관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5-2] CIPP 평가 영역별 시사점

구분	CIPP 분석틀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평가지표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내용	CIPP 평가영역별 가족정책사업(23년도 결과보고 기준) 시사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지표		
상황평가 (Context)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요구, 문제 그리고 기회를 평가	체제분석, 표본조사, 문헌검토, 청취 및 면담, 진단검사, 델파이 기법 등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반 노력도	조례 및 규칙 제정, 재정 확보 수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센터장 팀장 전임 여부, 직원 고용안정성 및 복지수준	- 충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충청남도 조례」 등 - 상담·학업·진로·자립지원 등 광범위한 지원 가능 - 성평등가족부 정기평가 제도 운영	법·조례 근거 기반의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큼에 따라 표준화된 운영·성과관리 지표 필요하며, 정기평가(성평등가족부 주관)와 연계한 환류체계 강화가 필요함. 한편 조례를 통한 지원 범위가 넓어, 실제 사업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세 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투입평가 (Input)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필요에 부합하는 대안적 방안을 평가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파악, 해결전략, 연관성을 위한 절차설계의 실행가능성과 경제성 목록 작성, 문헌연구의 우수 사례 프로그램과 팀에 대한 방문 파일럿 운영 등	시설 및 예산 관리 사업 인프라	센터 설치기준 준수 여부, 시설 안전성,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 직원의 역량제고 노력	- 2024년 예산 40.8억 (국비 37.5%, 도비 30.1%, 시군비 19.0%, 기타 13.3%) - 지출은 인건비(45.7%), 사업비(48.0%) 중심- 상근 인력 53명(여성 92.5%, 정규직 49.1%, 계약직 26.4%) - 공간: 임대 8개소, 자가 7개소, 독립 공간 2개소	국·도비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재정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인력 안정성 부족(계약직 비중 높음)에 따라 정규직 확대 및 전문성 개발 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간 안정성이 취약(임대·공유 비율 높음)함에 따라 장기적 독립공간 확보 방안 마련 필요하며 운영형태 다양성에 따른 표준화된 경영·평가체계 구축이 고려될 필요

구분	CIPP 분석틀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평가지표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내용	CIPP 평가영역별 가족정책사업(23년도 결과보고 기준) 시사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지표		
과정평가 (Process)	계획에 대비하여 활동들을 이끌 수 있는 실행수준을 평가	활동에 대한 잠재적 절차상의 장벽을 지켜보고 예상되지 않은 장애물 파악, 계획된 결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정보 획득, 실제 과정 기술, 프로젝트 참여자의 활동을 관찰하고 계속된 상호작용 실시	센터 협력도	종사자 교육 운영 체계성, 시군센터 대상 컨설팅 실시, 수요분석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여부, 시군센터 시도센터 협력	- 전년도 사업 환류체계 운영 (컨설팅·현장점검·공모전) - 전문지도자 교육(상담·학업 중심) - 지역자원 연계: 학업·생활·장학금 지원 - 교육참여 활성화: 검정고시, 대학체험, 외국어 지원 - 진학지원: 입시상담인력, 1:1 컨설팅 - 직업역량 강화: 직업체험, 취업연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경우 상담·학업 및 직무 다양화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환류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연계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진학 중심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한편, 직업·자립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향후 진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함. 또한 자원연계의 범위를 보다 확대(복지·보건·고용부 등 타 부처 연계 강화)할 필요
	산출평가 (Product)	의도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이지를 평가	발굴 및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증가율, 개인정보 관리 체계성, 자원 개발 및 연계 노력	- 2024년 이용 청소년 2,079명 - 학업중단 사유: 학습문제(26.5%),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1.3%), 심리정서문제(16.8%) - 자립성취도: 목표 62.25% → 달성 65.87%(+3.62%p) - 성과 인원 1,698명: 학업복귀 1,021명(60%), 사회진입 326명(20%), 자립역량강화 351명(20%) - 교육창·경찰청 연계 790명 (교육창 95%)	전반적으로 학업복귀 성과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청 협력 지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진입·자립역량 강화는 각 2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직업훈련, 취업·창업, 멘토링 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립 미달성 인원은 약 34%로 이에 대한 맞춤형 보완 프로그램 필요하며, 성과 관리 체계 정교화하여 단순 참여 인원보다 질적 성과(삶의 변화) 촉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연계 구조가 교육청 95% 이상으로 나타나며 향후 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 복지기관, 보건소 등 다기관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

2. 정책시사점

1) 정책대상 맞춤형 정보 접근성 강화

-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진학 및 입시, 진로 관련 체험이나 직업 정보 등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온라인을 통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통합적인 진로 및 학습 관련한 통합 플랫폼을 통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이를 통해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즉, 성별이나 연령별 그리고 학교를 중단한 시기별로 요구되는 맞춤형의 실시간 정보전달채널을 마련해야 할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진로와 관련한 멘토 등을 활용하는 멘토링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계망 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2) 단계별 접근을 통한 심리 및 정서적 안정 지원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중단 시기별로 심리 및 정서 상태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학교를 중단한 직후의 청소년의 경우, 자살 생각, 자해 경험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심리 및 정서 위기에 있어 취약성이 더 높게 나타남. 여학생 및 18세 이하의 전기 청소년의 경우 특히 다른 연령대나 남학생에 비해 훨씬 민감도와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 고위험군으로 확인됨. 이러한 고위험군의 경우, 특히 심리 및 정서적 안정 지원이 우선적으로 사전예방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학교를 중단한 초기인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전에 심리정서적 프로그램을 보다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한편, 연령대 19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인 자립에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불안정한 자신의 미래와 사회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련한 자립 준비지원 프로그램과 취업 기반 교육훈련 및 직장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심리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이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구체적으로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적 심리상담사업을 활성화하여 심리지원체계 구축으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할 필요

- 사전예방적으로 심리평가 및 청소년정신건강 원스톱 지원사업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함.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교육과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단을 구축 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의 마련

-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한 경제적인 부담인 생활비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훈련비 등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유지를 통한 사회적 자립 기반 확보 자체에 단계별 지원이 요구됨. 즉,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교육참여 수당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 및 자립 학습 동기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지원과 학습동기를 고양시키는 의료비 및 주거비 바우처 형태 지원으로까지 지원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음. 필수교육을 이수하면 기초생활비 지원 바우처 지급을 확대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나 주거비관련 지원으로 자립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를 중단하였으나 지속적인 자립을 독려하도록 중단한 시기와 상황에 적합한 교육경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국정과제인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체계화”를 보다 충남 도내 청소년 맞춤형으로 활성화 할 필요
 - 검정고시 및 수능교재 등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하고 진로검사 및 진로설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인턴십 등의 취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지역간 격차 해소

- 충남 도내 시군 지역 간에 정보나 프로그램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낮은 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 및 문화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는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어 상대적으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한 참여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함. 즉, 운송수단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읍면단위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함. 한편, 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관련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의 영역이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청소년 각자가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 선택이나 관련 프로그램 결정에 개인별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자 원하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관련 진로 프로그램 지원이나 심화단계의 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지원이 필요함

5) 교육청과의 연계 강화하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인 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이를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내에서 학업을 중단하려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그리고 진로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진로 및 자립에 관련한 정보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공하고,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과 교육학습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이와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의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사례관리, 대응 방안 공유, 관련 진로 및 정서적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표 5-3] 주요 결과 및 정책 방향

구분	주요 내용
현황 및 실태	①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이후 진로 정보 부족, 심리·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불안, 지역 격차 등에 직면하고 있음 ② 단순 보호 중심 정책을 넘어 맞춤형 지원·단계별 접근·교육청 연계 강화 필요
주요 결과	① 정보 접근성 부족: 진학·진로·직업 정보 접근 경로 제한, 맞춤형 정보 미흡 ② 심리·정서 취약성: 학교 이탈 초기 위기 높음, 여학생·18세 이하 불안정성 뚜렷함 ③ 경제적 불안: 생활비·의료비 부담, 지원체계 획일적인 측면 있음 ④ 지역 격차: 군 지역(교통·문화 부족), 시 지역(진로 결정 혼란) ⑤ 제도 연계 미흡: 지원 서비스 단절, 교육청 협력 부족
정책 방향	① 정보 접근성 강화(맞춤형 지원): 온라인·모바일 통합 플랫폼 구축, 성별·연령·중단 시기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멘토링 네트워크 강화 ② 심리·정서 안정 지원(단계별 접근): 이탈 초기에는 위기 개입 집중, 여학생·18세 이하의 정서 안정 프로그램 확대, 후기 청소년은 자립·사회 진입 지원 프로그램 ③ 경제적 자립 기반(단계별 지원): 단기에는 용돈·교육참여 수당, 중기에는 기초생활비 지원, 장기에는 의료비·주거비 지원, 자립준비금 제도화 ④ 지역 격차 해소(맞춤형 대응): 군 지역은 셔틀, 이동상담, 문화체험 확대 필요하고 시 지역은 1:1 진로 상담, 심화 설계 지원 필요 ⑤ 교육청 연계 강화(통합 지원체계): 학업중단숙려제 실효성 제고, 조기위기 포착 시스템 구축, 대안 경로 정보(검정고시·대안학교·직업훈련) 제공, 교육청-지자체-센터 공동 TF 운영, 학습·진로·심리·복지 통합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 지원 필요
기대효과	① 정보 접근성 제고: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자기주도 진로 설계 강화 ② 심리·정서 안정화: 단계별 개입으로 위기 청소년 안정성 및 자존감 향상 ③ 경제적 자립 촉진: 시기별 유연한 지원으로 자립 기반 강화 ④ 지역 격차 완화: 지역 맞춤형 대응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 ⑤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교육청-지자체-센터 연계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망 마련

참고문헌

- 관계부처 정부합동. 2023.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 관계부처 정부합동. 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 김경주·김부경·한나현. 2023. 전남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 전남여성가족재단
- 김명화·김현수·박하나·박주향·김형산·안재우.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운영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선미. 2024. 충청남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김혜숙. 2014.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이론과 실제
- 김희잔·임희잔·김정숙·박소영. 2023.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잔·조혜영·한지형.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잔·서고운·김미정·류정화·권정희. 202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해정.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성평등가족부. 정부출범 2.5주년 계기 성평등가족부 성과 및 향후 계획. 2024.11.14. 보도자료 최종 배포본.
- 성평등가족부. 2024. 2023 청소년백서
- 성평등가족부. 2024. 202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 성평등가족부. 2024. 2024 청소년사업 안내
- 오민아. 2023.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실태 및 보호지원 방안 연구.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025.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2025.1.)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료 검색일: 2025. 2.16.)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s://www.neis.go.kr/nxuiPortal/index.html>, 자료 검색일: 2025.2.16.)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자료 검색일: 2025. 2.16.)
- 충청남도. 충청남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보고서 (<http://lib.chungnam.go.kr>, 자료 검색일: 2025.1.10.)
- 충청남도교육청. 2024. 2024 학업중단 예방 기본계획
-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www.cnyouth.or.kr, 자료 검색일: 2025. 2.16.)
-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tat.go.kr>, 자료 검색일: 2025.1.17.)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tat.go.kr>, 자료 검색일: 2025.1.20.)

기본연구 | 2025-11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연구

발행자: 김영옥 (충남사회서비스원장)

발행일: 2025년 12월 12일

발행처: 충남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32560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753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유아교육관 4층

ISBN: 979-11-92866-69-7

전 화: 041-400-7284

인쇄처: 중부인쇄디자인 (041-334-7535)